

OLP JOURNAL

Opinion Leaders Program 저널 August VOL.21



인사말

OLC 8대 회장 성대영

OLP Special

2019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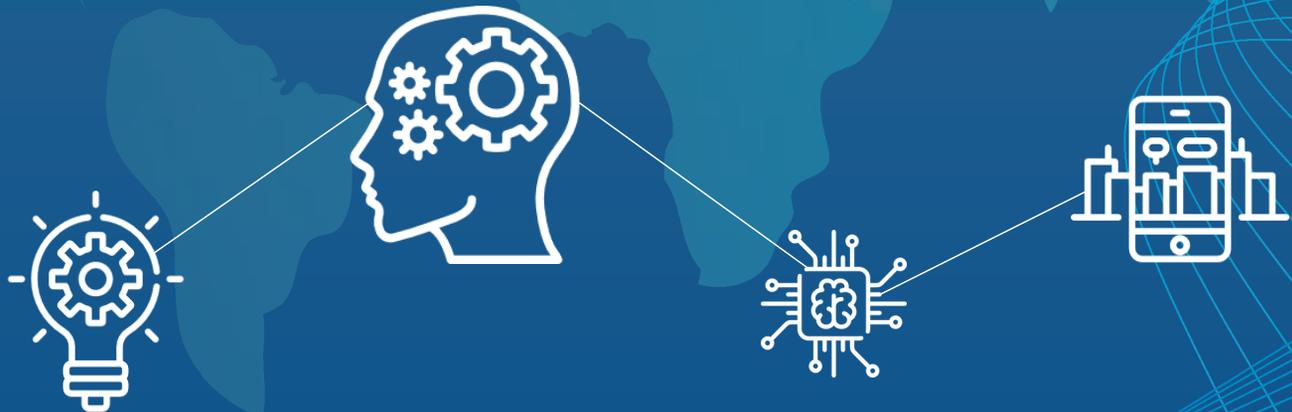
2019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2019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7명은 신선이 됐다

두려움은 결국 현실로... 오페라 리콜레토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컨텍센터 전문기업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컨텍센터
그 중심에

KS한국고용정보가 있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를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KS한국고용정보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파트너!
금융마케팅/컨텍센터 구축 · 위탁운영 · ASP/인재채용에 이르기까지
성공을 위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KS한국고용정보는 귀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노사문화우수 인증/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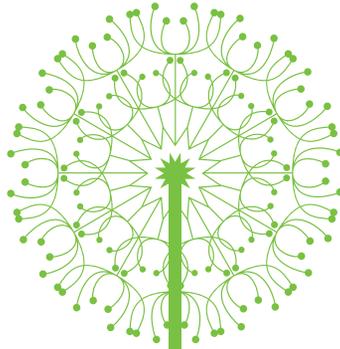
가족친화 인증



ISO9001 인증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건물·시설종합관리 / 통합물류관리 / 생산·제조도급 / 식·음료 사업관리 / 주차위탁관리 / 골프장 관리 /
판촉위탁관리 / 공조필터 납품 / 냉·난방기 종합세척 / 실버복지서비스 / 해외배송대행 / 근로자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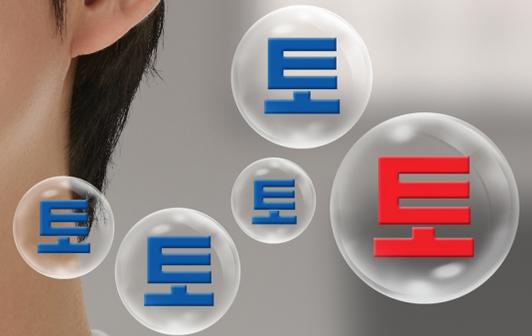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기업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타워 동관 6F
Tel. 1588-2239, 02-828-3939 Fax. 02-816-2669
<http://www.samkoo.com>

피곤한 몸
침침한 눈



피곤한 몸, 침침한 눈이 **피로신호**를 보낼 때

토탈비타민
토비콤골드



용법 / 용량: 1일 1회, 1회 1정 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2019-1469-001900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LG하우시스의 앞선 공간기술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에너지 세이빙 수퍼세이브창



건강한 바닥재 지아소리잠



건강을 더한 지아벽지



연비절감 경량화 소재



인테리어스톤 하이막스



자연을 닮은 데크 우젠



식물 유래 성분 대쉬보드



쾌적한 시트소재



디자인 인테리어 필름



건축장식자재 LG Z:in

에너지를 절감하는 창호/고단열 유리
자연 유래 성분의 벽지/바닥재
다양한 디자인의 인테리어스톤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인테리어/데코 필름
고성능 건축용 단열재

자동차소재부품

우수한 내구성의 쾌적한 자동차 원단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경량화 부품
품격을 높이는 내외장재 자동차 부품

고기능소재

기능성 가전제품용 표면소재
옥외 디스플레이 광고용 소재



A RELIABLE CLASS PARTNER FOR YOUR TRANSITION TO THE FUTURE

Digital Services
Ship Classification
Certification Services
Naval Services
Industry 4.0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Energy & Environmental Services
Academy



OLP JOURNAL

Opinion Leadership Program



‘OLP(Opinion Leaders Program)’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기업체 간부와 전문직 중견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제, 경영전문과정입니다.

〈OLP JOURNAL〉은 ‘OLP’ 교육을 수료한 멤버들이 경제 경영 현안을 중심으로 기업인과 언론인들의 상호이해를 높여려는 목적에서 제작하는 저널입니다.

발행인 성대영

발행처 사단법인 Opinion Leaders Club (OLC)

발행일 2020년 8월 20일 / 통권 제 21호

등록번호 서울 사 01993 / **편집장** 안미현

위원장 이세정 / **부위원장** 허원순

고문 정세용 · 이종재 · 이의춘 · 신동욱 · 정석구

위원 김광기 · 김석 · 김홍익 · 이용문 · 이민중

OLC 사무국 070-4636-7816

기획·제작 (주)성우에드컴 www.swadcom.co.kr
02-890-0900

06 인사말 성대영

OLP Cover Story

10 성대영 OLC 총동문회장 인터뷰 이민중

OLP Special

18 2019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OLC사무국

22 2019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허원순

24 2019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김 석

28 7명은 신선이 됐다 허원순

30 두려움은 결국 현실로... 오페라 리콜레토 정지철

OLP가 보는 세상

38 70여년전 백범 예언, 소름끼치는 적중
봉준호 김연아 BTS 손흥민 등 월드스타 줄줄이 박상주

42 취업률 3위 오른 서강대. 그 배경엔 ‘서강대 취업지원팀’이 있었다 공태운

44 사교육 개혁을 위한 좀 엉뚱한 제안 : 체육수업에 답이 있다 홍제표

4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가지 포인트 송의달

52 ‘위대한 멈춤’이 지금 그리운 이유 김동원

54 자칫 잊기 쉬운 경제상식에 대한 단상(斷想) 김상민

59 노자 도덕경에서 만나는 “리더와 리더십” 문규선

OLP Essay

64 OLC 참여와 활용법 박연대

66 “깜빡깜빡” 나도 더 나이 들면 설마...” 최수호

68 나는 은퇴 뒤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정원교

72 독수리 날려 보내기 고철중

75 ‘만년필’, 내 인생 8할은 신문 정세용

80 人生流轉... 다시 ‘막기자’로 이준구

82 일곱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용웅

OLP Travel Essay

88 드라이빙 시칠리아, Arrivederci mio amore! 신동욱

94 유대 최후 항전지 - 마사다 오원정

98 지중해 크루즈 선에 올려 퍼진 평화의 합창 이용식

100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다 김경곤

104 침삭되길 원하는 여행 노트 중국 편 안경호

107 편안하고 이색적인 크루즈 여행, 기존 가격의 반값으로 즐기는 방법 윤석구

114 프레시디오 공원, 가다 박연직

OLC News

118 YouTube 채널 OLC TV 구독 안내

122 기수별 활동 소식

123 OLP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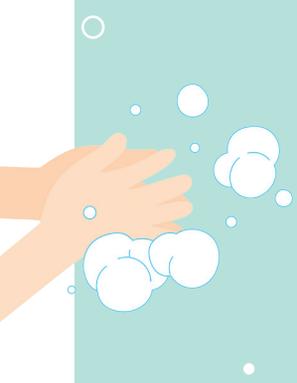
125 OLP 24기 입학 안내



“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OLC 가족 여러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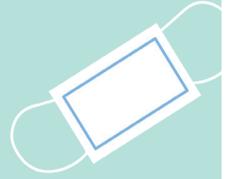
”



클. 성대영
OLC 8대 회장
OLP 17기
위더스제약 대표이사

OLC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반쪽만 남은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온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파위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저희 OLC와 OLP도 이러한 풍파를 피해갈 수는 없나 봅니다. 저희 8대 집행부의 시작을 한순간에 중지시키고 마냥 기다림의 연속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만을 탓할 수는 없지요. 예년과 달리 OLP 23기의 입학식을 늦은 봄에 시작해서 여름이 기승을 부리는 8월 초에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OLP 23기는 저희 OLC의 역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합니다. 영원히 중단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원우님들의 애간장 태우는 위기가 저희 OLP에 시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타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과는 그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OLC 저력은 대단합니다. 신구의 집행부와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경제대학원의 의지력 있는 결단력으로 드디어 OLP 23기가 탄생 됩니다. 지면을 통해서 모든 OLC 가족과 학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영원한 교수님이신 김홍균 OLC 주임교수님의 헌신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8대 집행부의 시작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단절로 그리운 얼굴들을 보지 못한 기간이 반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반기의 남은 행사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재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10월의 골프 행사와 12월의 OLC 대상과 송년회를 더 의미 있는 행사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와 신종플루 사태도 극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엄청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몰고 온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과 각 나라 마다의 질병 관리와 의료진의 질 향상들을 실행대에 올려놓은 유행병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병원도 역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은 신종플루나 메르스를 쉽게 비껴가지 않았습니. 시련은 몰고 왔지만 극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넘기면서 향후의 감염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된 시설 확충 등으로 코로나 19 사태를 맞게 됐지요.

유비무환이란 단어가 새삼 떠오르기도 합니다. OLC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슬기롭게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OLC 가족 원우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LP**



복잡하던 해외송금

간편하게 Hana EZ

유학생 송금 서류제출 영업점 방문 없이
해외송금 실시간 현황조회부터
은행주소 자동셋팅까지
Hana EZ면 다 되지!



₩

→ £



Hana EZ
설치하기



OPINION LEADERS PROGRAM

Cover Story

성대영 OLC 총동문회장 인터뷰
이민중 OLP 15기

성대영
OLC 총동문회장
인터뷰

“

독선을 경계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 이민중
OLP 15기
문화일보 산업부 부장



성대영(61·사진) 위더스제약 대표이사가 지난해 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OLP) 출신 동문 모임인 사단법인 오피니언 리더스 클럽(OLC) 제8대 회장에 선출돼 본격 임기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다. 성 회장은 최근 OLP 저널과의 대담에서 “동반자적인 관점과 공유 정신으로 OLC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창립(2004년 11월 26일) 이후 총 동문 수가 993명으로, 1,000명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OLC가 여러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진화하고 성숙할 것이란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성 회장은 평소에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스마트허브 의료법인 센트럴병원과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전문의약품 제조업체인 위더스제약의 경영에 전념한다. 지난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방역을 진두지휘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 회장은 OLP와 OLC를 위해 선뜻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인터뷰에 임했다.

경영은 물론, OLC 회장직을 수행하시느라 분주하실 듯합니다. OLP, OLC는 회장님께 어떤 조직으로 각인되어 있는지요.

“17기로 OLP에 입학하기 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학해서 생활해 보니 중견 언론인, 기업체 홍보 담당 임직원, 중소·중견기업 CEO 등 구성원이 다양하더군요. 제가 앞서 서울 모 대학 최고위 과정 2곳을 다녔는데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이었고, 회식하고 얼굴 보고 특별히 남는 게 없



“리더는 무조건 끌고 가는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속 구성원들이 같이 가게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게끔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모두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셨지만 저는 철저히 독선을 경계하면서 공유, 공감하는 리더십을 체감하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쉬움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OLP는 구성원도 만족스러웠지만, 현실, 실물 경제에 밀착한 경제교육과 커리큘럼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양한 미래정보를 습득하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과 동행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탁월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인을 올해 선발한 OLP 23기에 지원하도록 소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 좋고, 만족스러워서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분한테 OLP, OLC 거쳐서 회장까지 하시라고 했습니다.(웃음) 이런 점이 또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점 아니겠어요? 통상 서울 소재 대학 최고위 과정은 총동문회의 역할이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OLC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대학원 소속으로 교육과정에 명확한 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기업가인 성 회장은 2017년에 서강 경제대상을 수상했다. 기업경영에 매진하면서도 OLP, OLC에 대한 헌신과 애정을 토대로 조직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다. 개인의 높은 만족도가 좋은 결과로 발현된 셈이다)



성 회장은 심혈관계 전문의약품 제약사와 병원 의료법인을 동시에 운영 중인, 흔치 않은 기업인이다. 제약사와 병원을 합쳐 직원이 700명이 넘는다. 매출액도 1,000억원을 훌쩍 돌파했다. 그의 인생 역정과 극복 과정을 보면 OLC 동문,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를 헤쳐오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맺어 온 인간관계, 임직원과의 융화 노력, 한발 앞선 투자 혜안(慧眼) 등이 분명 남다르게 다가온다.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어떤 각오로 OLC를 이끌고 계십니까.

“리더는 무조건 끌고 가는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속 구성원들이 같이 가게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게끔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모두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셨지만 저는 철저히 독선을 경계하면서 공유, 공감하는 리더십을 체감하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LP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기나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까?

“OLP 17기 졸업여행을 베트남 호찌민으로 갔는데 언론계에 종사하는 원우들이 확실히 ‘기자정신’을 발휘하던 게 떠오르네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게 없는지 탐구하고 루트를 개발하는 게 일반인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 원우가 음식을 잘못 섭취했는지 장염으로 고생하기도 했죠. 원우들과 추억을 쌓고 교류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OLC 회장으로서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모임의 성패는 결국 참석률에서 좌우됩니다. 뜻을 같이하고 동참해야만 공동체로서 생각을 같이하고 더욱 많이 느끼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최소 1, 2번은 참석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OLP가 계속되어야 OLC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했으면 합니다. 지난해부터 원우모집과 열의가 약간 둔화하고 있는데 학교 측과도 모두 내 일처럼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만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성 회장은 심혈관계 전문의약품 제약사와 병원 의료법인을 동시에 운영 중인, 흔치 않은 기업인이다. 제약사와 병원을 합쳐 직원이 700명이 넘는다. 매출액도 1,000억원을 훌쩍 돌파했다. 그의 인생 역정과 극복 과정을 보면 OLC 동문,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를 헤쳐오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맺어 온 인간관계, 임직원과의 융화 노력, 한발 앞선 투자 혜안(慧眼) 등이 분명 남다르게 다가온다.

사업에는 고비가 따르기 마련인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빛 약품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게 1997년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죠. 이듬해 3월 거래하던 병원이 부도가 나면서 요즘 시세로 60~70억 원을 그야말로 날렸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 왔던 병원 원장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도움을 줘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위기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한숨 돌렸나 싶었는데 2002년에 인수한 위더스제약이 온통 부실 덩어리로 판명이 났어요. 거래처 외상 매입금에 임금

체불까지... 당좌어음을 발행하지 않아 부도가 안 났을 뿐이지 재무구조를 뜯어 봤는데 캄캄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였죠. 이후 의약분업, 분쟁 과정에서 임상 시험의 일종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Bio equivalence test·생동성 시험)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진통제, 항생제, 고혈압약 3개의 개발을 밀어붙였죠. 이후 OEM을 부탁하는 대형 제약사들이 우리 회사에 줄을 서더군요. 2005년에 기사회생으로 다시 고비를 벗어났습니다.”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더군요. (웃음) 2009년 2월에 현재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리, 조직과 매출구조를 잘 모르다 보니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병원은 망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 게 오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27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막막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은데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시흥에서는 우리 병원이 제일 크다 보니 지정병원이 됐어요. 크게 홍보가 됐습니다. 전화위복이었죠. 돌이켜 보니 사업을 하면서 순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느낀 게 정말 많았겠습니다.

“경영을 해보니 위기에 처했을 때 혁신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병원 내 감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음압병실(기압 차이를 이용해 바이러스 유출을 차단하는 병실)도 없어 환자를 격리하지 못했는데 이후 5억 원을 투자해 설치했습니다.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모두 나쁜 게 아니라 극복하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남는 기업과 망하는 기업의 차이는 같이 호흡할 직원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병원 경영이 어려울 때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나도 동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부서별로 계속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호흡을 같이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참 뿌듯했던 경험이었죠.”

최근에 성공적으로 워더스제약을 상장하셨죠?

“지난 1일에 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승인을 받았고 3일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가 1만5900원이었는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 청약에서 1082.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으로 2조7500억 원이 몰렸고요.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유통구조개선과 함께 생동 제조 의약품 확보로 실적 기대감이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안정성을 넘어 실적 성장에 자신이 있는데 이를 확인했다고 할까요. 저희가 2014년 이후로 영업이익률 20%를 지속해서 기록했는데 이는 업계 평균(7~10%)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제약산업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은 전망이 밝습니다. 고령화 때문이죠. 2045년까지 노인 인구가 계속 늘 전망인데 약 1,8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등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제약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약가 제도가 변경되는데 정부가 의료보험재정 고갈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약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가 중



위더스 제약의 사훈(社訓)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라는
 의미의 역지사지(易地思之)입니다.
 환자, 생산자, 소비자, 직원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나 병원 모두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는 게 목표이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료된 약과 신약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해야 할 텐데 실험할 병원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에 대응해 지난해 말 대학병원과 같은 수준의 임상센터를 구축했습니다. 항생제 전문 생산 비중도 늘리기 위해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공장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철학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위더스 제약의 사훈(社訓)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라는 의미의 역지사지(易地思之)입니다. 환자, 생산자, 소비자, 직원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량신약을 앞세운 위더스제약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고 병원은 대학병원과 어깨를 겨눌 ‘경기 서남권의 빅4 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제약사나 병원 모두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는 게 목표이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씨름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계시죠?

“회사에 전직 씨름 선수 3명이 입사했는데 근성도 있고 성실하더군요. 씨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부족해 자칫 잊힐 상황이어서 8년째 씨름대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족한 씨름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고요. 민속씨름이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성 회장에게 직원 복지와 건강관리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위더스 제약 직원들에게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했고요. 사실(대부분 오너들이) 스톡옵션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행주식이 늘어나면 자신들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저는) 맨손으로 시작했고(이만큼 성과를 이뤘는데)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요? 사업하다 보니 특별히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걸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불쑥불쑥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곧장 메모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고비를 극복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포용에 방점을 둔 그의 진면목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OLC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도. **OLP**

WON 하는대로 우리 WON banking



깔끔해진
메인 화면



확 줄인
상품 가입 단계



찍어서 납부하는
공과금



말로 처리하는
보이스뱅킹



흔들면 바로가는
모션뱅킹



딱 맞는
상품 안내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WON뱅킹
다운로드하기

OPINION LEADERS PROGRAM

Special

2019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OLC 사무국

2019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허원순 OLP 12기

2019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김석 OLP 12기

7명은 신선이 됐다
허원순 OLP 12기

두려움은 결국 현실로...
오페라 리골레토
정지철 오페라 감독

OPINION



01 02



03



04 05



LEADERS CLUB

2019년 12월 5일(목) | 서강대학교 흥성열강의실

주최 : OPINION LEADERS CLUB (사)오피니언리더스클럽



06 07



2019 OLC 대상 및 송년의 밤

- 01 1층 로비에 마련된 미니 오케스트라
- 02 좌측부터 상대영 신임 회장, 6대 구자관 명예회장, 어진 회장
- 03 좌측부터 상대영 신임 회장, 7대 어진 회장, 차기 회장인 손영득 수석부회장
- 04 새로 취임한 상대영 신임 회장과 손병관 사무총장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17기 원우들
- 05 좌측부터 감사패를 받은 유병인 운영이사(대리수상), 손영득 수석부회장, 윤석구 8기 전임회장, 백경수 원우
- 06 지난 2년간 OLC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연대 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어진 회장
- 07 작년에 이어 OLC 장학금과 2019년 새롭게 신설한 학술상 전달 [수여 명단]
 - 학술상 : 안태현 교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부원장)
 - 장학금 : 최영동, 전성빈, 김건우, 서준모, 김동욱(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08 OLC 대상 수상자들, 좌측부터 언론대상 12기 경향신문 김석 원우, 경영대상 20기 SD 생명공학 박설웅 기수회장, 홍보대상 11기 한화 강호균 원우
- 09 7대 어진 회장의 송년사
- 10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OLC 전체 회원들의 뜻이 담긴 공로패를 전달받는 어진 회장과 나란히 선 상대영 신임 회장
- 11 상대영 신임회장이 선출 소감과 함께 OLC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12 새로 선출된 상대영 신임회장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는 같은 기수의 백미소 원우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3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3부 디너 행사

14 2019 송년의 밤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 커팅식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홍성열 명예회장, 이한식 교수, 남성일 교수,
성대영 신입 회장, 어진 회장, 송의영 경제대학원장, 구자관 명예회장, 김홍균 교수

15 케이크 커팅식 후 홍성열 명예회장의 건배사를 경청하고 있는 원우들

16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OLC 원우들

17 화합을 다지고 있는 7기 원우들

18 행사를 위해 선뜻 협찬 해주신 회장님들과 원우님 덕분에 더욱 풍성한 송년의 밤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은 협찬 내역이다.

- 홍성열 명예회장(3기) : 마리오 아울렛 상품권 (100만원 상당)
- 장재진 명예회장(8기) :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 3점
- 어진 회장(12기) : 메디페르 루테인 앰플 2종 25세트
- 성대영 수석부회장(17기) : 프리미엄 건강검진권 1매
- 권영욱 전임부회장(7기) :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티켓 20매
- 조남규 원우(21기) : 서적 '포폴리스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50권



20



22

21



23

19 옆에 앉은 원우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가 끊이지 않는 OLC

20 어진 회장이 협찬해준 메디페르 루테인 앰플 2종 세트를 받으며 즐거워 하는 원우들

21 경품 당첨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12기 원우들

22 축하 무대를 꾸며준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배우들과 어진 명예회장

23 2019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마무리 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는 성대영 신입 회장

2019 OLC 대상 수상자 인터뷰

글: 허원순 OLP 12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프로필 금융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채권 선 물 옵션 국제금융 업무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심사역까지 다방면의 금융 업무를 섭렵했고, 바이오벤처기업의 CFO로서도 일했다. 20년 직장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주)에스디생명공학을 창업했다. 회사 설립 10년 만에 중국 베트남 등에 5개 현지법인을 두고 5,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받았고, 매출 1,500억 원 실적을 쌓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회사를 성장시켰다.



OLC 경영대상 수상자 박설웅
OLP 20기
박설웅 에스디생명공학 대표

“2020년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 OLC 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2008년 회사 설립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매출을 증가시켰고 매년 순이익도 났으나,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매출 감소에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와중에 경영 대상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 수상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성장시키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 대표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 기반이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사드 보복’ 등 그동안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회사로서 현지화 전략을 통한 매출 확보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현지 직원뿐 아니라 본사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동료들과의 ‘배려’를 회사경영의 최우선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성장의 동력은 ‘소통과 배려’다.

“OLP과정 수료 후 동기분들과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모임보다도 인간적 이면서도 끈끈한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동기들 오찬 모임을 거르지 않고 참석하고 있어, 이제는 서로 그리워하는 모임으로 연륜이 쌓여가고, 매년 가족들과의 나들이도 20기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동기 모임 자랑도 살짝 했다. 그러면서도 OLC 회장단이 그간 가꿔놓은 인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말한다.

회사 업무와 관련, 박 대표는 “에스디생명공학은 SNP, 히든랩, 엠솔릭 등의 화장품 브랜드와 브이해빗이라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Global Health and Beauty Compan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본사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해외 지사를 통한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계획도 구체적이다. “미국 중국 및 전세계 유통망의 온라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영업 및 마케팅 조직의 온라인 시장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년의 목표입니다”라며 “국내에서는 직접 온라인시장에 판매하는 매출액이 이미 오프라인 매장 판매금액을 넘어섰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한발 코로나의 피해가 크지만 극복 의지도 다졌다. “중국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도 온라인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한번 온라인 구매를 경험하는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회사는 학교다’라는 모토로 배워가며 직원들과 회사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OPINION LEADERS CLUB

프로필 김 국장은 중앙대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12월 경향신문에 공채로 입사했다. 기자로 줄곧 지내왔으며 법조데스크 오피니언팀장 스포츠부장 산업부장 사회 에디터를 지냈다. 다시 스포츠부 선임기자로 '현장'을 누비며 골프를 담당 해오다 광고국장을 맡게 됐다.

“축스럽습니다. 제가 별로 기여한 일도 없는데...” 언론부문 대상을 받은 김석 경향신문 스포츠부 선임기자는 겸손해했다. 말은 그렇지만 기여가 없지 않다. OLC의 기관지격인 OLP저널 편집위원을 5년 정도 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서울신문 편집국장이 된 안미현 원우가 OLC 편집장이 됐다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편집위원을 맡았는데, 제가 도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도움도 받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까지 주시니 감사하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친목도 쌓는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언론계 선배이기도 한 이세정 원우, 김광기 원우, 허원순 원우, 안미현 원우로부터 신문에 기사 쓰는 것과는 또 다른 OLC 원우들에 대한 접근을 배웠습니다. 회장단 단합대회에 동참하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일에 종사하는 원우님들의 새로운 생각과 접하면서 저의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기자는 OLC, 이후의 OLP 과정을 함께 하면서 교제 폭도 넓어졌고 ‘그동안 모르던 것들’도 더 많이 알게 됐다며 뿌듯해했다. 졸업여행 같은 행사도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편집국 사회 에디터에서 물러나 골프 담



OLC 언론대상 수상자 김석
OLP 12기
경향신문 광고국 국장

당 기사를 하다 2020년 3월부터 광고국장을 맡았다. “머리 아픈 보직”에서 벗어나 25년 넘는 기자 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더니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올해도 좋은 기사 많이 쓰고, OLC에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며 OLC 대상 값을 다짐했는데 이 다짐의 이행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OLC 회원 모두에게 부담되는 일에 그도 걱정이다. “원우 모집이 힘들다는 얘기가 가장 마음 아픕니다. 오가면서 서강대 OLC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한국

최고의 최고경영자 과정 모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국장의 이 말에 어려움과 희망, 기대가 함께 들어 있다. 언론계 중견으로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OLP와 회장단에 대한 평가가 후하다. “회장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찬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것도 좋았고요. 서강대에서 오찬 강연을 마련한 것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산행 모임, 오페라 모임 등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돼서 많은 원우들이 우애도 쌓고 마음의 양식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OLP



이번 대회는 최대한 많은 원우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도했다. 먼저 행사 장소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하고 있는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으로 정했고, 금요일이던 행사 날짜도 토요일로 바꿨다. 결과는 대성공. 100명에 거의 육박하는 96명이 참가해 24개 조로 나뉘어 플레이했다.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 사상 최대 인원이다.



글. 김석
OLP 12기
경향신문 광고국장

2019 연합골프대회 참가기

사상 최대의 잔치였다. 세상 모든 것들이 서강 OLC를 도와주는 듯했다.

2019년 10월 26일 '제18회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가 열렸다.

서울의 최고기온이 섭씨 22도까지 올라갔던 전날보다는 기온이 약간 떨어졌지만 날씨는 따뜻하기만 했다. 이날도 수도권 밖의 낮 최고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갔다. 구름은 하늘을 장식하듯 살짝만 걸쳤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계절은 겨울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이날 날씨는 여름을 갓 지난 듯했다. 5년째 참가한 연합골프대회 가운데 가장 좋은 날씨 속에 행사가 열린 것 같다.

회장단은 이번 대회에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도했다. 최대한 많은 원우가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았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 이번 행사 장소였다. 광화문에서 약 40km, 분당구청에서는 약 12km 거리다. 대부분의 원우가 집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골프장이다.

2018년까지 금요일이던 행사 날짜도 토요일로 바꿨다. 참가하고 싶어도 직장일로 참가하지 못했던 원우들을 위해서였다.



결과는 대성공. 100명에 거의 육박하는 96명이 참가해 24개 조로 나뉘어 플레이했다. '서강 OLC 연합골프대회' 사상 최대 인원이다. 토요일에 행사 날짜를 잡은 덕에 오기로 해놓고 오지 못한 원우도 없었다.

사상 최대의 행사 뒤에는 당시 수석 부회장이던 성대영 회장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은 수도권권의 명문 골프장이다. 삼성에 인수된 뒤 코스 관리와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좋아지면서 인기가 더 치솟았다. 이런 골프장의 주말 티오프 시간을 24개나 확보하는 일이 손쉽게 이뤄질 수 없다. 성 회장은 이미 봄부터 골프장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가을에는 꼭 도와줘야 한다"고 부탁한 끝에 일을 성공시켰다.

첫 티오프 시간은 낮 12시 20분. 첫 조 티오프에 앞서 그동안 없던 행사가 처음 실시됐다. 시타 행사였다.

어진 당시 회장, 성대영 회장, 권영욱 7기 전임회장이 시타를 했다. 세 회장이 드라이버로 친 공들은 원색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날았다.

나는 이날 동 아웃 코스에서 출발했다. 12기 동기들이 어진 회장, 박연대 당시 사무총장, 이진희 원우가 같은 조였다. 어진 회장은 첫 홀부터 최장타를 기록했다. "롱기스트 하셨네요"라는 칭찬에 어진 회장은 "시타도 내가 가장 멀리 날아갔다"며 웃었다.

이진희 원우도 멋진 샷을 선보였다. 9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홀 옆 10cm에 붙인 뒤 탭인 버디를 기록했다.

나는 언제나처럼 이날도 우리 조의 애물단지였다. 드라이버샷이면 드라이버샷, 아이언샷이면 아이언샷 할 것 없이 원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골프 담당 기자가 된 뒤 참가한 첫 대회였는데... 몇 달 뒤 광고국장으로서 보직이 바뀐 탓에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눈앞에서 보면서 실력을 늘릴 기회도 갖기 어려워졌으니 더





욱 안타깝다.

좋은 날씨에 좋은 골프장에서 플레이 한 덕인지, 이날도 땅만 파고 다닌 나와는 달리 곳곳에서 버디가 쏟아졌다.

정덕상 원우는 통풍 때문에 발목이 아픈데도 이날 1언더파를 쳤다. 작심하고 대회에 나섰나보다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라운드 시작 전부터 막걸리를 마셔 만취 상태였지만 신들린 듯 버디와 파를 잡아냈다고 한다. 메달리스트도 정덕상 원우에게 돌아갔지만, 혼자만은 아니었다. 안영석 원우도 나란히 1언더파를 쳐서 함께 상을 받았다. 언더파가 하루에 두 명 나온 것도 대회 사상 처음이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71.4타를 기록한 박연대 사무총장이 우승, 71.8타의 김재중 원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롱기스트는 244m를 날린 노경래 원우가 상을 받았다. 245m를 친 원

우도 있었지만 다른 상을 수상했다. 니어리스트는 홀 옆 3m에 티샷을 보낸 권구찬 원우였다. 베스트 스코어 조는 김광기·안영석·유병인·이용훈 원우 조였다.

기록이 좋아 상을 받은 원우들도 있지만 정반대 원우들도 있다. '무한도전' 상을 받은 원우들이다. 정혜림·최수호·심정근 원우는 남들보다 많은 타수를 기록한 덕에 이 상을 받았다.

김재중·이진희·조용준·오원정 원우는 나란히 버디 2개씩을 잡아내 최다 버디상을 받았다. 버디 4개를 기록한 원우도 있었지만 다른 상을 받았다. 이용용 원우는 파를 14개 기록해 다파상을 받았고, 김종술 원우는 무려 15개의 보기로 다보기상을 받았다. 김희엽 원우는 9개의 더블 보기로 '낙동강 오리알' 상을 받았다.





조별 메달리스트에는 이진희·석철원·홍권희·송문성·배성윤·구자갑·곽동린·김용철·최승욱·이윤환·오원정·정찬모·안경호·이상철·김형규·김병수·오태성·박성훈·김후진·이용훈·조정 원우가 올랐다.

이날 80타를 기록한 권영욱 전임 회장은 경로우대상을 받았다. 하경민·이미경·정혜림·김수경·나윤정 원우는 '레이디퍼스트' 상, 라운드 동안 사무실을 지킨 김홍균 교수와 이지혜씨는 '나홀로집에' 상을 받았다.

원우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협찬한 상품도 최대 규모였다. 홍성열 명예회장은 마리오아울렛 상품권을 준비했고, 장재진 명예회장은 오리엔트 갤러리 손목시계 3개, 구자관 명예회장은 라이눅스 콤보 전기그릴 10개, 어진 회장은 메디페르 앰플 3종 세트 30개를 준비했다. 이덕수 14기 회장은

영자신문 6개월 구독권 20개, 배성윤 19기 회장은 신세계상품권 10개, 문승동 4기 전임 회장은 고급 와인디캔더 2개를 내왔다. 성대영 회장은 프리미엄 건강검진권을 제공했다.

선물이 많아 행운상 추첨도 7번에 나눠서 했다. 마지막에 추첨한 프리미엄 건강검진권은 석철원 원우에게 돌아갔다.

추첨에서 행운상을 받지 못한 원우들도 한아름씩 선물을 들고 집에 돌아갔다. 손영득 16기 전임 회장이 어묵 선물 세트 89개를 준비하고, 백경수 원우가 라쉬반 속옷 세트 100개를 협찬한 덕이다. 사무국에서도 만두와 볶음밥으로 이뤄진 만복 세트를 기념품으로 준비했다. 상을 받은 원우든 못 받은 원우든 이날은 선물 부자였다.

2020년 열리는 '서강대 OLC 연합골프대회' 참가인원은 아마 세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벌써 기대가 된다. OLP



“등산? 어디가 좋은가?” “인파 없는 곳, OLC회원들과 함께!” 7명은 신선이 됐다

2019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중원산행...



골프를 끊은 지 5~6년쯤 된 듯하다. 몰려다니며 더러 키득거리며 골프장 가는 재미는 거의 잊어버렸지만, 그새 이곳저곳 등산에 재미를 좀 붙였다. ‘트레킹’이라면 약간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걷는 재미도 나쁘지 않다. 40대 중 후반부터 등산을 다녔으니 그럭저럭 다닌 코스도 좀 된다. 물론 아직도 못 가본 곳, 미뤄둔 코스는 많기만 하다. 작은 변화 하나는 전에는 등산 가면서 그 편에 절집 찾아 봤는데, 근래 들어 절 먼저 정하고 산을 찾아가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등산이라고 좀 다니다보니 “어디가 좋은가”라는 질문을 더러 듣게 된다. 어느 산, 어떤 코스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나 이것도 의미가 있다. 계절별로 기상별로 산이 주는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 일상적 트레킹도, 그냥 걷기도 ‘철학적 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나’ 일지 모른다. 여행이 그렇다지 않은가. ‘어디를 다녀왔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었다’가 더 중요하다고.

어떻든 “어떤 산이 좋은가”라며 물으면 내 답은 정해져 있다. “사람 적은 곳”이다. 탐방객, 등산인파가 적은 곳이라면 웬만한 코스도 다 좋다. 자연 속으로 걷는 맛이 있다. 오가는 사람들, 부딪치는 것과 부대낌 자체로 주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다. 조용히 혼자, 혹은 뜻 맞는 이들과 호젓하게 담소 나누며 아무런 방해 없이 걷는 산길! 최고 아닌가.

2019년 10월 26일 OLC 산악회의 중원산 걷기가 바로 그런 산행이었다. 서울서 멀지도 않은 중원산은 내가 감춰온 보물 같은 산이다. 봉우리들로 이어지는 바로 옆의 용문산은 그 품안의 용문사와 고목 은행나무, 국민관광 등으로 유명하지만 중원산은 탐방객이 좀 적다. 어느 여름날 중원산의 중원계곡을 보고 완전히 반한 적이 있다. 때마침 비온 뒤이기도 했지만, 작은 폭포까지 있는 중원계곡의 시원한 물은 걸작이다.

늘 그렇듯이 중원산행도 윤석구 OLC산악대장의 선도로 시작됐



글. 허원순
OLP 12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다. 동반자는 '럭키 7, 홍성완 최영조 장영주 박정일 원우님 등 우리 회원 6명과 외부에서 합류한 멋진 여성 한 분이였다. 말 그대로 '소수정예'였다. 영어로는 'A few good men'인가? 정상 도일봉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당당히 걸어난 윤 대장님의 투혼은 놀랄만했다. 그 전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입은 부상이 다 낫지 않아 여전히 절뚝이면서도 가파른 정상까지 혼자 당당히 걸은 윤 원우님을 보면 역시 OLC등산회 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날도 이런저런 '노 쇼로 인원이 많이 줄어 행사 진행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윤 대장님은 줄어든 숫자에 맞춰 관광버스 예약을 취소하고 카니발을 조달, 오가는 길 운전까지 직접 했다.

사실 중원산은 당일 갑자기 정해진 코스였다. 원래는 대둔산으로 예정됐었다. 그런데 인원은 줄어들고, 강원도 쪽은 마지막 가을행락객으로 막힐 것으로 예상돼 중원산을 제안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7명 전원 생각일치로 코스는 멋졌다. 절정에 달한 단풍은 중원계곡의 물까지 완전히 노랗게 빨갱게 물들었다.

하늘은 맑았다. 정상 도일봉에서의 약간 늦은 오찬은 천상의 식사였다. 그레봤자 김밥, 과일, 과자, 막걸리 몇 통이었지만 우리 7명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정상 도일봉을 최고, 최상의 자리로 만들었다. 박 원우님이 준비해온 양주 한잔은 화룡점정이었고, 내가 준비한 커피도 좋았다.

그날 마침 OLC 연합 골프대회가 있었다. 멋진 날씨만큼이나 골프대회도 좋았을 것이다.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7명의 OLC 동반팀은 절정의 가을 속에서 중원산 신선이 됐다. 아무도 없으니 산꼭대기에서의 오찬도 다른 때보다 길었다. 누군가 "이게 몇 시야?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



는 길을 즐기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대로 중원산에서 우화등선(羽化登仙)했을 지도 모른다.

오는 길에 카니발에서 가볍게(?) 즐기기, 언제나 즐겁다. 적당한 피로에 두어 잔 술까지, 몰아쉬는 동료들 숨소리가 곱게만 들렸다. 역시 윤 대장님이 운전해주신 덕이다. 적덕지가(積德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나니! 윤 대장님 그 복덕 누리시길!

양평 땅 중원산은 서울에서 가면 멀지 않다. 그렇다고 등산 초심자가 그렇게 갈 기회가 많다는 보장도 없다. OLC 산악회와 함께 하다 보니 가을 같은 가을, 진짜 등산도 맞보는 호사를 누리게 된다. 누구의 덕도 아니다. 참가자 회원 6명이 서로 도우는 공덕이다.

이날 탐방은 OLC 산악회 행사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일년 내내 매달 월례 행사로 산행은 이어진다. 2019년에만 해도 1월엔 평창 영월에 걸친 백덕산에 가서 윤 대장님이 끓인 라면을 여럿이 나눠 먹었다. '오병이어' 격으로 나눠 먹은 라면이었다. 꼭 많이 먹어야 맛인가. 2월엔 과천 쪽 청계산, 3월엔 통영 앞바다 사랑도 '지리망산', 5월엔 단양 소백산의 철쭉축제 산행이 있었다. 6월에는 삼척 육백산과 무건리 이끼계곡, 7월에는 일부 열열과는 포항까지 가서 내연산을 다녀왔다. 9월에는 울산 영남 알프스의 역세산행을 계획했으나 날씨 때문에 강원도 민둥산 역세보기로 방향을 바꿨다.

산행만이 아니다. 중간에 봄 행사로 4월에 안동으로 가서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를 방문했다. 가을 탐방행사로 11월 익산행도 OLC 산악회 행사의 연장이었다. 미륵사지와 오층석탑, 쌍릉도 좋았다.

산으로, 들로, 강가로 걷기를 권해드린다. 사람 없는 곳이 좋되, OLC회원들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다. OLP



두려움은 결국 현실로... 오페라 리골레토



글 정지철
OLC 씨네오페라 강사
(사)김자경오페라단 예술총감독 /
NEW 오페라 페스티벌 제작총감독



“난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네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이 독사 같은 종놈!! 애비된 자의 슬픔을 비웃는 네놈은 내가 겪은 고통을 천 배로 만 배로 겪게 될 것이다.”

리블레에게 생발리 백작의 이 저주는 마치 천둥처럼 들렸다. 그리고는 사라지지 않고 귓가를 맴돈다. 트리블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원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은 레 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웃는 남자 등이 꼽힌다. 그의 소설 속에 주인공들은 어느 소설의 주인공들과는 많이 다르다. 낭만적인 기사도 아니고 꿈을 가지고 파리에 상경한 젊은이도 아닌 꼽추, 도둑, 기괴한 얼굴의 소유자 등. 한결같이 비참한 상황과 신분을 가진 그들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 위고는 그렇게 밑바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을 지녔다. 장발장, 콰지모도, 그웬플린 등 빼돌려지고 왜곡된 그들의 모습과 신분은 그들을 평생 괴롭히지만, 그들에게 깃들여져 있는 위대한 휴머니즘은 그 말뜻조차 가물가물해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감동으로 눈물짓게 한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소설 속에 비슷한 처지와 신분의 한 남자가 나온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위고의 다른 소설의 주인공들과 조금 다르다. 그의 직업은 어릿광대

이름은 트리블레. 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왕의 기분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이다. 남의 기분을 풀어주는 데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그가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의 험담을 해 주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을 그 사람 면전에 대신해주는 것이리라. 꼽추면서 절름발이인 트리블레는 일그러진 얼굴로 만나는 사람마다 독설을 내뿜고 비아냥거리는 인물이었다. 우아한 궁정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그의 신랄한 헛바닥은 많은 사람을 욕하고 비아냥거리지만 듣는 이들은 쿨하게 웃는 척을 해야만 했다. 그저 농담일 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들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남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기억만큼은 지우고 싶어 할 정도로 싫어한다. 그렇게 왕 이하 궁 안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고 그들에게 트리블레는 그저 뒤틀리고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놓고 자기 전에 꼭 읽었다는 베르디는 위대한 원작들을 그의 오페라로 드라마틱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었고 위고의 이 희곡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창작력을 불태웠다. 몇 번이나 오스트리아 검열 때문에 거절당한 베르디는 정말로 갖은 우여곡절 끝에 이 “저주”라는 연극에 제목과 배경, 등장인물까지 모두 바꾸고 나서야 공연 허락을 받아내게 된다. 제목은 어릿광대 이름인 리콜레토로 배경은 존재하지도 않은 만토바공작이 다스리는 영지로 딸인 블랑쉬는 질다로 바뀌어 공연되었다.



프랑스 절대 왕정 시대를 구가했던 국왕 프랑스와 1세. 왕권이 강하고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며 잘 보이고 싶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왕은 종종 사람들이 그의 지위가 아닌 본질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착각을 잘하기로는 지구상 포유류 중에 남자 인간을 따라올 것이 없는데 이게 인간 중에서도 “왕”정도 되면 수습이 어렵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그래 이 정도면 아직 괜찮아하는 남자들 중에서도 “왕”일진 데 어련할까. 그래서 이분은 세상의 모든 여자가 자신만을 바라보며 동경한다고 생각한다. 내놓고 그러는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도도하고 안 그래 보이는 여자들도 사실은 왕을 좋아하면서 그녀들의 남편들 때문에, 아버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그런 척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시다. 하기는 남편이나 아버지들 이래 봐야 왕의 수하들이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 인간들인데 그럴 만도 하다. 결국, 궁 안이나 밖이나 인물이 반반한 여인들을 발견하면 왕은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목 붙잡고 침실로 들어가신다. 현재도 쥐꼬리 같은 권력이라도 생기면 몇몇 남자들은 이걸 가지고 착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몇 년 지나서 인터넷에 오르내리게 된다. 먼저 걸린 남자들에게 ‘Me too’ 이러면서 말이지.

하지만 그 시대는 여인들의 힘이 미약했다. 그녀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남편, 아버 그리고 그녀들의 애인들이 나서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러지 못했다. 왜냐구? 상대는 왕이라니까.

생발리 백작에게 딸이 있는데 무척 아름다웠나 보다. 프랑스와 1세의 입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성은을 바라마지 않는 여인이고 그녀의 아버지는 성가신 방해꾼에 불과했다. 결국, 왕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생발리 백작에게 반역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다. 멸족의 벌은 면해 줄 테니 대신 딸을 인질로 데리고 있겠다는 뻘한 속을 내보이면서 말이다.

원래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뒤통수치고 빼앗아 오는 일이 다반사지만 열 개를 가진 인간에게 한 개를 빼앗으면 보통의 인간들은 반항보다는 나머지 아홉 개를 지키기 위해 더 몸을 사리고 전전긍긍한다. 그런데 가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한 개를 가진 사람에게서 그들의 전부인 한 개를 빼앗아 버리는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왕의 생각으로는 생발리 백작에게 있어 딸은 그저 여러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딸은 그의 전부였고 백작은 짓밟힌 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궁으로 와 왕에게 따지고 든다. 바로 이때 어릿광대 트리블레가 나선다. 이럴 때 나서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 일은 해야겠지. 트리블레는 생발리 백작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가 당신을 용서해 줬건만 고마운 줄은 모르고 당신은 그 잘난 딸의 명예만을 떠들어 대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트리블레는 백작의 딸을 희롱한다. 귀족들과 왕은 마음껏 웃어 짓히고 백작은 진노하며 왕과 어릿광대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난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네놈(국왕)을 가만히 두

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트리블레), 이 독사 같은 종놈!!
에비된 자의 슬픔을 비웃는 네놈은 내가 겪은 고통을 천 배로 만 배로 겪게 될 것이다.”

백작은 병사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모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연회를 즐기지만, 광대 트리블레는 낯 나간 사람처럼 백작이 사라진 문을 보고 서 있다. 수많은 사람을 조롱한 대가로 그들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들어왔지만 트리블레에게 생발리 백작의 이 저주는 마치 천둥처럼 들렸다. 그리고는 사라지지 않고 꺾가를 맴돈다. 트리블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원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기억이 있다.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은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후라는. 동물은 눈앞에 직면한 상황에만 두려움을 느끼지만, 인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사실 거의 소용이 없기는 하지만 대개 이 두려움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으로 우리를 조정하려 한다.

2천 년 전에 예수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움아매며 두려움으로 그들을 조정하려 한 율법 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인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니라 라고 수없이 알려주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들은 두려움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트리블레의 그 일그러진 이마에 생발리 백작의 저주가 떨어질 때 그는 한 여인을 떠올린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린 딸 블랑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노인네가 퍼부은 저주가 그의 정수리 근처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트리블레에게 어린 딸은 이 저주받은 몸으로 세상을 증오하면서도 살아야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였다. 트리블레는 세상을 증오한다. (이점이 바로 위고의 다른 소설 속의 주인공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른 소설 속에서 그들은 변화하지만 트리블레는 이 감정을 고수한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겪은 모든 불행은, 심지어 이 몰골로 태어난 것마저도 모두가 더러운 세상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이런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족속들을 저주하고 증오한다. 왕족들, 귀족들, 잘난 족속들. 그들의 옆에 바짝 붙어서 그들을 조소하고 비아냥거림으로 이 늙은 어릿광대는 통쾌함을 느낀다. 귀족 놈들이 자

신의 사지를 자르고 불에 태운다고 할지라도 그는 죽으면서 그들을 비웃을 수 있다. 하지만 딸은... 절대 안 된다. 블랑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 트리블레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길가에 있는 살인청부업자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대가를 치르는 비용까지 물어본 게 된다.

“귀족 한 명을 죽이는 데 얼마를 내야 하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은 그렇게 그 한 아버지의 상상에서 시작하고 기어코 현실이 되고야 만다. 어린 딸 블랑쉬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일 뿐.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젊은이, 유달리 얼굴이 희고 귀티 나게 생긴 이 젊은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블랑쉬는 자신을 경의에 찬 표정으로 뚫어지게 보는 그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게 된다. 순진한 블랑쉬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을 나쁘게 할 리 없다는 생각에 그만 소녀의 공상 속으로 빠져든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오빠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긴 한가보다. 그 청년이 자신이 집에 돌아오는 동안 멀리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블랑쉬는 알고 있었지만,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당연히 아빠는 화만 낼 것이고 어쩌면 그 청년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블랑쉬로 하여금 난생처음으로 아빠에게 말 못 할 일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청년은 불행히도 궁정에 여인들에게 싫증이 나서 평복을 하고 돌아다니던 프랑스와 1세였고 그는 블랑쉬를 보고 한눈에 반해 트리블레가 없는 틈을 타 집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가난한 고학생이라고 속이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프랑스와 1세는 여느 때처럼 순진하고 예쁜 평민 처녀를 하나 농간한 것 뿐이었지만 어린 블랑쉬에게는 꿈꿔왔던 천둥처럼 두근거리는 사랑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행복했지만, 곧 끔찍한 순간을 겪게 된다. 결국, 블랑쉬는 프랑스와 1세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성안에서 왕에게 겁탈을 당하게 된다. 그때 트리블레는 왕의 방에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딸이 있음을 알게 되고 짐승처럼 소리치며 왕의 침소로 돌진한다. 귀족들에 의해 저지되자 눈이 뒤집힌 트리블레는 이렇게 외친다.

“내 딸을 내놓아라. 이 미친 귀족 놈들아. 얼마를 받고 내 딸을 팔아넘겼나? 이 후례자식들아. 네놈들의 아버지는 네놈들의 어미와 붙어먹은 네놈들 집에 늙은 종들이다!!”

빅토르 위고의 연극 “왕은 즐긴다”의 초연 때 이를 직접



본 왕(루이 필립)은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해서 이 연극은 50년간 프랑스에서 공연금지처분을 받는다. 1853년 40세의 장년에 접어든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주제베 베르디는 이제 선배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 등 벨칸토의 거장 선배들을 너무나 존경하지만, 언제까지 그들의 그늘 아래 있을 수는 없었다. 베르디는 그들의 오페라를 능가할 만한 오페라를 가지고 싶었다. 그는 원래 오페라가 오페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머리맡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놓고 자기 전에 꼭 읽었다는 베르디는 위대한 원작들을 그의 오페라로 드라마틱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었고 위고의 이 희곡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창작력을 불태웠다. 몇 번이나 오스트리아 검열 때문에 거절당한 베르디는 정말로 갖은 우여곡절 끝에 이 “저주”라는 연극에 제목과 배경, 등장인물까지 모두 바꾸고 나서야 공연 허락을 받아내게 된다. 제목은 어릿광대 이름인 리콜레토로 배경은 존재하지도 않은 만토바공작이 다스리는 영지로 딸인 블랑쉬는 질다로 바뀌어 공연되었다. 이 오페라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는 당신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도 오페라 리콜레토는 세계 어느 곳엔가 공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질다(블랑쉬)가 공작의 방에서 반라의 모습으로 나온 순간 리콜레토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저 두려워하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버려 어쩔 줄 몰라 분노하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난생처음 당한 일로 무섭고 수치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질다에게 리콜레토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가래 낀 목소리로 외친다.

“처음부터 말해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왜 그녀에게 그 순간 그걸 묻는가? 너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을까? 아버지에게 매달려 한바탕 울고만 싶던 질다는 떨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교회에서요.”

오페라의 마지막 막 결국 질다는 아버지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고 공작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공작 대신 삶을 포기한다. 그녀는 그렇게 공작을 죽이기 위해 아버지가 마련한 뒷에 스스로 들어간다. 자신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처럼 버린 남자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과연 정말 질다의 마음이었을까? 리콜레토가 오직 복수만을 되뇌며 골몰하고 있을 때 딸 질다는 비참하고 무서웠다. 아빠가 무서웠고 남자가 무서웠고 그래서 세상이 무서웠다. 17살 소녀에게 이 세상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벽차고 무거웠으리라. 난생처음 겪은 무서운 일이 세상이란 곳에서는 다 반사로 벌어지고 자신이 그냥 그중 하나로 찢기고 버려졌다 는 사실이 놀랍고 무서웠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중 전원교향악에 나오는 제를 트뤼도는 장님 소녀이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랑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악으로 여겼다. 자신을 길러준 목사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았고 그저 사랑했다. 그러나 그녀가 새로운 의술로 눈을 뜨게 된 순간 그녀에게 다가온 세상은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빛을 선물함과 동시에 암흑을 선물했다. 오만가지 굴레와 죄악이 그녀의 몸을 억죄고 숨 막히게 했다. 그녀는 눈으로 보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랑을 죄악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세상을 버려 버린다.

공연장에는 관객이 없어지고 음악인들은 텅 빈 무대를 향해 공연한다. 그런데 뮤지컬은 여전히 만석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런 생각이 든다. 코로나 19는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만 치명적이듯이 유독 우리 클래식에도 치명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한 장르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기도 하다. 이 고민의 결과는 2020년 9월 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있을 김자경오페라단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역지로 눈이 떠졌던 제를 트뤼도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삶이라는 무게가 버거워진 어린 소녀 질다는 그렇게 세상을 버려 버린 것이다. 우리는 질다가 세상을 등진 이유를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살인 청부업자에게 공작의 사체라고 받은 자루 속에는 실제로 죽어가는 질다가 있었고 자신의 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리골레토는 그 자루를 발로 차면서 말한다.

“세상아, 봐라! 여기 위대한 만토바의 공작이 있고 그는 이 어릿광대 리골레토의 발밑에서 뒹굴고 있다. 내가 늘 꿈꿔왔던 순간이 오늘이구나. 난 복수에 성공했다!”

과연 리골레토는 딸의 복수를 한 것일까, 자신의 복수를 한 것일까...

그가 자루 속에서 딸의 모습을 발견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멀리서 노래하는 공작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리골레토는 그때 깨달았을까? 비참한 이들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란 것을. 그리고 리골레토는 이렇게 외치면서 쓰러진다.

“아, 저주가. 그놈의 저주가...”

개인적으로 위고의 원작의 마지막이 훨씬 더 솔직하다고 느껴진다. 트리블레는 블랑쉬의 주검을 끌어안고 이렇게 외친다.

“내 딸을... 내 딸을 내가 죽여버렸구나.”

코로나 19라는 그 이름부터 뭔가 이전의 바이러스를 다 씹어 먹을 것 같은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바뀌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대처와 관리의 모범국이라 치켜세워지고 있다. 워낙 국뽕이랄 수 있는 기사와 자화자찬이 난무하니 난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국난에 유독 강한지 생각을 해봤다. 어찌 보면 간단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에 두려움이라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잘 살던 기간은 약 30년 남짓하다. (물론 그마저도 북쪽이 평균을 많이 깎아 먹긴 하지만) 사실 베트남, 라오스보다 잘 살아야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이 나라지만 미소 냉전 속에서 지리적 이점 제대로 챙기고 근면함으로 진짜 인생 역전 제대로 하기는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거의 기억 못 하고 마치 몇만 년 잘살아왔던 민족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도 늘 얻어맞던 민족이니만큼 그 유전자에 아로새겨진 두려움은 희대의 금 모으기 사기극 같은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정부가 마스크를 끼란 말 안 해도 마스크 사 모으고 마스크 안 한 사람들을 마치 바이러스 숙주 보듯이 흘겨보는 그런 자발적 통제 모습 보여준다.

아울러 공연장에는 관객이 없어지고 음악인들은 텅 빈 무대를 향해 공연한다. 공연 협찬을 얻자고, 공연에 외주시키고, 말을 꺼내기도 죄송스럽고 민망하다. 이 시국에 모이랴니. 우리야 클래식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지만, 일반 관객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뮤지컬은 여전히 만석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런 생각이 든다. 코로나 19는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만 치명적이듯이 유독 우리 클래식에도 치명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한 장르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기도 하다. 이 고민의 결과는 2020년 9월 1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있을 김자경오페라단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OLP

BEYOND KOREA, TOWARDS THE WORLD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OPINION LEADERS PROGRAM

OLP가 보는 세상

70여년전 백범 예언, 소름끼치는 적중
봉준호 김연아 BTS 손흥민 등
월드스타 줄줄이
박상주 OLP 9기

취업률 3위 오른 서강대.
그 배경엔 '서강대 취업지원팀'이 있었다
공태윤 OLP 20기

사교육 개혁을 위한 좀 엉뚱한 제안 :
체육수업에 답이 있다
홍제표 OLP 21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가지 포인트
송의달 OLP 12기

'위대한 멈춤'이 지금 그리운 이유
김동원 OLP 16기

자칫 잊기 쉬운
경제상식에 대한 단상(斷想)
김상민 OLP 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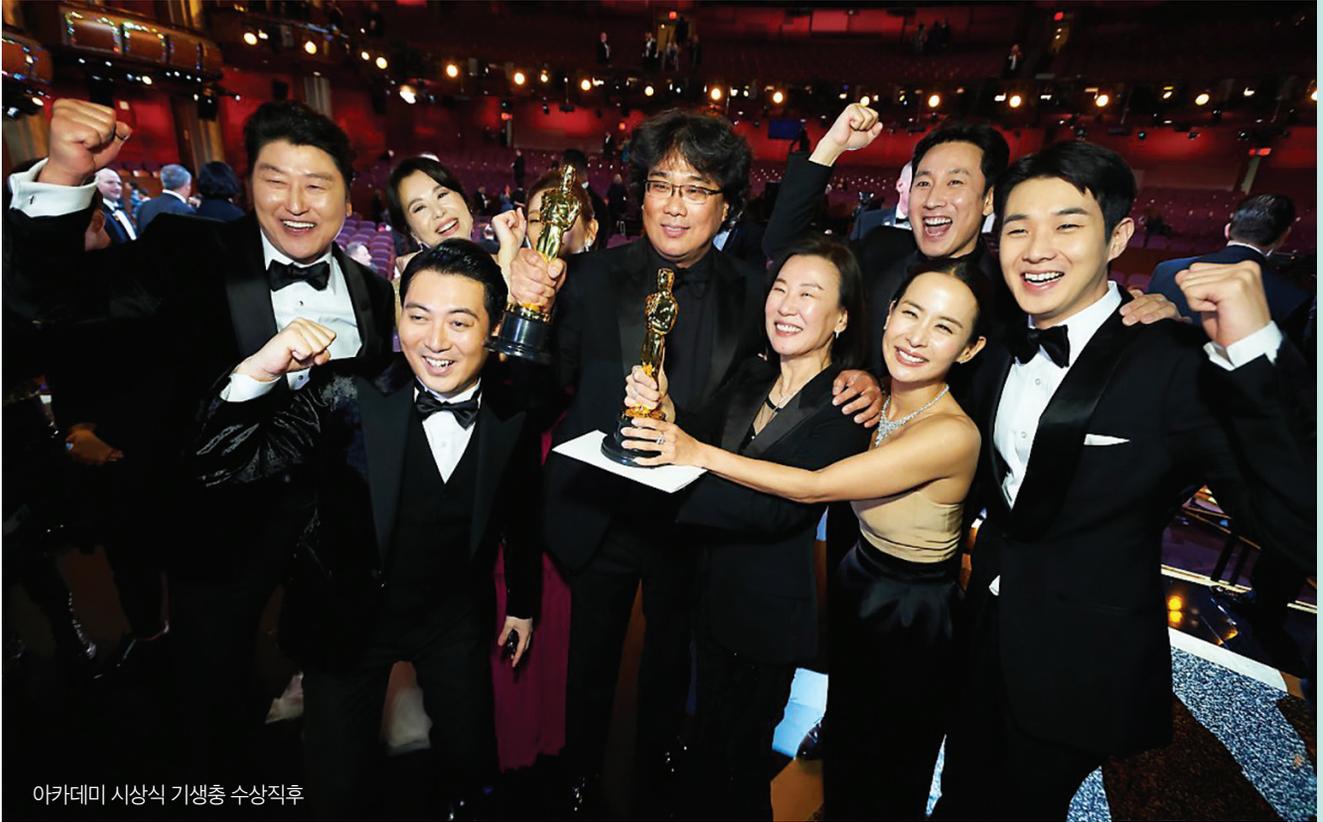
노자 도덕경에서 만나는
"리더와 리더십"
문규선 OLP 13기



“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세계무대에 등장할 날이
우리민족이 주연배우로
”

70여년전 백범 예언, 소름끼치는 적중 봉준호 김연아 BTS 손흥민 등 월드스타 줄줄이

글. 박상주 OLP 9기



아카데미 시상식 기생충 수상직후

한류스타들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적 재능을 알아본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백범은 “(우리나라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저 '한류 열풍'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한류의 침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각본상·감독상·국제 장편 영화상 등 4관왕을 거머쥐었다. 한국의 영화사뿐 아니라 미국의 영화사를 새로 썼다.

어디 영화뿐이라.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파이널을 모두 제패하는 피겨 스케이팅 그랜드 슬램을 달성기록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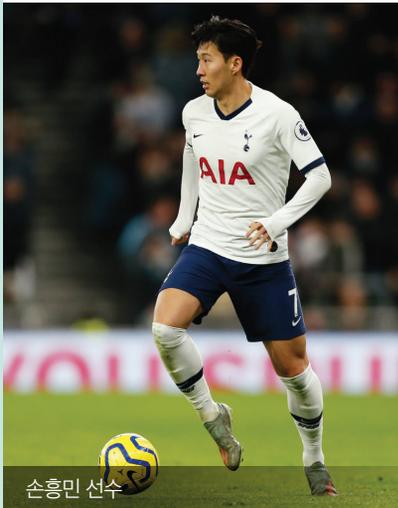
김연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금메달



BTS



LOL 챔피언 페이커(이상혁)



손흥민 선수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지난해 4월 발매한 ‘MAP OF THE SOUL : PERSONA’로 단일 앨범 최다 판매량을 경신하면서 세계 음반 시장 최강자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게임계의 호날두 또는 메시라고 불리는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는 2013년 서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우승을 한 이후 줄곧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은 런던 풋볼 어워드 ‘올해의 선수’ 2연패를 넘볼 정도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손흥민은 2020년 2월 16일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151경기에 나와 51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2019년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한 류현진도 세계무대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빛내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상위 랭킹을 휩쓰는 이들도, 세계양궁대회가 열릴 때마다 시상대에 올라가는 이들도 한국인이다.

이쯤 되면 한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뭔가 특별한 DNA를 타고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도 할 만하다.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허황하다고만 생각했던 한국 상고사 ‘환단고기’의 내용이 새삼 솔깃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고백한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시조는 만 년 전 파미르 고원에서 문명을 일으키기 시작한 동이족이다. 동이족은 이후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대로 빛나는 문명을 일구었다. 동이족은 이 집트문명이나 바빌론 문명보다 2000년 이상 앞선 세계 태초의 문명을 일으켰다고 환단고기는 주장하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는 '동쪽에 동이족이 있는데 동이족은 활을 잘 쏜다. 말을 잘 타며, 덩치도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환단고기나 사기 이외에도 우리 조상들이 뛰어난 고대문명을 일으켰으며, 육체적으로도 뛰어났음을 전하는 고대 문헌들이 여럿 있다.

설혹 상고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만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재능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영국의 BBC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한국 관객들이 전에는 몰랐던 자기 나라의 상당한 문화적 재능을 이제는 알게 된 것"을 꼽았다.

한류스타들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적 재능을 알아본 인물이 있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백범은 "(우리나라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백범은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 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배우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라고 내다보셨다. 70여 년 전 백범의 예측은 놀랄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 실제로 봉준호나 BTS, 손흥민, 조성진 등 한류스타들이 주연배우로 세계무대를 주름잡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인들은 K팝이나 드라마 등 한류의 덕으로 현지인들로부터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 세계인들도 한류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제2, 제3의 봉준호와 김연아, 손흥민이 줄줄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OLP



조성진 피아니스트



류현진 선수



美 빌보드 200 10주 연속으로 차트인한 NCT 127



해외 차트 연일 신기록을 세운 블랙핑크



취업률 3위 오른 서강대. 그 배경엔 '서강대 취업지원팀'이 있었다



올해 1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 안승미 서강대 취업지원팀 과장을 만났습니다. 안 과장은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입사에 대한 팁과 달라지는 공기업 입사전략을 소개해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서강대 취업지원팀 두 명의 과장은 채용박람회가 열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행사를 각자 나눠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기자인 제게도 '올해 달라지는 공기업 취업'내용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각 대학들의 취업센터는 본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취업지원팀은 서울·수도권 대학들 가운데 독보적입니다. 타 대학들이 벤치마킹할 정도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쟁력 있는 취업지원팀의 인력 구성 때문입니다. 취업지원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은경 팀장은 취업팀 경력 5년 차의 실력자입니다. 이전 유희석 팀장도 취업



글. 공태운
OLP 20기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산업부 차장

지원팀에서만 8년간 머물며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 배턴을 송 팀장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교육공학 석사 출신의 최성욱 과장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취업전문가입니다. 최 과장은 2018년 진로교육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업에 관해선 어떠한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갓성욱'이란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강대성 과장은 서울시 7급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최종합격 등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두 번이나 합격한 공무원 시험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빠른 합격의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승미 과장은 이 대학 프랑스어 학과 출신으로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과 해외 취업 등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대모입니다. 또한, 남편이 헬스케어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간혹 제약회사 입사 준비생을 위한 멘토링도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서진영 직원은 이랜드에서 상품기획업무를 경험한 이공계 멘토입니다.

이런 쟁쟁한 경력을 바탕으로 서강대 취업지원팀은 지난해 4월 카카오톡 메신저 '서강 취업 SOS'를 오픈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필기시험, 면접 등 입사 과정에서 궁금한 질문을 올리면 취업지원팀 직원들이 톡톡이 답을 올립니다. "현대카드 면접 복장이 편안한 복장이라고 안내해 줬는데 정말 정장을



안 입어도 될까요?'란 질문에 최성욱 과장은 "실제 합격자 선배 가운데는 발목이 보이는 바지에 캐주얼 티와 재킷을 입고도 합격했다."는 답변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SOS에 이어 취업한 선배들이 직접 온라인 멘토링을 해 주는 '서강 MOS'도 오픈했습니다. 취업팀의 부족한 부분을 현직자가 채워주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죠.

최근에는 채팅 기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서강 취리텔'도 운영 중입니다. 올해 1월까지 모두 51회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 1월부터 시작되는 주요기업 신입사원 연수식을 앞두고 '신입사원 조직 매너 꿀팁'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취업팀 세 명은 이 영상을 위해 각 기업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물론 서강대 출신의 현직자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선 '출근 첫날 복장' '술자리 매너' '전화 응대법' '이메일 보내는 법' 등 실제 회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은경 팀장은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문계가 많은 서강대의 특성상 어떻게 이들의 취업을 도울까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천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서강대 취업지원팀의 노력 덕분에 올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취업률에서 서강대는 서울 주요대 가운데 3위(취업률 7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네 단계 경증 뛰어오른 겁니다. **OLP**



사교육 개혁을 위한 좀 엉뚱한 제안 : 체육수업에 답이 있다

큰 딸이 재수 끝에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20년 전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사교육 문제도 많이 해결돼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 순진한 기대는 많이 빗나갔다. 딸의 대입 수험생활을 지켜보면서 체감한 우리나라의 사교육 실태는 가히 망국적이었다. 상위권 대학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한 병목 현상은 곳곳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어야 할 청춘은 '공부 지옥'에 빠져 혹사 당하고 그 가족들조차 고비용 사교육 구조의 공동 희생자가 되고 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사교육 개혁의 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의 생각이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경험에 착안한 아이디어임을 밝혀둔다. 작지만 건설적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



글. 홍제표
OLP 21기
CBS 기자



필자는 수년 전 미국 대학에서 연수를 하면서 큰 딸을 미국 중학교에 전학시켰다. 인상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극성스럽다 싶을 만큼 학원 스포츠를 중시하는 것이었다. 딸은 농구부를 택했는데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거의 녹초가 돼서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죽하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학생들은 체육만 너무 좋아하고 공부는 소홀히 한다면서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말했다는 정도였을까. 하지만 필자는 오바마의 이 말에서 한국 사교육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봤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 학교들처럼 학교 체육을 강화하는 것, 아니 최소한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학교에서 체육교육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천 등을 핑계로 결핍하면 실내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마저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해 입시 준비를 하게 한다.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으로 문책감이지만 실제 제재를 당했다는 소식은 과문한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학교 체육이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강화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수년 전 필자의 딸처럼 체력이 방전되다시피 한 채 귀가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에 갈 정도도 없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과외 금지 같은 위헌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 그런데 위헌 논란 없이 쉽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다. 공권력이 사교육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공교육 자체를 강화하겠다는데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 입학사정관 제도가 어찌고 학종 비율이 저찌고 하는 복잡한 미로를 헤맬 필요 없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는 것이다. 사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들이 비싼 학원을 통해 '계급'을 대물림하는 현실이다. 최소한 'SKY 캐슬'에 끼지 못하는 자들의 절망과 한숨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교육 시장의 기득권자들은 교육 경쟁력이나 학습을 통한 행복 추구권 등을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다. 밥그릇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아마도 사생결단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중노동에 가까운 공부라는 행위를 강요하면서 이를 행복 추구권이라 포장하는 것도 우습지

만 교육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미 과잉이다. 우수한 두뇌 외에는 활용할 자원이 없고 아무리 공부가 중요한 나라라지만 지금의 사교육 무한경쟁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공부라는 것도 대학 입학 이후 심도있는 연구 학습 행위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지 오로지 대학 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에 그친다면 공부에 대한 모욕과 다름없다. 어릴 때는 뛰어난 학습 성과를 보이던 우리 학생들이 정작 대학에선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에 반해 미국 대학생들은 초중고교 과정에서 공부 노동이 아닌 창의적인 학습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을 배양한다. 한 미국 교민은 미국 대학생들이 며칠씩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이것은 체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려줬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해보였던 학생이 막상 대학 입학 후에는 세계적 학자로 거듭나는 미국의 저력이 여기에 있다. 과도한 선행학습 같은 가히 아동 착취에 가까운 한국의 공부 문화는 진정 행복해야 할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일찌감치 잘라버리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학교 체육을 정상화, 강화하는 것만으로 사교육 병폐를 줄일 수 있을까?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비용과 부작용이 가장 작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모 세대보다 덩치만 커졌지 속은 단단히 여물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다. 사교육 개혁 여부를 떠나 어린 학생들이 평생의 자산인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지 않았던가. OL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가지 포인트



글. 송의달
조선일보 선임기자,
전(前) 조선비즈 대표이사

저는 올 1월 하순 <세계를 바꾼 7인의 자기 혁신 노트>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을 로비하라>라는 책을 낸 후 13년 만입니다. 2000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라는 첫 단독저서를 낸걸로 기준으로 하면 20년 만에 다섯 번째 책입니다. 비슷한 기간 열권이 넘는 책들을 낸 언론계 선배들이 즐비한 것과 비교하면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책을 내고 나서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1590년대의 이순신 장군부터 2020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리카싱, 손정의 회장까지,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사람을 모두 모았느냐?” 얼핏보면 여러 나라 위인들을 구색 맞추기 위해 마구잡이로 모아놓았다는 인상이 들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이 7명에게는 큰 공통점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략(strategy)’으로 살았다는 점, 즉 ‘전략적 사고’로 성공 인생을 지금도 구가하고 있거나 불멸의 자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마오쩌둥, 보구엔 지압 같은 군인들은 <손자병법>을 탐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 전략과 용병술로 승리를 거두었지요. 마오쩌둥의 경우 <손자병법>을 바탕으로 16개의 한자(漢字)로 만든 ‘16자 전법’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로 여겨졌던 장제스 군대를 격파한 원동력이 됐지요.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퇴각한다. 적이 멈춰서 진을 치면 우리는 그들을 교란시킨다.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敵進我退 敵駐我擾 敵疲我打 敵退我追)”.

이 ‘16자 전법’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구사하는 ‘지구전(持久戰) 전략’의 모태가 되고 있으니 다시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창업주 겸 회장도 스스로 <손자병법>을 수십 차례 읽은 끝에 ‘손(孫)의 제공병법’을 만들어 비즈니스와 인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쓰면서 더 놀랍고도 새로운 발견은 도널드 트럼프(1946년~) 미국 대통령

부분이었습니다. 대략 세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손자병법>의 열렬한 독자일 뿐 더러 미국인과 세계인이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손자병법>을 그가 강력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10년 낸 저서 <Think like a Champion, 우리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 말고 반드시 해내겠다 말하라’로 번역돼 출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손무(孫武)의 <손자병법>이다. 이 책은 경영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군사병법 책이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읽어보라. 이와 유사한 책 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이 책이 말하는 리더십과 권력은 부정적인 면이 있으며 윤리와 신뢰라는 중요한 가치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손자병법>을 읽는 편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훨씬 유익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 등에서 <손자병법> 구절을 올리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후 국내 정치와 대외 관계에서 <손자병법>에 기반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자리를 놓고 공화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공격이나 대선 본선 무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모두 트럼프는 <손자병법>에 충실한 실천적 지략으로 모두 이겼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 한다(可勝者 攻也)”, “먼저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준비하고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 “쏟아지는 계곡물이 바위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그 기세가 맹렬하고 빠르다(激水之疾 至于漂石者 勢也 故善戰者 其勢險 其節短)”는 <손자병법> 구절대로였던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어떤 계기로 <손자병법>을 읽게 됐으며 어떤 방법으로 현장에 응용하는지에 대해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가 갖춰야 할 승리의 5가지 조건 중 하나인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知可以與戰不可以與戰者)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써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도 사실은 <손자병법(The Art of War)>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책 제목도 비슷하게 지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과격하 언어' 사용입니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상스러운 말을 버릇처럼 내뱉고, 어제와 오늘 한 말이 다른 것은 기본이고, 아침에 한 말을 오후에는 정반대로 뒤집는 일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에 대해 "참 역겹다"는 생각을 평소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궁극증을 풀기 위해 트럼프가 추천한 <트럼프처럼 협상하라(Trump-style negotiation : powerful strategies and tactics for mastering)>는 책을 봤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더군요.

"만일 상대가 거친 언어를 쓰거나 유치한 농담을 즐기면 거기에 맞추어 '그들의 말'을 씌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하나가 '나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말'을 쓰라는 것인데,

트럼프는 자신이 지지층이 알아듣고 공감하기 쉬운 어휘를 전략적으로 구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 트럼프는 저서 <CEO 트럼프, 성공을 품다(TRUMP 101 : The Way to Succes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협상 기술을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빨리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우위를 점한다고 말한다. 나는 곧바로 요점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나는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거래 내역을 다 그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1939~) 전 의원은 트럼프의 화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말로 뱉어버리는,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매력이 있다. 고급 단어를 사용하며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기존 정치인들의 언사나 행동은 그들의 행동거지를 100% 믿지못하게 한다. '무슨 꾸밈이를 숨기기 위해 대중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처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유권자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트럼프의 '막말'은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과 농업벨트로 불리는 중서부 농업지대 거주 농민 같은 핵심 지지층에게 엄청난 대리 만족을 안겨



"만일 상대가 거친 언어를 쓰거나 유치한 농담을 즐기면 거기에 맞추어 '그들의 말'을 씌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하나가 '나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말'을 쓰라는 것인데, 트럼프는 자신이 지지층이 알아듣고 공감하기 쉬운 어휘를 전략적으로 구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아가 트럼프는 저서 <CEO 트럼프, 성공을 품다(TRUMP 101 : The Way to Succes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면서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순되며, 상습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관련 협상을 벌이던 2019년 8월 23일, 트럼프는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을 ‘적(enemy)’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했다가 사흘 후인 26일엔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a great leader)’, ‘훌륭한 사람(brilliant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오락가락 행보가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국가 이익과 위상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이 내가 협상하는 방식(It's the way I negotiate)”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유는 트럼프는 자신이 2015년 출간한 <불구가 된 미국(영어 원제는 Crippled America)>에 나옵니다. 아래 구절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고, 경고를 보내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패턴을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무슨 행동을 할지, 혹은 생각을 하는지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중략) 나에 대한 많은 비판자들은 모두 기존의 규칙을 따르고, 예측할 수



있는 단계를 밟으며, 통념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온순하게 경기를 하느라 바쁘다.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패를 드러내는 것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아주 멍청한 실수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트럼프가 모순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다분히 ‘계산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래의 기술>에서 “먼저 상대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동요(動搖)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갖는) 초조감은 이중(二重)의 날을 가진 칼이 될 수 있다. 초조감이 거래를 성립시킨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고 초조하도록 만드는 게 승리를 쟁취하는 묘수(妙手)라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군사들에게서는 사기를 빼앗고, 장군에게는 마음(평정심)을 빼앗아야 한다(三軍可奪氣 將軍可奪心)”는 대목을 빼닮았습니다. 비상식적인 막말을 구사함으로써 적을 헛갈리게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하려는 노림수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더 잘 알려지 않은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젊은 20~30대부터 끊임없는 자기단련을 열심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격적이고 단호한 아이였으며 자립심이 강했고 항상 리더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196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 졸업 후 부동산 임대료를 수급하는 일로 세상 물정을 배워 나가던 그는 1971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한 첫 번째 일은 아버지가 벌려놓은 사업체들을 '트럼프 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트럼프는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짬을 내 '자기 관리'에 올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2~3시간 동안 지역, 전국, 국제지를 가리지 않고 온갖 종류의 신문과 잡지를 읽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뒤에는 책, 보통은 자서전을 읽는데 이따금씩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즐겨 읽는다. 소크라테스의 책을 특히 즐겨본다.”

“나는 매우 바쁜 삶을 살지만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마음의 평정을 위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는 내 삶의 미션이 매일 최상의 한계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만 되면 침대에 앉아 보

통 새벽 1시까지 책을 읽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하루 종일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정보가 중요하다. 많이 아는 자가 주도권을 차지한다. 두뇌의 힘은 위기 속에서 강력한 지렛대 작용을 한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욕 맨허튼 한복판에 트럼프 타워를 완공한 다음에는 집과 사무실이 한 건물 안에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 체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점을 활용해 사색과 독서에 힘썼습니다. 트럼프는 지금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고전문학이나 역사 등 일상적인 범위 밖의 것을 탐구하는데 투자하라. (중략) 세계 정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며, 이런 공부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40%가 넘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최고 성장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는 최고 지도자의 만만찮은 준비와 내공, 즉 실력이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중 연설도 치밀하게 사전 준



비를 합니다. 청중의 수준을 사전에 분석하고 수준에 맞는 사례나 예시를 들어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며 어휘도 단순하고 직설적인 것만 골라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청중을 매료시키는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해 그는 대중 연설의 11가지 원칙을 세워 놓고 일일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2세때인 1987년부터 70세때인 2015년까지 28년간 19권의 저서를 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저의 줄지를 쓰면서 막말과 상소리로 '사기꾼' '도라이' '난봉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잔뜩 많이 갖고 있는 트럼프에게 이런 색다른 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신 저작들에서 "미국이 과거 20여년 동안처럼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호구'가 되어서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구 노릇만 하다가는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에 추월당해 세계 2,3등 국가로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늘리는 최고의 협상가가 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상주의적인 구두선(口頭禪)만 남발하다가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에 추월당할 위기로 만든 오바마 등 민주당 정부와는 접근법이 180도

다른 것이지요.

트럼프는 분명히 과대망상적이고, 자가당착적이며, 정신심리학적으로 이상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선 '세계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망친' 사람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일관된 전략적 사고와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 그의 일거수일투족, 트위터 한 문장 한문장은 모두 미국의 국가이익 확대라는 큰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많은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민들 상당수는 그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재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이유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개개인,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은 트럼프의 자기 단련과 전략적 사고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말 같은 품위없는 좌충우돌은 배울 바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내정을 넘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적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순진하게 '평화'만 외치다가는 눈코 다 베여나가기 십상인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대변하고 구현해 나가는 '새로운 미국'과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정확하게 꿰뚫는 예지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OLP





‘위대한 멈춤’이 지금 그리운 이유

지난해 미술 전시관을 둘러볼 때였다. 작품을 해설하는 큐레이터(학예사)는 “현대회화의 두 거장 피카소와 마티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라고 물었다. 관람객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내놓자 학예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정리에 나섰다. “두 사람이 닮은 구석이라곤 까칠하고 불같은 성미뿐이라서 평생 가까이하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거장은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한 세기의 라이벌이었습니다.” 훗날 “그(피카소)가 있어 내가 존재했다”라고 마티스가 상대방을 그리워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두 거장의 애증 관계를 술술 풀어줬다.

경쟁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세상 이치다. 금융기관의 장(長)이나 공기업 대표를 교체할 시점이 되면 각종 투서가 난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몇몇 공공기관 수장 교체를 앞두고 경쟁자 흠집 내기는 여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소문을 추적해보면 경쟁자들이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 퍼뜨린 내용이 적지 않다. 임명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고위 관료를 최근 만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전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스포츠 라이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세계적 사이클 선수 올리히. 1997년 투르 드 프랑스 우승, 2000년 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독일 사이클 영웅이다. 하지만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이 출전한 1999년 이후부터는 암스트롱 그늘에 가려 준우승만 3차례 하며 ‘만년 2인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한 적도 많았다.

2003년 투르 드 프랑스 대회 결승점을 9.5km 앞둔 지점. 선두는 또 암스트롱이었다. 그 뒤를 15초 차이로 뒤지고 있는 올리히가 바짝 따라붙었다. 그때 암스트롱이 구경나온 어린이의 가방끈에 핸들이 걸려 넘어졌다. 올리히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

그런데 넘어진 암스트롱을 추월한 올리히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다.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뒤를 돌아보면서 암스트롱을 기다렸다. 올리히가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은 것은



글. 김동원
OLP 16기
펜앤드마이크 전무 겸
경영기획본부장





암스트롱이 넘어졌을 때 거리만큼 자신의 앞으로 갔을 때였다. 스스로 넘어지기 이전의 상황과 같이 만든 셈. 이후 마지막 9.5km의 숨 막히는 접전이 펼쳐졌다. 결과는 암스트롱의 승리였다. 올리히는 또 2위에 머물렀다. 당시 언론은 올리히의 기다림을 ‘위대한 멈춤’이라고 감동적으로 적었다.

라이벌(Rival)의 어원은 강(River)에서 나왔다. 강을 사이에 두고 다른 부족이 대치하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경쟁한다. 경쟁하는 두 부족은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 지더라도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강에 독을 타지는 않는다. 독을 타면 자기도 그 물을 마시고 결국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

자기를 위협하는 적(敵)이 있더라도 생각에 따라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로 역사가 평가하는 대통령에게는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 있었다. 역사는 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는 독일의 히틀러가 있었다. 레이건에게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그 역할을 맡았다. 상대방에 승리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자유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전사로 비쳤다. 스티븐 스토크의 저서 ‘윈윈 파트너십’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확신에 찬 사람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이 아닌 자신의 재산으로 여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포츠와 같은 라이벌의 미담 스토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너 죽고 나 살기식 이전투구는 자칫 강가에 독을 풀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더 그렇다. ‘라이벌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시점이다. OLP





자칫 잊기 쉬운 경제상식에 대한 단상(斷想)

세상 만물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솔로몬이 얘기했다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모두 삶의 과정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기 마련이다. 유대인들은 그 이유로 “신(神)은 만민이 평등하게 선과 악,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경험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만큼 어떤 일이 닥쳐도 평정을 잃지 않고 견디는 힘이 세상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다. 경제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꼽는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로서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공짜로 받는 물건이다”는 말도 있다.

현실 세계를 보면 이러한 ‘경제의 지혜’가 왜곡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왜곡은 대체로 정치 때문에 일어난다. 정치는 ‘표를 먹고 사는 세상’인지라 사람들을 현혹시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인은 늘 공짜(포퓰리즘)를 남발할 인센티브를 갖는다. 세금이든 빚이든 평평 써서 인기를 얻으면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있고, 만약 권력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빚을 갚는 것은 새로 권력을 잡는 정치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인들은 늘 포퓰리즘을 남발하며, 큰 정부일수록 큰 포퓰리즘



글. 김상민

OLP 7기

<탄핵>, <아버지에게서 받은 100개의 편지>, <이기적 국민> 저자

을 추구하는 데 아무래도 좌파 성향의 정부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경제 상식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한 추리소설에 나오는 정치인은 근본적으로 정치가 지닌 못된 속성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권력을 잡지 못하면 불가능하지요. 표가 없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고, 민심을 외면하면 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중을 달래기 위해 선의를 희생해야 할 때도 있지요. 정치란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다. 뉴스를 보는 빈도나 뉴스에 달린 댓글도 단연 '정치 우위'의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경제에 대한 고민은 그리 깊지 않다. 경제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제 상식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서 왜곡되고 변질되기 일쑤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제 상식은 어떤 게 있을까.

첫째

경제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진실은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수요자)가 구입을 꺼려하

므로 자연스럽게 물건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중국 고전인 <사기, 화식열전>에도 “물건 값이 싸면 (공급이 줄어) 오를 징조이고, 비싸면 (공급이 늘어나) 내릴 징조”라는 대목이 나온다. 학생들도 경제학 시험을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답을 쉽게 고른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달리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격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의 가격은 ‘원가+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기가 정육점에서는 1kg에 1만 원인데 여기는 3만 원이 넘게 받으니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묻는다. 원가(비, 인건비 등의 합계)가 5천 원인 물건이 품귀 현상으로 2만 원에 팔았다면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한다. 작황이 좋지 않은 배추 값이 뛰면 ‘금(金)배추’라고 이름을 붙이고, 갈치 가격이 뛰면 ‘금(金)갈치’라고 표

현한다. 정의감이 충만한 정치인과 교수 출신 관료들이 이런 주장에 앞장서고, 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이익’으로 정해 3.3㎡당 3천만 원이라고 정해 놓는 식이다. 주변 아파트는 3.3㎡(평)당 5천만 원이라면 누가 이렇게 싼 시세에 아파트를 짓겠는가. 혹시 이런 아파트가 분양되면 수요자가 급증한다. 당첨만 되면 평당 2천만 원의 공돈이 생기니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당연히 공급이 줄고 아파트값은 올라간다. 도심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주택 공급이 줄면 돈이 약간 있는 사람들도 주변부로 밀려난다. 주변부에 살던 더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과 전세가격이 오르니 더 바깥으로 나가야 하며, 아직 사회생활이 짧은 젊은이들은 방 한 칸 얻기 힘들어진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젊은이들의 방 구하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시장에서 작동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심리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혀진다. 결과와 관계없이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해야 강남을 시키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물건(사람) 값은 소비자가 정하고 소비자가 지불한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도 소비자가 찾으면 팔리는 것이고,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안 팔린다. 치킨 프랜차이즈업체가 통닭 한 마리에 2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 옆의 전통시장에서는 닭 3마리를 1만 원에 판다. 그렇다고 치킨 2만 원짜리를 파는 업체가 나쁜 업체라고 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통닭 가격의 차이’를 ‘품질과 양념, 서비스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정보로 인식한다. 소비자가 좋다고 사면 그걸 인정하는 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격에 개입하면 정보가 왜곡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정치적인 축이 발달한 사람들은 가격 개입이 방법론적으로 단순하고 선택효과도 뛰어나므로 지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무



상보육, 무상의료'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세상에 무상(공짜)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데도 사람들은 '무상 혹은 공짜'라는 말에 현혹된다.

대표적인 가격개입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을 높인 주역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인데 그들은 결정만 하고 뒤로 빠졌다. 그들의 영터리 결정에 임금을 주는 주체인 기업만 죽어나갔다. 기업은 한 시간 일해서 8천원 가치를 창출하는 직원을 시간당 1만 원에 고용하지 않는다. 손해를 볼 짓을 할 기업은 없다. 기업은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원 숫자를 줄인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능력 있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야근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직원, 혹은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의 경우 야근을 피하기 어렵다. (공부의 철칙 '머리가 나쁘면 공부 시간을 늘려라'는 것처럼),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권리'를 박탈했고, 기업들은 성과가 나지 않으니 고용을 줄였다. 그게 '일자리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국회의원으로서 주52시간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한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성한다"고 말했다.)

셋째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소비자 이익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제품과 서비스는 잘 팔리고 해당 기업은 돈을 번다. 그래서 경제의 권력이 소비자에게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쓴다.

문제는 소비자의 경우 단결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 '정치적인 축'이 발달한 사람들은 단결력이 약한 전체 소비자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익단체를 겨냥한다. 민노총의 얘기만 들어주고 정작 '노동의 소비자(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목소리는 외면한다거나,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못하게 막으니 다리 아픈 노년층과 시간이 많지 않은 외국 관광객은 멋진 설악산을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선호하는 특목고와 자사

고를 없애고 나서면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영재로 커나갈 기회를 잃게 된다. 흔히 '규제 완화'의 걸림돌은 이익단체들이다. 이익단체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넷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착한 정부와 착한 공무원은 없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동서고금 이래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은 5000만 명 개인마다 모두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도와주는데 그쳐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맞다.

정부는 넓게 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은 정치인과 관료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관료를 '착한 존재'라고 하지 않는데, 그들이 구성원인 정부가 착해질 수 있을까. 과거 사회주의 국가는 '큰 정부, 국가 주도,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여기서 관료들은 큰 국가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 공무원의 '정치 권력은 곧 경제 권력'이 되고 관(官)의 입김이 커질수록 민(民)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극단적인 관 주도사회가 바로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이들 사회에서는 '부패한 특권 공무원층'이 모든 것을 거머쥐었고 뇌물과 비리가 만연했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국민들은 공포와 억압, 빈곤 속에서 신음했다.

다섯째

적자를 계속 내는 가정이나 기업은 망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재정 집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돈이 대통령이나 장관 지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국민 지갑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볼 자. 자신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면 아껴 쓰지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펄펄 쓰는 게 인간의 심리다. 정치인과 관료의 예산 집행은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들의 소비보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가정이나 적자가 계속되면 파산하고 가족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 결국 파산하고 문을 닫으며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고 협력업체는 대금을 떼인다. 재정도 적자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하고 젊은 세대는 빚더미에 눌러 신음하게 된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유럽의 그리스 등이 모두 그렇게 망국의 길을 걸었다. 볼리비아와 좌파 사회주의자인 모랄레스는 나라를 맡아먹고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해 멕시코로 도망쳤다.

이탈리아 말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라는 표현이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종교 표현인데 정치와 경제에서도 이 말이 적용되는 두 직군이 있다. 공무원과 기업인이 그들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공무원에게는 예산을 낭비하는 죄이고, 기업인들에게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페카토 모르탈레’를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여섯째

경쟁이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이다. 일부 학자나 교수들이 ‘자유경쟁은 자기파괴적 경향 즉 독점을 초래하는 경향을 지니므로 국가가 경쟁을 활성화하거나 독점을 규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엉터리 경제 상식을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악당이 아닐 수 없다.

자유 경쟁을 없애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발전이 없게 된다. 과거 소련은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도 삶에 필요한 전자제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상부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세상에서 새로운 소비제품을 만들어야 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통해 ‘농단(壟斷)’이란 단어의 유래를 알게 됐다. 농단은 ‘옛날 어느 남자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두루 살핀 후 좋은 자리를 잡아 물건을 모두 팔아치웠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그로부터 농단은 거래를 좌지우지해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의미가 됐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농단’이란 바로 ‘상부 지시’를 의미한다. ‘상부 지시’는 곧 모든 거래에 대한 독점을 뜻한다. 좌파들이 경쟁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은 곧 ‘독점 허용’을 뜻하고,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국가나 국영기업의 독점으로 나타났다.

독점이 얼마나 나쁜지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잘 설명했다. 그는 “독점가격은 소비자를 쥐어짜는 가장 높은 가격이며, 소비자들이 그 돈을 주고 사겠다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꼴이 된다. 반면 경쟁을 통해 이뤄진 가격은 판매자들이 일반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인 동시에, 기업이나 상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록 해주는 가격이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나쁜 적이라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순대국 거리, 떡볶이 거리, 족발 거리의 형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들 거리를 가보면 가게마다 경쟁이 치열한데, 그게 오히려 해당 거리를 키운다. 그러한 경쟁을 영어로 '선의의 경쟁(emul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주변 경쟁자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기 가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은 손님들로 하여금 더 좋은 음식을 맛보게 하고, 가게들을 더욱 번창하게 만든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이러한 경쟁이 싫다고 없애면 결국 가게는 한 군데만 남을 것이고, 손님들은 서비스와 맛의 개선이 전혀 없고 손님에게 불친절한 가게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독점을 하게 된 가게는 수요에 맞춰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공급부족은 줄서기 현상을 초래한다. '경쟁을 없앤 이상사회'가 바로 사회주의국가였고 거기에서는 예외없이 '줄서기 낙원(Queueutopia)'이 펼쳐졌다. 줄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뒷돈을 쥐야 했는데, 줄을 감독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아 호화롭게 살 수 있었다.

일곱째

경제가 잘 굴러가게 하려면 기업인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인을 옥죄는 나라는 예외 없이 경제가 망가졌다. 사회주의나 독재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 열심히 구애작전을 벌였다. 마오쩌둥은 모든 불만 세력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정권을 잡았다. 농민에게는 땅을, 소수 민족에게는 독립을, 지식인에게는 자유를, 사업자에게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노동자에게는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약속했다. 중국 공산당은 '新(신)민주주의'라는 기치아래, 즉 가장 강력한 적들을 제외한 모든 세력에게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다수를 규합했다. 통일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민주당 같은 수많은 비공산주의 조직들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으며 정권에 동조했다.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씩 파기되었다. 마오쩌둥은 '다



수의 지지를 얻고 소수를 반대하여 모든 적을 각개 격파 하라'는 전략으로 모든 분야의 반대자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갔다. 예컨대 기업가들은 '노동계급의 착취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자아비판을 강요했으며, 근로자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1952년 당시 단 2개월 동안 상하이에서만 600명이 넘는 기업가와 사업가, 소상공인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업인을 적대시한 중국에서 경제는 발전할 수 없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은 이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대략 7가지 경제 상식을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에는 과연 이러한 경제상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 이러한 경제상식이 무너진다면 경제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고 국민의 삶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대한민국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 이치와 사람들의 못된 인성에 대해 명언을 남겼다.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들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남들의 이익을 빙자해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부를 좌우하게 되면 일반 시민의 경제적 복지는 줄어든다.”

“평등이 자유보다 우선인 사회는 평등과 자유 둘 다 얻지 못한다. 자유가 평등보다 우선인 사회는 둘 다 얻는다.” OLP

노자 도덕경에서 만나는 “리더와 리더십”



Leader & Leadership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이 화두로 한 주를 묵상과 명상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리더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을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리더는 자신만의 행동과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합니다. 리더는 다른 누군가를 따라 하지 않으며, 리더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죠. 리더는 미래를 예상하고 성과와 업적을 예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리더십인가’입니다.

<월드비전 보고서 : 리더십 개발에 대한 피터 드러커와의 대화>에서



클. 문규선
OLP 13기

리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입니다. 그 누구는 자신, 집단, 조직, 국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더는 우리 모두입니다. 리더의 리더십(Leadership)은 리더가 올라탄 배,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리더십을 ‘리더와 추종자들이 관심사를 매개로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백기복, 2016, 리더십의 이해)이라고 한 정의



는 다양한 상황과 행위를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노자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노자의 철학을 삶에 담아내면 리더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도 존재하지 않고, 리더의 행위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 무 위 이 민 자 화 아 호 정 이 민 자 정 아 무 사 이 민 자 부 아 무 욕 이 민 자 박
我無爲, 而民自化; 我好靜, 而民自正; 我無事, 而民自富; 我無欲, 而民自樸.

“내가 무위(無爲)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저절로 올바르게 되며, 내가 억지로 일을 꾸미지 않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소박해진다.”

- 노자, 도덕경 57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노자에게는 리더십이 필요 없습니다. 노자는 현실 사회에 리더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에게서 리더나 리더십은 모두 방편적인 것들입니다. 부득이하게 인간 세상에 리더가 없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독존적 통솔형 리더십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노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리더십은 無爲의 리더십입니다.

노자가 제안한 리더의 덕목과 리더십의 정의

노자는 리더를 성인(聖人)으로 표현합니다. 노자의 '성인'은 『도덕경』 총 81장 중에서 스물여섯 장에 걸쳐 32차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리더, 리더십을 가려 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 리더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리더의 정의:

① 일상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한 내면의 평정심을 가진 사람.

- 편견 없이 세상 보기, 선입견 없이 他者 보기(이는 『대학』의 明明 德과 같은 개념)

유 무 상 생 난 이 상 성 장 단 상 교 고 하 상 영 음 성 상 화 전 후 상 수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盈, 音聲相和, 前後相隨(2장)

② 성과를 소유하지 않고 나눌 줄 알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함께 누릴 줄 아는 사람.

생 이 불 유 위 이 불 시 공 성 이 불 거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2장, 10장)

리더의 덕목:

① 자애(포용의 리더십) : 배려와 소통 그리고 친밀함.

② 겸약(Authentic Leadership) : 언행일치, 염치를 아는 사람.

③ 겸허(Servant 리더십) :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근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노자에게는 리더십이 필요 없습니다. 노자는 현실사회에 리더를 상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자에게서 리더나 리더십은 모두 방편적인 것들입니다. 부득이하게 인간 세상에 리더가 없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독존적 통솔형 리더십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노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리더십은 無爲의 리더십입니다.

자 고 능 용 겸 고 능 광 불 겸 위 천 하 선 고 능 성 기 장
慈故能勇; 儉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67장)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함으로,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

리더십:

- ① 무위로 일을 처리하고,
- ② 말하지 않고도 가르침을 행하는 것.

시 이 성 인 천 무 위 지 사 행 불 언 지 교
是以聖人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2장)

스스로 주관하게 하고, 스스로 알아서 주인이 되어 하게 하라.

리더의 모습 :

- ① 선 전 자 불 노 선 승 적 자 불 여 선 용 인 자 위 지 하
善戰者, 不怒; 善勝敵者, 不與; 善用人者, 爲之下(68장)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고, 이기는 자는 맞서지 않으며, 사람을 잘 쓰는 자는 나를 낮춘다.

- ② 태 상 하 지 유 지 기 차 친 이 예 지 기 차 외 지 기 차 모 지
太上, 下知有之; 其次, 親而譽之; 其次, 畏之; 其次, 侮之. (17장)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그가 있다는 것도 모르며, 그다음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그를 가깝게 받들고, 그다음은 꺼려하는 지도자이고, 나쁜 지도자에게는 아랫사람이 그를 업신여긴다.

無爲의 리더십

무위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안 하는 듯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애써 하지 않아도 자연의 흐름같이 되게 하는 것이죠. 율곡 이이는 명목의 이치를 마음과 눈 사이에 뚜렷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사람이 직접 행동하여, 아는 것을 실천해 옮겨야 비로소 참된 지식이라 하였습니다(褰衣闢步 勉勉上山). 그래서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삶을 소처럼 되새김질 하면서, 오늘도 꼭꼭 눌러가며 걸어가고 있는가 봅니다. (B 文 200116) OLP



OPINION LEADERS PROGRAM

Essay

OLC 참여와 활용법

박연대 OLP 12기

“ ‘깜빡깜빡’ 나도 더 나이 들면 설마~~”

최수호 OLP 16기

나는 은퇴 뒤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정원교 OLP 11기

독수리 날려 보내기

고철중 OLP 7기

‘만년필’, 내 인생 8할은 신문

정세용 OLP 2기

人生流轉... 다시 ‘막기자’로

이준구 OLP 1기

일곱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용웅 OLP 7기

OLC

참여와 활용법

서강대 OLP 12기를 수료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고, OLC 사무총장 임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인생의 중턱에서 나에게 OLP와 OLC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학사 장교 전역 후 건설사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십수 년 후 독립을 해 회사를 차리고 디벨로퍼를 꿈꾸며 나름 기반을 잡아가고 있던 중, 고향 친구 이윤성(OLP 9기)원우의 소개로 OLP 12기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일천한 회사를 다양한 기업인과 언론인, 그리고 행정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좀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을 꿈꿨습니다.



김 박연대
OLP 12기, 7대 사무총장
청신마스터플랜 대표



OLP 12기 간사장

OLP 12기의 시작과 함께 간사장이란 역할을 부여받아 알찬 강의와 멋진 여행, 새로운 동기들과 함께한 3교시 맥주 파티!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동기들과의 만남은 아깝지 않은 추억이었습니다. 회비를 관리하고 행사를 위한 장소섭외 및 스케줄 관리 등 간사장으로의 봉사 임무는 새로운 친구들을 얻는 기쁨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OLC의 사무총장

OLP를 수료하고 OLC에 가입한 후 약간 소강상태로 연합골프와 송년 모임 등 중요한 행사에만 간간히 참석하던 중 12기를 함께 수료하신 어진 회장님께서 OLC 6기 집행부에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사무차장으로 함께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잘 아는지라 예를 갖춰 고사했으나, 6개월 이상 계속된 요청에 도리가 아닌듯해 부족하지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사무차장으로 보고 배운 뒤, 어진 회장님의 7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사무총장의 2년간 임무도 2018년 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신년 교류회를 시작으로 연말 송년회까지 매달 1, 2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OLC의 환경

현재 OLC는 1기부터 22기까지 1천여 명의 원우가 소속되어있는 매머드 집단으로 특유의 끈끈함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기 집행부 성대영 총회장님(손병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부회장(각 기수 회장님), 간사단 및 언론 편집분과에서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수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교육과 봉사 등 다양한 단체행사를 통해 OLC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OLC 활용법

저는 OLC에 소속되어 계시나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원우님들께 감히 제안 드립니다.

OLC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학술세미나, 등산, 오페라 감상 등 다양한 OLC 행사에 참여하셔서 문화와 취미생활을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술세미나는 국내외의 중요이슈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

해 서강대학교 OLP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오찬 세미나입니다. 분기별 1회 정도 예정이며 실생활에 큰 도움 되실 듯합니다. 등산 및 오페라는 윤석구 전임 부회장(OLP 8기)을 중심으로 매달 개최하는 동호회 행사로 현재는 마니아 원우님들만 참석하고 계시나 원우님들께서 참여해보시면 흥미를 느끼실 듯합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봄가을 문화해설 투어와 OLC 최고의 골프실력자를 가리는 연합골프대회에도 관심 두실만합니다.

이처럼 OLC는 원우님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과는 커다란 혜택이 되실 겁니다.

둘째 원우님들의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하여 'OLC 유튜브' 및 '앱 활용'을 권유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이옥원 간사단장님(OLP 1기)의 자녀 혼사 답례 영상과 연합골프 및 송년 행사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참으로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OLC라는 플랫폼을 통해 원우님들의 개인 경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소식들과 회사의 주요업무를 홍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문의는 OLC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OLC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각 개인의 참여를 통해 커다란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훌륭하고 멋진 공간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한해 OLC 산악회에 열심히 참가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OLP





“‘깜빡깜빡’ 나도 더 나이 들면 설마~~”

“‘깜빡깜빡’ 나도 더 나이 들면 설마~~”

몇 년이나 됐을까? 한 10년쯤 된 것 같다. 10월 어느 주말, 골프 하러 갔다가 내 스스로 정말 한심하게 느꼈던 적이 있다. 옷을 다 갈아입고 골프화를 신으려고 하는데 골프화가 없는 것이다. 바로 전날 꽤 비싸게 주고 산 골프화를 꼭 챙겨 갈려고 일부러 현관 앞 잘 보이는 곳에 놓고서도 아침에 나올 때 그만 깜빡해버린 것이다.

“이런 낭패가……. 헐.” 결국, 클럽 하우스에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틀 만에 또 골프화를 살 수밖에 없었다. 골프화야 다음에 또 사용하면 되지만 ‘깜빡깜빡’하는 내 고장 난 머릿속, 건망증에 짜증이 나면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서도 핸드폰을 찾질 않나, 읽었던 책의 제목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종종 있다. 나중에 갑자기 기억이 나면 “맞아, 그거잖아” 하며 웬지 찻찻함을 떨칠 수 없다. 혹시나 치매 전조증상은 아닐까? 더 나이가 들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으면 자신들은 40대에도 이미 깜빡깜빡했다며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고 오히려 면박을 주곤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건망증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가끔 집 근처 도서관을 들르는데 새해 들어 처음으로 치매와 관련된 책을 빌려 읽었다. 제목은 <치매 정복, 치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77가지 습관>, 일본인이 쓴 책으로 평소의 생활 습관만 조금 고쳐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글. 최수호
OLP 16기
YTN 국장/해설위원

- ▶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니까” 하면서 나이를 핑계 대지 않는다
- ▶ ‘그거’, ‘저기’, ‘거 있잖아’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 ▶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 억지로 공부(입력)하지 말고 기억(출력)해내는 데 힘쓰라
- ▶ 주식이나 도박을 적당히 즐겨라
- ▶ 단골 가게만 가지 말고 육식을 충분히 섭취한다
- ▶ 옛날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 ▶ 새로운 사람(이성 포함)을 적극 만나라
- ▶ 편식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읽어라
(쓸데없는 지식을 쌓아라)
- ▶ 일이 잘 안 될 때는 깨끗이 접고 초기화한다
- ▶ '권위주의'와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조심한다
- ▶ '근거 없는 확신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 ▶ '그렇구나! 사고' 보다는 '그렇지도 몰라 사고'를 한다
- ▶ '건강 마니아 자랑' 혹은 '자기 병 자랑' 그만두라
- ▶ 의무적으로 운동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취미)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라
- ▶ 귀찮아하지 말고 멋을 낸다 (젊게 행동한다)
- ▶ 협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지 않는다)
- ▶ 무엇을 배울 때 자신만의 독자성을 추구한다
- ▶ 가족과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77가지 습관 가운데 가장 고개가 끄덕여지거나 반대로 고개가 갸웃해지는 몇 가지 습관들을 적어 보았다.

치매는 외부충격, 질병 등으로 뇌에서 가장 빨리 수축하기 시작하는 전두엽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전두엽은 인간다운 지성, 이룰때면 의욕, 호기심, 창의성 발현 등을 담당하고 있어 전두엽이 계속 위축되면 감정 조절이 어렵고 계획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노화는 뇌에서 시작되고 회춘도 뇌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다. 50~60대에게 그동안 몸에 밴 습관이나 언행을 바꾸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한들 얼마나 달라질까?라며 회의적인 답변을 할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 몸에, 특히 잠잘 때도 쉬지 못했던 나의 뇌에 대해 너무 혹독한 처사는 아닐까? 하며 자문해본다.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는 개인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는 징벌과 같은 질환으로 여긴다. 친구 부모나 지인들의 안타까운 사연 등을 접하면서 “나도, 내 가족들도 결코 예외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해 초였던가? 한 종편채널이 방영해 큰 화제가 됐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 몇몇 대사와 장면들은 여전히 내 기억에 생생하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 김혜자 씨는 연기도 명품 연기지만 어느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극 중 자신의 마지막 대사로 대신해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 해 질 무렵 우리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요즘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으로 온 인류가 너무나 큰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국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범적인 방역으로 조만간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사태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와 교육, 사회, 문화 등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이 끔찍한(?)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 글로벌 경제를 외치던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개방과 공유는 이제는 결코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고립과 폐쇄, 거리두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일상의 모습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두렵기까지 하다.

정말 우리,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있는 것 같다. OLP



나는 은퇴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글. 정원교
OLP 11기
성균관대 초빙교수,
전 연합뉴스·국민일보 기자

2017년 겨울 중국 런민대 도서관 앞에서

정년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정서는 어떨까. 암전된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일까. 무대 위도 아니고 아예 극장 밖으로 쫓겨난 듯 느낄까. 아니지, 자유인이 된다는 해방감도 대단하겠지. 그래도 보람을 찾을 '거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10년 전 나는 이런 생각들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은퇴 뒤에도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 대다수는 퇴직 뒤에도 여전히 팔팔하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즐거워하는 것도 이러한 욕구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러나 희망과 현실은 분명 차이가 있다. "나는 재능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거나 "재능을 발휘하고 싶지만 내 재능이 뭔지 모르겠다" 등등.

현직을 떠나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시 정년을 둘러싼 생각은 이런 쪽으로 발전했다. 2010년 연말 무렵이었으니 50대 중반일 때다. 국민일보 논설위원이었다. 되 돌아보니 1984년 연합뉴스 수습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담근 뒤 지나간 시간 동안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게 없었다. 그동안 나는 무얼 했던 것일까. 달력의 빨간 날짜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치부한 채,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가정은 어떻게 지탱되는지조차 챙기지 못하고 일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허망함이란! 그러면서 연합뉴스를 떠날 당시가 떠올랐다. "한·중 수교가 되면 초대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야 하니 꿈쩍 말고 여기 있어." 새로 창간되는 국민일보로 옮기고자 했을 때 연합뉴스 편집국 간부는 정색하며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했다. 필자가 연합뉴스 입사 전 대만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걸 아는 그 간부는 평소에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곤 했다. 한·중 수교 전에는 중국 관련 공부를 하느라 대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뉴스 간부의 만류에도 나는 국민일보로 갔다.

그때 왜 정년 뒤의 삶을 생각했을까. 국민일보 베이징 특파원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다. 늦었지만 중국과 관련해 나의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만들기로 한다면 베이징 특파원으로 나가야 할 터였다. 하지만 청년 시절 중국에 대해 품었던 열정이 국민일보로 옮긴 뒤 거의 사라진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내가 고심한 건, 이 때문이었다. 마침내 다른 후보자와 함께 공인 중국어 시험까지

치른 뒤 특파원으로 선발됐다. 당시 나 자신이나 국민일보나 흔치 않은 선택을 한 셈이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베이징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년을 맞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무튼, 중국의 각 분야를 3년 동안 취재하고 체험했던 게 청년기에 가졌던 중국에 관한 관심을 되살려 놓았다.

2014년 연합뉴스와 국민일보를 합해 만 30년을 일하고 나온 뒤 일단 휴식부터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를 너무 혹사했으니 당연한 보상이었다. 한 달 때쯤 쉬었을까. "아주경제에서 일 좀 하지." 광영길 아주경제 회장의 권유였다. 그해 연말까지는 머리 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게 계속된 설득 앞에 무너졌다. 그리하여 2년 동안 아주경제에 몸담았다. 덤으로 하게 된 기자 생활이었다. 아주경제에서는 일간 중국어판 편집국장 등을 맡았다.

다시 언론계를 떠난 뒤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로 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체력이나 지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설사 해낸다고 하더라도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지 등 주변의 염려가 만만치 않았다. 결국, 아내가 동의했다. 그 거면 충분했다. 2017년 초, 중국 런민대(人民大) 언론학 박사과정 지도교수에게 연락을 드렸다. "그러잖아도 자네가 언제쯤 논문을 쓸지 걱정하고 있었네." 다른 과정은 끝냈지만, 논문을 아직 못 쓰고 있었다.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가 만 61세. 베이징 시내 다른 대학은 박사 입학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다행히 필자가 입학할 당시 런민대는 그런 제약이 없었다. 그 뒤 런민대도 나이 제한이 생겼다.



2018년 봄 런민대 캠퍼스에서 조경 도중

논문 주제(뉴미디어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중심으로)를 놓고 두 달가량 지도교수와 위챗, 이메일, 전화를 통해 소통한 뒤 3월 초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학교 내 외국인 기숙사 1인실에 들어갔다. 방에 짐을 풀고 난 뒤,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행복이라는 생각에 잠시 잠겼다. 최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각오도 함께 다졌다. 하지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숨 쉴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1년 반 사이에 종합 고사 치르고 학위 논문 쓰는 외에 학술지 논문 2편도 발표해야 했다. 고통 속에서도 강행군을 통해 계획된 시간에 맞출 수 있었던 건 체력관리를 잘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잠 날 때마다 기숙사 옆에 있는 운동장이나 교정에서 달렸다. 철봉, 평행봉도 계속했다. 학위수여식에 왔던 아내와 딸이 돌아간 뒤 웬지 모를 허탈감에 빠져 갑자기 눈물이 났던 걸 고백한다. 눈물 자국을 남들이 볼까 봐 힐끗거리면서 나는 나 자신을 다독였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지 않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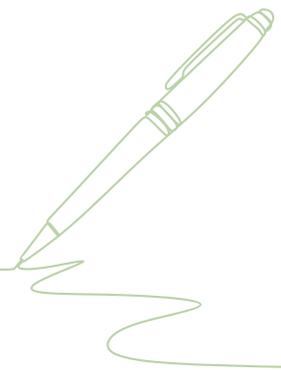
요즘 나는 강의 준비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뭔가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서 지낸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개 이러한 것들 중 하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운동에는 평일 운동 외에 주말 등산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니 아주 짜임새 있게 생활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의 일상이나 그러하듯 이 밖에도 부딪히는 일들은 적지 않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는

등 당초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생활을 가능하면 단순화하려고 애쓴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뭔가 축적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관심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리하여 중국 미디어와 관련된 인상적인 책 몇 권 쓰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중국 미디어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책을 준비 중이다. 중국 미디어가 코로나 19를 어떻게 다뤘는지 구체적으로 짚는 내용이다. 신문 방송 등 전통미디어는 물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도 당연히 분석 대상이다. 여기에는 코로나 19를 통해서 본 중국공산당의 선전 전략도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이미 원고의 절반 이상을 썼다. 관훈클럽에서 발행하는 관훈 저널 2020년 여름호에 원고 앞부분 일부 내용을 기고하기도 했다.

당장은 가을 학기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시대를 맞아 언택트 문화는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강의 PPT와 동영상은 만들거나 온라인 스트리밍 강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 그런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새 학기에는 지금까지 강의하던 성균관대 외에 경희대에서도 수업하게 됐다. 성대(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의 경우 벌써 가을 학기 첫째 주 강의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콘텐츠를 올려달라는 학교 측 공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대에서는 ‘중국의 미디어와 정치’ 강의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 ‘뉴미디어 정책론’을 새로 맡았다. 경희대



2018년 6월 학위복을 입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 필자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18년 겨울
친구들과 덕유산 종주에 나섰을 때.
일몰 순간 구름에 반사된
햇빛이 아름답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수업은 MBA 과정의 '미디어 전공' 중국 학생들이 대상이다. 커리큘럼 자체가 중국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수강생은 모두 중국 학생들이고 수업은 중국어로 진행된다. 나는 '매스컴 이론'과 '디지털 뉴미디어' 두 과목을 강의한다. 현직을 떠난 뒤에도 학교에서 청년들과 교감하며 지낼 수 있다는 데 감사한다.

이 밖에 정기적으로 챙겨야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 교수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게 그 첫째다. 지난봄부터 매달 한 번씩 중국 미디어 또는 중국 관련 이슈 위주로 쓰고 있다. 또 하나는 한중 관계 전문 계간지 <한중 저널> 편집위원 역할이다. 작년 9월 창간호를 냈고 곧 1주년 특집호가 발간될 예정이다. 중국에서 근무했던 언론사 특파원들을 중심으로 외교관, 경제인, 연구인들이 함께 만들어간다. 처음 1, 2호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 뒤 한동안 좀 소홀했는데 다시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한다.

장황한 제 글을 인쇄심을 갖고 읽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 축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쓰는 건 은퇴 뒤의 삶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였다. 돌아켜보면 10년 가까이 걸렸다. 언론계를 떠난 뒤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년을 4년도 채 남겨놓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뒤의 삶을 떠올렸으니 결코 빨랐다고 할 수 없다. 그나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년 뒤에 대한 설계는 이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럴 때 자신의 인생관, 취미, 경제력 등에 더 잘 어울리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

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제력에 대해 잠깐 말하고 싶다. '노후의 삶=경제력'이라는 등식은 행복한 노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기본적인 경제력은 당연히 은퇴 뒤를 잘 보내기 위한 대전제다. 거기에는 건강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은퇴 뒤에 갑자기 주어진 수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심심찮게 본다. 이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덜 풍족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지내는 친구도 있다.

이제 나의 얘기를 끝낼 때가 됐다. 결론은 은퇴 뒤에도 스스로 즐길 수 있고, 주변에도 보탬이 되는 '보람 있는 일'을 미리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은 말한다.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 훨씬 어렵다고. 맞는 말이다. 직장 운동회에서 전력 질주하다 몸이 말을 안 들어 넘어지는 직원을 떠올려보자. 이런 사람은 대개 학창 시절 운동 꽤나 했던 부류다. 옛날 생각만 하고 세월이 흐른 건 의식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상사다. 자신이 운동을 잘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다. 은퇴 뒤의 삶에서 생각해볼 만하다. 너무 움츠려서도 안 되지만 오버하는 것 또한 경계할 일이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우리 선조는 일찍이 이런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다. OLP

독수리 날려 보내기

청춘을 다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안겨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겐 맞지 않고 키울 수 없는 독수리였다. 그 독수리를 미련 없이 날려 보내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게 독수리와 아버지 모두에게 비극을 안긴 거란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이든 소중하다고 여기는 크기만큼 그것을 놓는 일에는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이 다가오고, 인생의 흉터도 훨씬 커진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훌거분하지 않을까.



글. 고철중
OLP 7기
SBS 논설위원실장



경남 진양군에서 탈곡기, 풍로, 사료절단기, 가마니직조기 같은 농기계 제작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판매한 기계가 고장 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의령, 함안, 산청, 거창 등으로 출장 수리를 하셨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농촌 지역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도로는 비포장이었다.

저녁 늦게 수리를 끝내고 아버지는 캄캄한 비포장 산길을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를 서두르셨는데, 가끔씩 ‘포획물’을 가져오셨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꿩구기와 부엉이, 독수리이다. 돌이켜 보니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새끼들로 아마도 동지를 옮기는 이소 중에 어미를 잃고 길을 헤매다 도로에서 발견된 것 일게다. 이런 새들을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오면 나와 동생들은 환호했다.

2박스에 넣어 키우면서 벌레나 지렁이를 잡아서 넣어주기도 하고, 먹이를 먹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어미 잃은 새들은 아이들의 거친 손길에 얼마 견디지 못하고 얼마 안 돼 대부분 죽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이 독수리였다.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보다. 아버지께서 주워 오신 중담만한 독수리를 빈 닭장에 넣어 키웠다. 학교를 갔다 오면 개구리나 물뱀을 잡아다가 먹이로 줬다. 금방 죽어버린 다른 새들과 달리 독수리는 먹이를 곧잘 먹고 잘 자랐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깡깡 놀랄 정도로 몸집이 성장해서 날개를 펼치면 내 키보다도 훨씬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독수리는 나의 자부심이었다. 덩치도 덩치거니와 새 중에서도 가장 ‘썩’ 놈이었기에 마치 내가 독수리의 기운을 받아 슈퍼맨이 된 듯 신이 났다. 학교에 가셔도 독수리 생각뿐, 선생님의 목소리는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로 나가버리고 칠판에는 독수리가 날라다녔다. 가끔씩 꿈속에서도 독수리가 나타났는데, 하늘을 맴돌며 토끼와 꿩을 사냥해서 내게 갖다 줬다.

친구들은 그런 나를 한없이 부러워했다. 방과 후에 집에 돌아올 때면 독수리를 구경하려고 친구들이 먼저 집 앞에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철종아! 독수리 인제 놔줘라. 너무 오래 가둬서 키우면

저런 짐승은 죽는다.”

독수리가 위협적일 정도로 자라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지, 행여 독수리 돌보는데 혼이 빠져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지 염려가 돼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나의 자부심 독수리를 날려 보낸다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혼자 머리를 굴리다가 아버지께 제안했다.

“그러면 내가 진주로 전학 가기 전까지만 키울게요. 5학년 때 전학 가야되니까 2년만 더 키울게요. 허락해 주세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버지는 조금 더 키우는 걸 허락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독수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런 덩치로 닭장 속에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잡아주는 먹이도 어쩔 땐 제대로 먹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 말씀대로 봐 줄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절반쯤만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굶기가 가는 새끼줄로 독수리의 왼발을 묶었다.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과 날려 보내야 한다는 마음의 중간이 그 새끼줄이었다. 독수리를 안아서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 가지에 올린 뒤, 양손으로 새끼줄을 꼭 잡고 있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독수리는 내가 엮어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다음 날엔 새끼줄을 풀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려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냥 풀 어났어도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길들여진 탓이었다. 사람의 손에서 자란 야생동물은 요즘 동물보호소에서 그렇게 하듯 먹이 사냥을 비롯해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게 수많은 훈련을 거친 뒤 놓아줘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터인데, 그걸 모르고 홀연히 날아갈까 염려했던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랐지만, 그때 내 마음은 다행이었다. 끝까지 키워야 할 확실한 명분이 생겨서였다. 결국 독수리를 다시 닭장에 넣었다.

그해 장마는 유독 비도 많이 오고 길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를 갔다 와서 닭장을 살펴보니 저 구석에서 나의 독수리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비를 훌쩍 맞고 몸이 전부 젖어있었다. 닭장 위쪽을 살펴보니, 파손된 지붕 틈새 사이로 빗물이 정신없이 쏟아졌다.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먹이를 기대하던 모습은 간 데 없고, 독수리는 날개를 반쯤 펼치고 머리를 앞으



로 늘어뜨린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닭장 안의 비위생적 환경에다 오랫동안 비를 맞은 것이 자연 상태에서 면역력을 키우지 못한 독수리에게 치명상을 입힌 거였다. 아무튼 독수리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

독수리 키우기는 '새드엔딩'으로 끝났지만, 지금까지 인생길의 짙은 여운으로 남아 있다. 가끔씩 떠나보내야 할 것,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할 때 나의 독수리를 떠올리게 된다. 독수리를 봐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날아가 버릴까 봐 새끼줄을 묶었던 것처럼, 놓아야 할 많은 것들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무언가를 봐주고 내려놓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내 곁에 두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떠나가려 할 때, 혹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여겨지는 성공과 지위, 재물이 자꾸 나를 피할 때, 그것을 훌훌 털고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성엔 이제 그만 놓으라고 설득하지만, 감성은 붙잡고 있으라고 속삭인다.

얼마 전, 선산을 다녀오며 옛 고향 집을 들린 적이 있다. 집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독수리가 있던 닭장은 사라지고, 마당에 있던 감나무도 모두 베어지고 없었다. 낡아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공장 건물 일부와 주택 한 부분만 남아 있었다. 마음이 착잡했다.

거기서 아버지께선 몇 번의 사업실패를 겪으면서 건강

을 해쳐 40대 중반의 젊디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셨다. 아버지는 오랜 고통 속에서 얻은 인생의 쓰디쓴 교훈을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큰아들인 내게 말씀하셨다.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지 말거라.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라. 흘러가다 보면 새길이 보이는데 그러지 못했네.”

청춘을 다 바치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안겨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겐 맞지 않고 키울 수 없는 독수리였다. 그 독수리를 미련 없이 날려 보내지 못하고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게 독수리와 아버지 모두에게 비극을 안긴 거란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이든 소중하다고 여기는 크기만큼 그것을 놓는 일에는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이 다가오고, 인생의 흉터도 훨씬 커진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훌가분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려놔야 할 것들이 참 많다. 높이 올라왔던 성공의 목표도, 자식에 대한 집착도, 인간관계에서의 기대감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도. 때가 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훌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곁에 둘 수 없는 독수리는 훌훌 떠나보내는 게 나에게도 독수리에게도 이롭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게 꼭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달리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또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OLP



글. 정세용
OLP 27기
내일신문 논설고문

지난해 12월 26일, 나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내일신문 사옥 편집국에서 열린 주례 사원조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사람은 떠나야 할 때 잘 떠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적절한 때 주필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영광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부모님이 주신 교훈이 정직과 성실이었다면 결혼한 이후 5년 전 세상을 떠난 와이프와 두 아들에게 우리 가훈은 겸손과 당당이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좌우명을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를 지키려 노력했음을 지금, 이 순간 밝히고 싶다”라며 후배들에게도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오피니언면 편집과 조판을 마치고 그날 오후 주필실에 있던 사물을 챙겨 정들었던 주필실을 떠났다. 올해 1월 1일 자로 나는 내일신문 논설 고문 발령을 받았지만 매일 출근하지는 않는다. 매주 시론과 칼럼을 집필해 후임인 남봉우 논설 주간에게 송고하면 되는 것이다. 1981년 5월 서울신문에 입사해 시작한 나의 ‘신문기자’ 생활을 마감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논설 고문으로 글을 쓰고 앞으로 적어도 몇 년간은 논설 고문으로 글을 쓰면서 살고 싶지만, 나의 ‘언론사 월급쟁이’ 시대는 끝난 것이다. 세 군데 신문사에 서만 보낸 월급쟁이 시절을 마감한 것이다.

퇴임식에서 내일신문 동료들에게 처음 밝혔지만 지난 5년간 내일





신문 밖 언론계에서 나에게 붙여준 별명은 만년 주필이라는 '만년필'이었다. 아마 5년 전이었던 것 같다. 한국일보 주필을 역임한 언론계 후배 정병진 형이 “나는 한국일보 주필을 두 번 해 리필이라면 정 선배는 주필을 10년이나 하고 있으니 만년필이 아니냐”고 말한 뒤 언론계 동료나 후배들은 나를 만년필이라고 호칭하며 ‘장수’를 축하했다.

사실 그 당시 내가 주필을 10년이나 한 것은 아니다. 2001년 10월 내일신문에 편집위원으로 입사한 뒤 2002년 편집국장 그리고 2004년 논설주간으로 임명된 뒤 주필이 된 것은 아마 2009년이였다. 그러나 논설주간이나 주필이라는 역할이 같았기에 정병진 형은 10년 이상 주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년필이라는 별명을 지워준 것이리라. 다른 일간신문의 경우 매년 수습기자를 뽑는 관계로 주필직을 2년 내지 3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천관우, 선우휘, 최석채 선배 등 그 유명한 언론인의 경우만 아마 4~5년 주필직을 역임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내가 논설주간과 주필을 한 기간이 만 15년이니 언론인으로 나는 참 행운아였던 것 같다.

후배 언론인들은 정 선배가 아마 주필직 한국 신기록 보유자일 것이라고 나를 치켜세웠고 어떤 후배는 아시아 신기록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일본 특파원을 역임한 한 선배 언론인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회장 겸 주필인 와타나베씨가 30년 이상 주필직에 있다며

다시는 아시아 신기록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한겨레신문 후배는 정 선배의 ‘만년필’ 기록은 한국언론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치 관련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으니 이것도 ‘신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람 인연은 참 묘한 것인 것 같다. 나의 기자 생활은 아마 지금부터 52년 전인 1968년에 정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얼마 전까지도 근무하던 회사 터 옆에는 과거 사라진 서울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경희궁 터이다.

공부 잘하는 형의 경기고 진학 관계로 1963년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나는 어머니의 교육열 덕택에 위장전입을 해 당시 명문이던 수송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중3 시절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10등 안팎이었기에 무난히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할 줄 알았으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후기였던 중동고교에 진학한 나는 내성적인 문학 청년이 되어 조그만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벗 삼아 동일계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우울함을 달랬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 학교 신문사 견습기자 시험을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일류고교에 낙방한 열등감을 학교 신문과 교지를 만드는 데서 해소하려 했던 사춘기였다. 학교 공부보다는 신문 만드는데 열성인 시간은 고3 때

중3 시절 모의고사에서 반에서 10등 안팎이었기에 무난히 서울고등학교에 진학할 줄 알았으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후기였던 중동고교에 진학한 나는 내성적인 문학청년이 되어 조그만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벗 삼아 동일계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우울함을 달랬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 학교 신문사 견습기자 시험을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일류고교에 낙방한 열등감을 학교 신문과 교지를 만드는 데서 해소하려 했던 사춘기였다. 학교 공부보다는 신문 만드는데 열성인 시간은 고3 때까지 계속됐다.

까지 계속됐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탓에 대학입시 첫해는 당연히 낙방이었다. 다행인가. 친한 고교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낙방해 나는 당시 유명 재수학원이던 대성학원에 즐겁게 다녔고, 결국 말석으로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에 재수 끝에 1972년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꿈같은 대학 프레시맨 시절. 우울한 군사독재 시절이었지만 젊은이였기에 혁명을 꿈꾸기도 했지만, 미팅도 많이 했다. 고교 동창들과 어울려 당시 거의 유일한 젊은이의 광장이던 명동을 쏘다니기도 했다. 서울 중구 삼각동(을지로 입구)의 삼각다방과 아폴로 음악감상실이 나의 아지트였다.

그러나 개 버릇 못 버린다고. 당시 서울대 교양과정부 교지인 '향연' 편집위원이 된 나는 우울한 현실에 대한 울분으로 보내고, 마침내 박정희가 1972년 12월 17일 유신독재를 선포한 뒤로는 편집위원 동료들과 모의를 하다가도 소심함이 발동해 곧 '독방'으로 숨어버렸다. 결국, 꿈 많던 대학 1학년은 그냥 지나갔다.

1973년 그렇게 그리던 종로구 동숭동 시절.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친구들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뒤 나는 전공인 철학보다 문학에 빠져들었다. 문리대 문학회에 가입해 지금은 당대의 시인이 된 이성복, 황지우, 김정환과 김도연(작가, 문학평론가) 김석희(소설가, 번역가), 김주언(언론인) 등과 자주 어울렸다. 수업은 하루에 한두 시간 듣고 곧바로 학림다방과 국밥집 유청담으로 향했다. 막걸리와 소주에 취하고 노래하고 음악 듣고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떠들고. 당시 계간지 '문학과 지성' '창작과 비평'은 문학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도 했다.

철학을 포기하고 문학에 심취하며 '독방'에 머물러 있을 때 친구들은 꾸준히 모의하고 있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된 72학번 동기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민생당 의원), 박우섭 등은 1973년 10월과 1974년 4월 군대로 감방으로 끌려간다. 혁명에 참여할 용기는 없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고민은 쌓여만 갔고 결국 나는 1974년 봄 뒤늦게 서울대 대학신문사에 입사한다.

대학신문사에 들어간 뒤로는 철학도 문학도 포기하고 당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의대 구내에 있던 대학신문사 편집국이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과거 서울대 대학신문사의 경우 학생 기자의 경우도 월급이 꽤 괜찮아 그 돈으로 호주머니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막걸리값과 커피값을 내주는 것이 나의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울대가 관악산으로 이전한 1975년 5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다. 친한 친구인 김도연과 김정환마저 감방으로 끌려가고 그들의 소극적





후배들에게 곧잘 내가 싫어하던 훈계도 한 것 같다. 요지는 “기자는 부지런해야 하고 글을 잘 써야 하고, 사교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내일신문에 온 뒤에는 “기자는 균형감과 순발력,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후배들에게 말했다. 그런 말을 자주 한 내가 요즘 부끄러워진다. ‘만년필’이란 별명을 얻었지만, 과연 나는 성공한 언론인인가.

지지자였던 나의 은평구 대조동 집마저 정밀수색을 당한다. 서울 동부경찰서에서 며칠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중대하지 않아서인지 나는 방면됐다. 그 뒤 바로 대학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무위도식하다 1976년 2월 친구들이 대부분 모습을 감춘 관악산에서 졸업식을 한다.

철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는지. 나는 어이없게도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했고, 마침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하던 서울대 대학신문은 전임기자 편집국장으로 나를 불렀다. 대학원 2년 내내 철학 공부는 포기한 채 도서관 6층에 있던 대학신문사에서 나의 20대 중반은 빨리 흘러갔다. 당시 대학신문사 주간이나 지도교수였던 김영국, 이홍구, 김학준(정치학과), 김채운(사회학과), 황동규(영문과), 김현(불문과), 조완규(동물학과), 임종철(경제학과), 정원식(교육학과) 교수와도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젊음이 흐르다 보면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은 꼭 한번 군대에 닿는다. “친구들은 감방에서 고생하거나 고생했는데”라며 즐병으로 씩기로 결심한 나는 충남 논산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실무 교육을 마치고 한탄강 인근의 포병단 본부에 배치된다. 나는 고생하겠다는 각오와는 달리 정보상황병으로 그리고 측지병으로 정말 편하게 군대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다.

제대 후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 잠시 근무하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1년 봄 우연히 서울신문을 보다 수습기자 모집 광고를 접하고 시험에 응시했고 끝까지 입사하게 된다. 다른 동기들보다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한

탓에 선배들의 귀여움을 꽤나 받았던 것 같다. 수습기자 시절부터 1진(서울 노량진 경찰서 서울대 출입) 생활을 했고 수습기자 입사 4년만인 1985년에는 고참 차장이 나가는 문교부(현 교육부)에 출입하며 많은 기사를 썼다. 당시 서울신문 사회부장이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역임한 유승삼 선배인데 유 선배는 내 철학과 선배인 데다 대학신문 전임기자 편집국장 시절부터 아는 인연 때문인지 나에게 많은 기사를 쓸 기회를 주기도 했다.

서울신문에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던 탓인지 다른 신문사로 옮길 것으로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서울신문이 정부가 소유한 신문인 관계로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당시는 전두환 독재 시절로 동아일보 등 다른 신문도 신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시절인지라 서울신문에서 정년퇴직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분위기에 국민이 만든 신문인 한겨레신문이 탄생한다. 아마 1988년 4월 말이었던 것 같다. 당시 서울신문에서 일하다 먼저 한겨레신문으로 옮긴 이용식 후배(현 문화일보 주필)가 만나자고 하더니 한겨레신문 정치부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한다.

당시 열흘 이상 고민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근무하던 아이들 엄마는 한겨레신문으로 옮길 것에 동의했으나 일부 친구들은 “너는 온순한 성격인데 아마 강성인 물들이 모인 한겨레에서 잘 견디겠느냐”며 반대했다. 고민 끝에 한겨레신문 창간 전날인 1988년 5월 13일 저녁

당시 한겨레신문 정치부 차장이던 이원섭 선배한테 내일 출근하겠다고 연락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4일 첫 출근해 한겨레신문 창간호 제작에 참여한다. 당시 정치부장이 성한표 선배이고 정치부 동료 기자가 김효순, 윤국한, 박병찬, 강철원, 최영선, 윤석인, 여현호, 최보은 등이다.

일간신문 '기자' 40년 동안 가장 기사를 많이 쓴 시기는 아마 서울신문 문고부 기자 시절이었을 것이다. 부장은 1면 머리기사가 없다며 나를 자주 찾았고 그럴 때 나는 생각해놓았던 몇 가지 아이템에서 보충취재를 조금 한 뒤 1면 머리 기사를 송고했다. 그러나 기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절은 아마 한겨레 정치부 기자와 차장이던 1988년~1990년, 1992년~1994년, 1995년~1996년이 아니었던가 싶다. 6월항쟁 이후 국민 성금으로 국민의 사랑 속에 태어났기에 '사주'도 없었고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없이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편집하고 제작하던 시절이었다. 일찍 차장으로 승진해 신문사 안에서 데스크를 보느라 많은 기사를 쓰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훌륭한 선배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조를 조정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상당수 사람들은 나를 한겨레맨으로 오해한다.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나이 황금 시절 한겨레에서 근무했기에 그 당시 나를 만났던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나를 한겨레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에서 13년을 일했다면 2001년 5월 한겨레 논설위원을 끝으로 한겨레를 퇴직하고 그해 가을 내일신문에 입사했으니 18년을 내일신문에서 근무한 나는 한겨레맨 이라기 보다 내일

신문 맨으로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내일신문 편집국장 시절 일간신문 초기 제작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도 조금 있고 논설주간과 주필을 오래 역임하면서 유능한 많은 언론계 선배들을 필진으로 모셔 내일신문 성가를 조금 높이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는 긍지도 조금 갖는다. 한국 일간신문의 경우 너무 좌편향이나 우편향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내일신문은 진보적인 신문이 아니라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신문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내 일을 하며 내일을 지향하는 신문으로 균형 감각이 있는 신문'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긍지를 갖기도 한다. 역사적 혜안이 있고 경영 감각도 뛰어난 장명국 사장님과 엄청난 인격자인 이옥경 부사장님을 모시고 김진동(한국일보), 임춘웅(서울신문), 문창재(한국일보), 박현채(연합뉴스), 이원섭(한겨레신문) 등을 논설 고문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내일신문은 석간인지라 일찍 출근해야 한다. 2002년 편집국장에 취임한 이후 나는 새벽 4시면 깨야 했다. 편집국장 시절 새벽 5시에는 집에서 떠나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설주간이 된 이후로는 새벽 4시에 깨면 충분했지만, 편집국장 시절에는 당일 신문 1면 걱정에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등 하루에 3~4시간을 자는 것이 다반사였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밤 10시면 취침하고 새벽 2시나 3시면 깨는 등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내가 한겨레신문 사회부장이 된 것이 1997년인 것 같다. 그 이후 후배들에게 곧잘 내가 싫어하던 훈계도 한 것 같다. 요지는 "기자는 부지런해야 하고 글을 잘 써야 하고, 사교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내일신문에 온 뒤에는 "기자는 균형감과 순발력,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후배들에게 말했다. 그런 말을 자주 한 내가 요즘 부끄러워진다. '만년필'이란 별명을 얻었지만, 과연 나는 성공한 언론인인가.

1981년부터 2019년, 아니 한편으로 보면 1968년부터 2019년까지, 참 오래 기자 생활했다. 내 친구인 시인 황지우 지적처럼 '내 인생 8할은 바람'이 아니라 '내 인생 8할은 신문'이었다. **OLP**



人生流轉… 다시 ‘막기자’로



글. 이준구
OLP 1기
뉴시스 경기 남부본부 기자



‘종잇밥’을 먹은 지 어느덧 30여 년이 훨씬 넘었다. ‘종잇밥’은 종이의 가장자리를 가지런히 벨 때 나오는 종이 부스러기를 말하지만 ‘신문쟁이’ 동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신문쟁이’ 또한 신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이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초임 기자 시절 출입처의 한 어르신은 “종이장사들 때문에 못 살겠어.” 하시며 신문 기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초 ‘대기자(大記者)’라는 직책으로 사설과 칼럼을 집필하고 있을 때다. 곧 정년이어서 글이나 좀 더 쓰다가 사회생활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인일보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잠시 만나자고 전화가 왔다. 그 후배는 사회부장까지 하다가 회사를 나와 통신사의 지역 본부를 인수, 경영하고 있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 11회로 아직까지 전국 최다수상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후배다. 지역본부이지만 독립법인의 형태를 갖춘 구조였다.

난데없이 “선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지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분은 우리나라 스포츠기자 1호 조동표 선배였다. 1949년 KBS에 입사했던 그는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체

육부장 논설위원을 거친 분으로 지난 2012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5년생이니 작고한 나의 부친과 동갑이시다.

경인일보 체육부 기자 시절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가 수원에서 열렸다. 서류 가방을 든 조 선배는 당시 65세의 연세의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육상경기가 열리는 주 경기장을 종횡무진하셨다. 이듬해인 1990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수단과 기자단이 두 대의 대한항공 특별기에 타고 서해 상공을 거쳐 중국 대륙 상공 발해만을 거쳐 아주 특별(?)하게 직항으로 날아갔다.

당시는 중국과 수교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을 가려면 홍콩을 거쳐서 갔던 시기다. KAL기의 기장 역시 이 항로는 처음이라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이 지금 내려다보시는 곳이 발해만입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내방송을 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베이징아시아게임에서 역시 북경의 각 경기장을 바삐 움직이시던 조 선배를 거기서 또 만났다. 아, 이분은 뺏속까지 기자이시구나. 이분으로 하여금 나는 순간 용기를 냈던 것이다.

조동표 선배는 80세가 훨씬 넘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던 영원한 기자였기에 나의 귀감이 됐다. 기사는 ‘발’로 쓰라 했던가? 이를 실천했던 분이기에 더욱 그랬다.

막기자로 환갑의 나이에 뉴시스에 입사한 지 꼭 1년 6

개월이 됐다. '막기자'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지는 않는다. 일본어로 표현해서 안 됐지만 초임 기자들을 흔히 '사쓰마와리(察回り)'라고 한다. 취재거리나 보고거리 수집을 위해 경찰서나 파출소를 순시한다는 얘기로 일명 '막기자'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부른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지난 1년 6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특히 신문사 생활 30여 년 동안 꼬박 본사에서만 근무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역 주재 기자를 한 번쯤 했을 걸 하는 후회도 했다. 지역을 담당하는 건 처음인 데다 같은 통신사인 Y사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4~5곳을 맡는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다. 때로는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다. 용인, 성남, 광주, 이천, 여주 등 다섯 군데에서 들어오는 보도자료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늘 빠듯하다. 괜찮은 자료는 보충취재도 해야 하고 때로는 현장에도 자주 나가야 한다. 어느 날은 세 군데를 한꺼번에 돌아보기도 한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다 보면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터넷 시대인 요즘은 다 그렇겠지만 특히 통신사 기자는 마감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기사는 그때그때 24시간 송고해야 하는 때도 있다. 그래도 '물 만난 고기'처럼 옛 시절로 돌아가 있는 게 늘 새롭다. 보도자료가 주를 이루지만 하루 송고량은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20여 건이 넘을 때도 있다.

후배들이 "이 선배 미쳤어요? 쉬엄쉬엄하세요." "부장이 된 이후에 20여 년 못 썼던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느라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요령 피우지 않고 나이 들어 이리저리 뛰는 나의 모습을 보는 후배들은 '물모델'로 삼아주기도 해 고맙기는 하다.

조동표 선배처럼 '뺏속까지 기자'는 아닐지라도, 언젠가 지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하던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만화영화사에서 잠시 일했으나 회사를 뛰쳐나와 신문 방송 등 수 많은 언론사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최종 면접까지도 간 곳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기자와는 인연이 없는 듯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등학교 선생이 됐다. 이도 3년 가까이 하고 나니 싫증이 났다. 선생을 하면서도 수습 기자시험에 계속 응시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글쟁이'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재수 끝에 경인일보에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뭘 듯이 기뻐

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신문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동기들보다는 입사가 좀 늦었지만, 열심히 했다. 만 30세가 되던 해에 언론계에 발을 디딘 나는 신문사 근무 25년째 되던 해 편집국장의 직을 떠나게 됐다. 4반세기 동안의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12년 3월 대학 강단에 서게 됐다. 3년간 교양필수과목인 '글쓰기'를 가르쳤다.

그러나 아무래도 '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5년 2월 말 학교를 떠났다. 이 결심은 사실 꽤 됐다.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내가 쓰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어떻든 대학에서의 外道(?)는 내 인생에 많은 경험이 됐다. 비록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말로만 듣던 대학이라는 사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것이다. 이제 다시 현장 기자로 다시 돌아왔다. 꽤기 넘치던 젊은 시절 만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현장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자고 나면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늘 상 겪는 희로애락(喜怒哀樂)들이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내가 맡은 지역 가운데 어디서 나왔는지 가장 궁금하다. 그리고 또 늘 걱정이다.

만화영화사-고교 교사-기자-교수-그리고 다시 기자로 돌아온 人生流轉. 세상 속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면에 나누고 싶다. 그리고 새내기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영원한 막기자가 되고자 한다. OLP



일곱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



글. 이용웅
OLP 7기
포켓프레스 발행인

아름다운
프레임
(frame)

‘프레임 법칙(法則)’이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다.

어느 지역의 시장통을 거쳐 가는 버스에는 늘 승객들이 만원입니다. 보따리마다 주고받은 정을 받아 온다고들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입니다. 한참을 달리든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그치겠지’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세 정거장을 거쳐 올 때까지도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슬슬 화가 난 승객들은 여기저기서 “아줌마 애기 좀 잘 달래 봐요.” “버스 전세 냈나” “이봐요, 아줌마 내려서 택시 타고 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짜증 나... 정말” 아기를 업은 아줌마에 대한 원성으로 화난 표정들이 버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차가 멈추어 섭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기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문을 열고 나가서는 무언가를 사들고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간 버스기사는 긴 막대사탕의 비닐을 벗겨 아기 입에 물려주니 그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맙니다. 다시 버스는 출발을 했고 버스 안에 승객들은 차츰 웃음이 번져 나왔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아이 엄마는 버스기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수화로 고마움을 표현한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내린 뒤 버스기사는 아주머니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의 불빛을 멀리 비추어 주고 있었어도 누구하나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어느 한 마을이 전쟁으로 인해 상대방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꿈쩍없이 포로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살길이 없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풀어줄 것이니 이 마을을 떠나라. 각자가 소중한 여기는 보물 한 개씩만 지니고 나가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며 모두가 가장 소중한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을 들고 나섰습니다. 주로 금반지, 목걸이, 은수저, 옷가지 등을 보따리에 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약해 보이는 한 여인은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상히 여겨 보따리를 헤쳐 보니 웬 남자 한 명이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제 남편입니다.”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가?”

적의 장수가 위협을 가하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적군의 장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지혜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하여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배려

전쟁에서 승리한 강감찬 장군을 위해 왕이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주연이 무르익고, 술이 한 순배 돌고 난 뒤, 밥 그릇 뚜껑을 열던 강감찬 장군은 밥그릇 안에 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밥을 다시 가져오라고 호통치면서 주방장을 혼내 줄만도 했지만, 장군은 그냥 조용히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장을 불러 밥그릇에 밥이

비었음을 말한 후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장군이 들어가 자리에 앉자 주방장이 들어와 “오래 자리를 비워 밥이 식었을 것인즉, 다시 따뜻한 밥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빈 밥그릇을 가지고 나간 후 새 밥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배려와 기지로 주방장은 중형을 면할 수 있었답니다.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 3%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분노를 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현인의 자존심

한 현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인을 찾아가 ‘산을 불러보라!’고 외쳤습니다. 현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산 양반! 잠깐 이쪽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산은 끄떡도 하지 않고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인은 몇 번 더 산을 불러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현인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다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산을 불렀지만 산이 오지 않으니 내가 그리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의 청년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물관에 임시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남보다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청년은 바닥을 닦으며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바닥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자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박물관이잖아요.”

그는 성실성을 인정받아 박물관의 정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탐험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관장까지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그의 다양한 일화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에피소드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올 것이다.’

재봉사의 간판

뉴욕의 한 거리에 옷 수선을 하는 가게 3곳이 있었습니다. 모두 솜씨가 괜찮았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3곳 모두 손님 유치를 위해 가게 간판을 멋지게 만들어 내걸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뉴욕 최고의 재봉사!’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이 간판을 보더니 이튿날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재봉사!’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세 번째 가게의 주인은 유태인이었는데, 멀리 출장을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손님들을 뺏기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속이 상해 밥을 먹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유태인 재봉사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로부터 심각한(?) 상황을 전해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걱정할 게 없다고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다음날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새

김화백의
에이 **

로운 고객들이 몰려와 장사가 전보다 훨씬 잘됐습니다. 옆 가게들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간판에 걸린 글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뛰어난 재봉사!’

그림을 그리는 김 화백과 이 화백이 있었는데, 계파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김 화백은 사석에서 이 화백 얘기만 나오면 ‘개새끼’ ‘그 새끼’라고 지칭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해 전람회가 열려 김 화백이 심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어 마지막 두 작품이 남았고, 최종 결정권은 김 화백에게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 중 하나는 이 화백이 출품한 것이었습니다. 심사 위원들은 당연히 이 화백의 작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결정의 순간이 오자 김 화백이 두 작품 앞을 오가며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 화백의 작품을 볼 때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한참 동안 그림을 감상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개새끼!”

그리고 잠시 뜬눈을 들이더니 한마디 더합니다.

“그래도 그림 하나는 정말 잘 그려. 에이**”

전람회의 대상은 결국 이 화백의 차지였습니다. **OLP**

여담, 경상도 사람들만이 아는 한자성어

- 01 臥以來算老(와이래산노) ▶ 었드려서 오는 세월 헤아리며 기다린다
(인생무상, 늙어감을 헤아린다는 뜻)
- 02 雨夜屯冬(우야둔동) ▶ 비오는 밤에 겨울 기다리듯이
- 03 母夏時勞(모하시노) ▶ 어머니는 여름에 힘드신다
- 04 苦魔害拳(고마해라) ▶ 나쁜 마귀가 나를 해치려 붙잡는다
- 05 氷時色氣(빙시색기) ▶ 얼음이 얼때 색과 기가 되살아나니
- 06 知刺汗多(지랄한다) ▶ 아는 것이 어그러지면 할 일 없이 땀만 많이 흘린다
- 07 文登自皙(문등자석) ▶ 문장의 길에 오르면 스스로 밝아지는도다
- 08 謀樂何老(모락하노) ▶ 즐거움을 도모하니 어찌 늙으리오
- 09 牛野樂高(우야락고) ▶ 소치는 들판에 즐거움이 높도다
- 10 澤度儼多(택도엄다) ▶ 법도를 가려 의젓함이 많다
- 11 熙夜多擘(희야다나) ▶ 달 밝은 밤에 생각에 붙잡힘이 많구나
- 12 無樂奚算老(무락해산노) ▶ 낙이 없으니 어찌 늙음을 따지리오
- 13 尼雨夜樂苦移裸老(니우야락고이라노) ▶ 대저 비오는 밤 기쁨과 슬픔에 헐벗은 노인 근심케 하네
- 14 文登歌詩那也(문디가시나야) ▶ 시에에 올라서니 노래와 시가 어찌나오노
- 15 天地百歌異(천지백가리) ▶ 천지에 백가지 노래가 다르니라
- 16 苦魔濁世里不擘(고마탁세리불라) ▶ 고통과 마귀가 흐린 세상에 붙잡히는구나.

OPINION LEADERS PROGRAM

Travel Essay

**드라이빙 시칠리아,
Arrivederci mio amore!**

신동욱 OLP 5기

유대 최후 항전지 - 마사다

오원정 OLP 11기

지중해 크루즈 선에 올라 퍼진 평화의 합창

이용식 OLP 1기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다

김경곤 OLP 10기

침삭되길 원하는 여행 노트 중국 편

안경호 OLP 12기

**편안하고 이색적인 크루즈 여행,
기존 가격의 반값으로 즐기는 방법**

윤석구 OLP 8기

프레시디오 공원, 가다

박연직 OLP 20기



시칠리아 여행기 » 드라이빙 시칠리아, Arrivederci mio amore!



지난 겨울 방학에 파리 여행을 준비했다. 그런데 12월 초에 시작한 프랑스 공공 노조의 파업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현지인들이야 교통이 전면 마비되는 파업에 이골이 났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금쪽령이나 마찬가지다. 플랜 B가 필요했다. 얼마 전 TV에서 본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가 생각났다. 팔레르모 야시장 길거리에서 곱창을 굽는 연기가 일순간 나의 후각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듯했다.

그래 거기다. 시칠리아로 가자!

역삼각형 모양의 시칠리아섬은 크기가 제주도의 14배쯤이다. 전라남북도를 합친 면적보다 조금 더 크다. 카타니아로 들어가 타오르미나 → 에트나 화산 지대 → 팔레르모 → 체팔루 → 아그리첸토 → 시라쿠사를 지나 카타니아에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10박 11일의 일정을 짰다. 파리에서 사흘을 보낸 뒤 1월 10일 시칠리아행 비행기를 탔다.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해 밀라노를 거쳐 시칠리아 서부 중심 도시 카타니아로 들어가는 알리탈리아 항공편이다. 밀라노 공항에서 맞본 본고장의 일리 커피는 이탈리아 여행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 주었다.

카타니아 공항에서 예약한 렌터카(피아트 티로 디젤)를 몰고 타오르미나로 출



글. 신동욱
OLP 5기
한림대학교 초빙교수



카타니아 공항에서 예약한 렌터카(피아트 티로 디젤)를 몰고 타오르미나로 출발, 구글 맵을 켜고 목적지를 맞추니 한국말 안내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안내, 말이 좀 짧다. '잠시 후 고속도로 출구로 나갑니다'가 아니라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 이런 식이다. "그래 그대가 좀 바쁜 모양이구나. 내가 이해하지, 이번 여행길 안내 잘 부탁해."

발, 구글 맵을 켜고 목적지를 맞추니 한국말 안내가 나온다. 그런데 이 안내, 말이 좀 짧다. '잠시 후 고속도로 출구로 나갑니다'가 아니라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 이런 식이다. "그래 그대가 좀 바쁜 모양이구나. 내가 이해하지, 이번 여행길 안내 잘 부탁해."

이탈리아 사람들의 운전은 거칠기로 유명하다. 도로 상태도 그리 양호한 편이 못 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지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질주하기 일쑤다. 이탈리아에서 운전 했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운전엔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환갑 넘긴 나이에 이탈리아에서 운전 한번 해보는 것도 큰 도전이자 보람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조심, 방어 운전 모드에 들어갔다.

타오르미나(Taormina), 바위산에 걸린 아픈 풍경화

타오르미나는 해발 450m 타우로 산 아래 해변부터 중

턱을 거쳐 정상까지 형성된 작은 도시이다. 마치 집과 건물들이 빼곡히 줄지어서 바위산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현지 사람들은 해변에 있는 낙소스를 1층, 그 위에 타오르미나를 2층, 더 높이 산꼭대기 카스텔라 몰사를 3층이라고 부른다. 산 정상에 서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다. 황홀한 '천공의 성'이다.

시칠리아는 역사적으로 여러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가 끊이지 않았다.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인들이 처음 이주한 이후 카르타고, 로마제국, 비잔틴, 이슬람제국, 노르만과 스페인 아라곤 왕국, 프랑스 부르봉 왕조까지, 그때마다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신음해야 했다. 바다를 건너오는 이민족의 공격을 피해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던 아픈 역사가 층층이 쌓여 오늘의 아름다운 타오르미나의 경관을 만들어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보게 되는지를 반문하

게 되는 곳, 어느 시칠리아 여행책의 한 구절에 공감했다.

타오르미나의 상징이자 여행의 압권은 고대 그리스 극장이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인이 건설했고 로마 시대에 복원한 것이다. 오전 9시 개관 시간에 맞춰 그리스 극장으로 향했다. 정문이 있긴 했지만 발길이 극장 옆문에 닿은 탓에 중간 높이에서 첫눈에 극장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무대 양쪽 벽과 기둥 사이로 에트나 화산이 정면에 우뚝 서 있고 왼편에는 짙은 코발트블루의 지중해가 펼쳐졌다.

2017년 5월 G7 정상회담이 이곳 타오르미나에서 열렸다. 축하 공연 무대가 설치된 그리스 극장에 아름다운 오페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졌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봉을 잡았다. 3000년 문명이 응축된 타오르미나의 역사의 현장에서 지구촌 정상들에게 화합과 평화를 촉구하는 우아하면서도 묵직한 메시지가였다. 그날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아직 사람 없는 이른 시간의 그리스 극장을 만끽했다. 요즘 여행은 유튜브가 훌륭한 동반자다.

에트나(Etna) 화산, 살아 숨 쉬는 시칠리아의 영혼

에트나를 빼고 시칠리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오르미나에서 50분가량 남쪽으로 차를 달려 자페라나 지역에 있는 무르고(Murgo) 포도농원에 짐을 풀었다. 객실에는 웰컴 테이블이 차려져 있다. 각종 치즈와 잼, 살라미, 올리브, 가지 절임의 로컬푸드 한상차림이다. 냉장고엔 무르고 와인 2병(레드 와인과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까지! 시칠리아 시골 농부의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다. 낮이지만 와인도 한잔 곁들이고 나니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다. 포도농원의 1월은 한해 수확을 끝내고 땅이 쉬는 시간이다. 그래도 농부들은 땅에 거름을 치고 가지치기를 한다. 묘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이런 시기에 한적한 겨울 포도밭을 이리저리 산책하는 것은 번잡한 문화 유적지를 구경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묘미이다. 살아있는 생명들의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눈을 덮어쓴 에트나 화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간밤에 내린 비가 눈이 되어 쌓인 것이다. 분화구 위로는 하얀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솟아 피어 올랐다. 비수기의 포도농원에 유일한 숙박객이었던 우리 일행 세 사람을 위한 아침 밥상이 황송할 만큼 푸짐했다. 차를 몰아 에트나로 향했다. 굽이굽이 1시간쯤 산길을 오르니 검은 용암지대가 나타났다. 주차장에 차를 놓고 케이블카로 해

발 2천 5백 미터까지 올라갔다. 에트나 화산이 해발 3천 3백 미터가 좀 넘으니까 7부 능선 이상 오른 것이다, 검은 용암과 흰 눈의 대비는 생각보다 강렬했다. 예상치 못한 활화산에서의 눈길 트레킹이라니, 역시 여행도 운이 따라야 한다.

에트나 화산지대는 지질학적으로 이베리아 판과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사방에서 마주치고 충돌한다.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땅이 갈라지고 산이 폭발한다. 세계의 지질학자들에게는 직접 땅속의 용암 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력의 포인트이기도 하다. 분화구 바로 옆에서 지질학자들이 상주하며 연구하는 지하 병커는 화산이 폭발해도 안전하게 보호, 구조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화산 자체가 엄청난 관광자원인면서 라바(lava)라고 불리는 용암 덩어리는 값비싼 건축 자재로 쓰인다고 하니 자연 관광지에 문화재에 '화산재'에 이르기까지, 시칠리아인들의 조상 덕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마피아의 고장, '대부'와 '시네마 천국'

시칠리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마피아다. 영화 <대부> 탓이기도 하다. 시칠리아 내륙의 구릉 지대를 달리며 본 건 수없는 레몬 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이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농민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레몬 나무는 물 공급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약한 가



팔레르모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마시모 오페라 극장은 <대부> 3편 마지막 장면의 무대로 쓰였다. 알 파치노의 딸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극장 앞 계단에서 충격을 당해 숨지는 장면이다. 딸을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알 파치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마시모 극장은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손꼽힌다.

몸에도 취약하다. 생산량 조절이 어렵다. 마피아 조직은 이런 약점을 악용해 농민들을 갈취했다. 레몬 보관 사업을 장악해 창고 사용료를 턱없이 비싸게 책긴 것이다. 무솔리니 파시 시트 독재 시절에 마피아 조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미국으로 몸을 피했다. 남아 있던 세력도 이천년대 들어 보스들이 잇달아 검거돼 옥중 사망하자 힘이 빠졌다. 당시 정부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단체들도 마피아 척결에 발 벗고 나섰다. 팔레르모 시내 거리에는 요즘도 'NO MAFIA'라고 쓴 벽보들이 눈에 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별생각 없이 마피아에 관해 물으면 표정이 좋지 않다. 서양 사람이 서울에 와서 '개고기' 얘기 꺼내는 식이다. 이제 마피아는 적어도 지나가는 관광객에게는 영화의 추억과 캐릭터 상품으로 남아 있다. 나도 지난해 쿠킹 스쿨에 다닌 기억이 되살아나 말론 브랜드의 얼굴이 그려진 6유로짜리 주방용 앞치마를 하나 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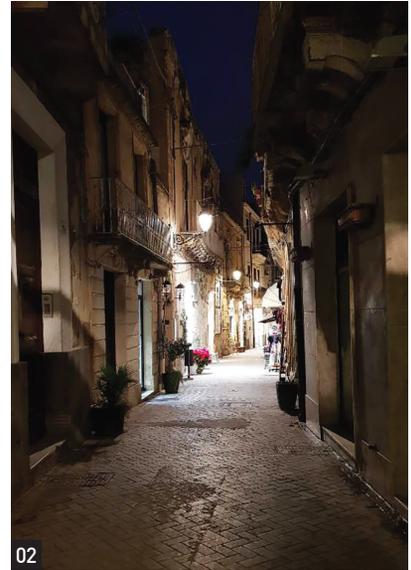
팔레르모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마시모 오페라 극장은 <대부> 3편 마지막 장면의 무대로 쓰였다. 알 파치노의 딸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극장 앞 계단에서 충격을 당해 숨지는 장면이다. 딸을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알 파치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마시모 극장은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손꼽힌다. 방문한 날 투어 코스 티켓을 사서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마침 큰 공연을 앞두고 단원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마시모 귀빈석에 앉아 바그너의 음악을 듣게 된다니! 예상치도 않았던 행운에 감격했다.

팔레르모에서 한 시간 거리인 북쪽 해안 도시 체팔루는 영화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이다. 해안도로 옆으로 보이는 바다가 절경이다. 바닷가 절벽을 따라 지은 집

- 01 'NO MAFIA' 기념관 포스터
- 02 체팔루 해안 샤워기
- 03 마시모 오페라 극장



03



01 아그리젠토 그리스 신전
 02 시라쿠사 오르티지아 골목길
 03 재래시장 페페로니 구이
 04 시칠리안 제스처 '맛있어요'

들 앞으로 난 좁은 돌길을 걸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해안 둘레 길의 스틸이 넘쳤다. 몇몇 집의 담벼락에 매달아 놓은 샤워기에서 시칠리안 디테일에 한 번 더 감탄했다.

아그리젠토(Agrigento)를 지키는 신전들의 계곡(Valle dei Templi)

체팔루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3시간 가까이 달려 늦은 오후에 아그리젠토 입구에 도착했다. 아그리젠토는 그리스어로 '위대한 그리스'라는 뜻이다. 그리스인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농지 개간법이 말의 유래가 됐다. 그리스 본토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거지와 주택난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불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스인들의 해외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가, 시칠리아 남쪽 해변 도시에는 그리스 극장은 물론 그리스 신전들이 많다. 산비탈 위로는 아그리젠토의 도시가 좌우로 넓게 펼쳐지고, 비탈 아래 너른 계곡 언덕에는 신전들이 부서진 것은 부서진 대로, 남아 있는 것은 남

아 있는 대로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면서 영적인 정기 같은 것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진작가들은 석양이 지기 전 늦은 오후에서 일몰까지의 자연광이 사진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말한다. 헤라 신전을 시작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며 발길을 재촉한 덕에 '신전 일주 코스'를 마칠 수 있었다. 일몰의 바다와 그 장관을 굽어보는 신전들, 신과 자연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인가. 거대한 돌을 채고 자르고 깎고 굴려서 쌓는 인간들의 무참한 노역을 신들은 무어라 설명했을까.

신전들의 계곡에서 15분쯤 바다를 따라가면 '튀르크인의 계단'(Scala del Turchi)이 나타난다. 푸른 쪽빛 바다를 박차고 튀어나온 새하얀 석회암 언덕이 계단식으로 침식된 모양인데, 그 옛날 튀르크/터키인들이 이곳을 통해 자꾸 쳐들어와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겨울철 안전 문제로 관광객의 접근이 금지되는 바람에 석회암 위에 누워 일광욕을 해보는 호시는 누리지 못했지만 눈부신 하얀 언덕과 푸른 바다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해변을 배경으로 나뉠

인생 샷을 건져 올렸다.

시라쿠사(Siracusa), '아름다운 도시' 매력 1위

로마의 키케로는 '시라쿠사가 그리스인들의 도시 중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다. 무르고 와이너리에서 와인 시음을 도와주던 시칠리아 남자도 같은 말을 했다. 아그리젠토 '터키인의 계단'을 뒤로 하고 해변 국도를 달려 어둠이 내릴 즈음 시라쿠사의 원형이 남아 있는 오르테기아(Ortega)에 도착했다. 이 지역은 원래 섬이었지만 지금은 조그만 다리들로 연결돼 섬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도 할 겸 밤거리로 나섰다. 아르키메데스 분수 광장을 중심으로 사방이 골목길로 연결된다. 골목골목마다 작지만, 특색 있게 꾸민 상점들과 식당들의 불빛이 환하다. 식당에는 손님들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한적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잡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빛바랜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 냄새 가득한 일상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전 시라쿠사의 명물 두오모 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오니아해에서 떠오른 태양 빛이 하얀 광장에 반사돼 유난히 눈부시다. 광장 한편 테라스에서는 빵과 커피로 아침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인다. 거리의 악사도 따뜻한 겨울 광장의 아늑함에 정겨움을 더한다. 두오모 성당 입구에는 낮지만 제법 넓은 돌계단이 있다. 관광객들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햇볕을 쬐며 광장을 바라보는 풍경이 이곳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멍' 때리는 모습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카페 손님들도 같이 멍해지기 십상이다. 시칠리아의 다른 성당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것도 시라쿠사의 매력 아닌가 싶다.

매력은 또 있다. 아침에 장이 서는 해변 재래시장에 가봤다. 잡다한 일상용품을 주렁주렁 진열해 놓은 모습이 우리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채소와 과일은 완전히 다르다. 일단 색깔이 다르다. 종류도 많은 것 같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의 식재료들이다. 손님을 부르는 생선 장사의 외침이 시장의 활기에 더해진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샌드위치 가게 아저씨가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치즈부터 야채까지 있는 재료를 다 쏟아 넣는다고 해서 '몽땅 샌드위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얼마나 큰지 하나 사서 일행 세 명이 먹기도 벅차다. 관광객들의 인증 샷 요구에는 무조건 'Grazie!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간간히 시식을 권하는 애교 마케팅은 기본이다. 관광 매력의 요체는 역시 사람이다. 인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를 더하는 일도 역시 오늘의 사람들 몫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자연 유산 도시들에도 귀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다.

시칠리안 제스처(Gesto Siciliano), 소통과 융합의 언어들

시칠리아는 좀 특별하다. 유럽이지만 아프리카의 문화가 묻어난다. 로마식 건축물에 이슬람식 돔 지붕을 올린다. 그러나 시칠리아의 진짜 매력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 시칠리안이다.

친절해 보이지만 무뚝뚝하고,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진지하다. 오랜 세월 여러 이민족들의 문화가 교차하면서 한데 뒤섞인 것이다. 고립이 아닌 공존이다. 공존과 공감을 위해서는 말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필요했다. 다양한 제스처와 보디랭귀지가 생겨난 이유다. 시칠리안들은 손짓만으로 1백여 가지의 표현을 주고받는다. 아그리젠토의 숙소 주인은 인근 맛집을 소개하며 검지를 자기 볼에다 대고 빙빙 돌렸다. 영락없는 '용용 죽겠지다. 알고 보니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제스처는 시칠리아에서는 '아주 맛있다'라는 뜻이었다. 시칠리아인들은 요즘도 '사이좋게 지낸다.' '나를 놀리는 거야' '나 열 받았어.' 같은 의사 표시는 손짓으로 말하며 지낸다. 여행객들에게 주저 없이 다가와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이런 소통과 융합의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돌아와 <대부>와 <시네마 천국>을 다시 보기 하면서 시칠리아를 복기했다. 고향을 떠나는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말한다. "네가 맨 나중에 하는 일을 사랑하거라" 이번 여행을 통해 생긴 시칠리아에 대한 좋은 감정을 사랑으로 굳히려면 렌터카 운전이 아직 자신 있을 동안에 시칠리아를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그때는 시칠리아 내륙 지방에서 말 등에 앉아 푸른 초원과 언덕을 어슬렁거리며 로컬 푸드에 흠뻑 빠져보는 힐링 체험을 하고 싶다. 또 하나, 내륙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선사시대 시칠리안들의 주거지와 무덤 같은 흔적(Pantalica necropole, Castelluccia settlements)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번엔 그냥 지나친 내륙의 중심 도시 엔나(Enna)에 베이스캠프를 차려야겠다.

다시 만나요. 시칠리아! Arrivederci Sicilia! (끝) OLP

유대 최후 항전지 - 마사다



▲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뱀길

하룻밤에 여자와 아이 포함 960명 자결

지하통로에 숨어 살아남은 여인 2명이 자식 5명과 함께 전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을 로마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 병사는 각자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인사를 하고 자기 가족을 죽였습니다. 이후 한자리에 모여 그들을 죽여줄 10명을 뽑았습니다. 10명은 모든 병사를 죽인 후,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선출해 나머지 9명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3년간의 저항이 막을 내립니다. 훗날 이름이 쓰인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어 이를 증명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날 밤, 집단으로 자결하도록 지도자 엘르아살이 병사들에게 연설합니다.



글. 오원정
OLP 11기

항전 지도자 엘르아살의 두 차례 연설

1차 연설

“용감한 동지들이여, 오래전 우리는 로마를 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않겠노라고 결의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인 위에 군림하는 진정한, 정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결의를 행동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속박에도 굴복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내일 이 요새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고귀한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남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군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여인들이 치욕을 당하지 않고 죽을 수 있으며, 아이들도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 손으로 이들의 목숨을 끊은 후에 우리 자신도 서로에게 고귀한 죽음을 선사하여, 자유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수의로 삼기로 하자! 우선 재물과 요새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자. 로마군이 우리를 생포하지 못하게 된 데다 전리품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무척 약이 오를 것이 분명하다. 다만 식량은 그대로 남겨두어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에 몰려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의했던 바대로 구속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자.”

일부 겁에 질린 병사들을 향해 영혼 불멸에 대해 열변을 토합니다.

2차 연설

(전략)

“죽음은 영혼에게 자유를 선사하며 우리의 고향과도 같은 정결한 곳으로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은 모든 불행으로부터 해방되어 고통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차피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으며 우리가 낳은 아이들 역시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법이다. 폭행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우리 아내들이 아이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면,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불가피한 불행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비겁한 자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하략)

MASADA



01



02

- 01 비둘기 사육장
- 02 로마군 진지 - 가운데 사각형
- 03 서쪽 경사면의 토성
- 04 서쪽 경사면 배경

천연요새 마사다

유대광야 동쪽, 사해 옆에 있는, 사해 발 450m 고원입니다. 정상은 마름모 형태로 길이가 약 600m, 폭이 약 300m로 평편합니다. 광야에서 떨어져 나와 사방이 절벽 같은 바위산입니다. 기원전 161년부터 143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왕이자 대제사장인 요나단이 요새를 세워 마사다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헤롯왕이 망대 37개와 북향으로 기슭에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당시 정상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해에서 올라가는 '뱀길(Snake Path)'과 서쪽 경사면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서쪽은 망루를 직벽으로 세워 막았기 때문에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하며 가파른 뱀길이 유일한 통행방법이었습니다.

뱀길은 현재 트래킹 코스로 활용됩니다.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사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신병 정신훈련 장소로도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는 경작지와 12곳의 물 저장고(약 4만 톤 보관), 식량 보관소, 비둘기 사육장, 목욕탕 등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기(10월~4월)에 물이 저장고로 흘러들어오도록 바위 경사를 따라 홈을 팠습니다. 비둘기를 사육해 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했습니다.

로마군 침공

로마군 8천 명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 포위하고, 진지 8곳을 구축했습니다. 건축 장비를 갖춘 기술자들을 대동해 땅을 고르고 정방형으로 진영을 세웠습니다.

로마군대는 이르기를 '훈련은 무혈전투, 전투는 유혈훈련'이라고 합니다. 무적 군대이지만 공략 가능한 곳은 서쪽 경사면밖에 없었습니다. 마사다 공략을 수차례 실패한 후, 유대인 노예를 이용해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 위에 공격용 망대를 세



03



04

위 공성 장비(투석기, 화살 등)로 마침내 성벽을 허물고 다음 날 침공을 위해 철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방벽에서 사다리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습격했으나 단 한 사람의 유대 병사도 만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자식 5명을 둔 여인 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AD 73년이며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약 3년이 흘렀습니다.

유대 최후 항전세력은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자결로 처절하게 저항을 마감했습니다. 마사다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유대전쟁사에서 로마군대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최후까지 항전했다는 명분은 얻었으나, 실리는 전혀 없이 결국 함락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상대방보다 전력이 약하거나 우방이 없는 국가는 언제든지 나라를 잃거나 위태로운 상황을 겪었던 세계사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느 나라든 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기 전에 외교와 안보 고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OLP

참고 자료

1. 유대전쟁사 1, 2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지음, 박정수 박찬웅 옮김, 나남 2008)
2. 마사다 국립공원 팸플릿



지중해 크루즈 선에 올라 퍼진 평화의 합창



01

- 01 크루즈 여행에 함께 한 동기들과 배우자들
- 02 크루즈 선상에서의 합창 후 단체 경례
- 03 크루즈 선상에서의 합창 공연



글. 이용식
OLP 1기
전 한국IBM 홍보실장,
전 한국씨티은행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2019년 9월 말, 초급장교로 전역한 지 40년을 맞아 ROTC 15기 동기들 20여 명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지중해 크루즈 선을 탔다.

스페인, 이태리를 지나 프랑스로 향하던 날 밤, 우리는 밝은 색 정장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크루즈선 대극장 'Somos Talento'에 참가했다. 무대 커튼이 열리고 첫 순서로 나선 우리는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로 잘 알려진 '꿈마야'를 합창했다. 그런 후 대원들은 "Thank You U.N."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합창을 지휘했던 나는 관객을 향해 돌아서서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 준 UN과 6.25 참전 16개국에 감사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대극장을 꽉 채운 수 백명 관광객들 중에 자기 나라 국기와 이름이 소개될 때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16개국을 일일이 호명한 후 우리는 40년 전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차렷! 경례!" 구령에 맞춰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거수경례를 한 후 관객들의 호응 가운데 다음 곡을 이어갔다.

10년 전 ROTC 15기 동기들을 모아 'R15 Choir'를 만들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UN 참전 16개국을 돌며 감사와 우정의 합창을 하자"고 제안했던 지휘자 동기가 4

년 전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번 크루즈여행은 남은 친구들이 그를 추모하며 순회 연주는 못하지만 지중해 크루즈 선을 타고서라도 그 친구가 꿈꿨던 UN 참전 16개국에 대한 감사의 합창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는 전역한 후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며 저마다의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이제는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한 60대 중반의 늙은이들이다. 하지만 UN 참전 16개국에 감사 합창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혼자 꾸는 꿈은 몽상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다. 여행 중 짬짬이 곡을 외우고 매일 갑판에 모여 파트 연습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다듬고 수 백명 관중 앞에 함께 선 것은 모두에게 값진 '인생 경험'이 되었다.

귀국 후 크루즈 합창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동기의 미망인에게 소식을 전하니, "한동안 안 보이던 그 이가 어젯밤 꿈에 나타나더니 오늘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고인이 품었던 뜻을 대신 이루어져 고맙다"고 했다.

전역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들은 UN 참전 16개국에 대해 빛진 마음을 갖는 것일까? 세계의 수만명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살아온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것이다.

미 국방성 자료에 따르면 16개 UN 참전국에서 16만 명이 한국에 파병되어 28,798명이 전사했다. 이 중 87%는 미군이었다.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9,297명까지 더하면 3만 8천

95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다행히 살았더라도 11만 5천명이 부상자였으니 이들은 고국에 돌아갔다 해도 대부분 평생을 부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수많은 순국선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1위 경제 강국으로 키울 수 있었다. 순국선열을 추모할 때 또한 낯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3만 8천명 UN군의 희생도 함께 추모해야 할 것이다.

'UN의 날'을 국가지정 공휴일로 정하고 뜻을 기리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잊힌 과거가 된 듯해 아쉽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한국을 구해준 UN과 16개 참전국에 감사하는 일은 두고두고 갚아야 할 우리 모두의 마음 빛이다.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UN 참전 16개국에 대한 마음의 빛을 느낀다면 어떻게 보답할지 생각하고 뜻을 모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자. 그러다 보면 대를 이어 갚아도 못 갚을 그 마음의 빛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OLP



참고 자료

크루즈 선상 공연 및 감사 멘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28abDrWHSU>



02 03



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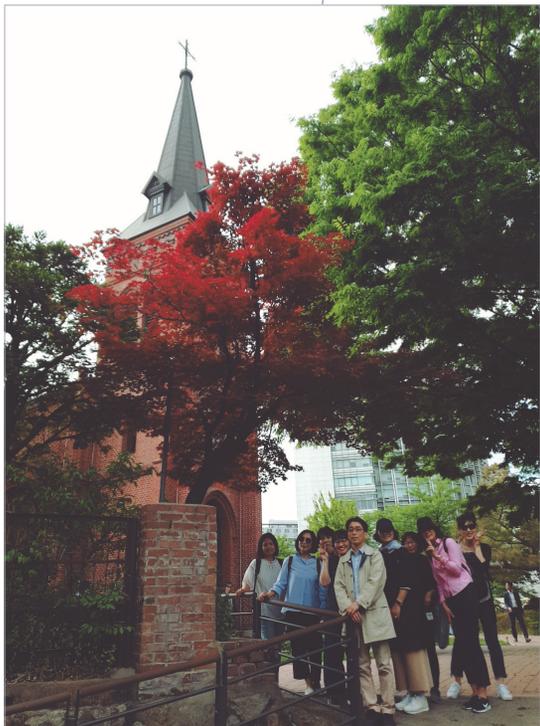
교

서울 순례길을 걷다



글. 김경곤 프란치스코
OLP 10기
전 그린부산창업투자 부사장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한국 교회 첫 신앙공동체 자리와 사목지, 순교지, 순교자들의 묘소와 사제 양성 못자리인 신학교 터 등 순례지 24곳, 3개 구간을 잇는 길입니다.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 박해, 순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을 인정해 국제 순례지로 승인함에 따라 서울 순례길은 이스라엘과 로마, 바오로 사도 순교길 같은 세계 공식 순례지의 위상을 지니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나 이탈리아의 '비아 프란치제나(Via francigena)' 순례길과 같은 세계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 빌딩 사이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길이 있다니 감탄합니다. 계동 가회동 일대 한옥마을 골목을 따라 조선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과 포도청 순례에서, 덕수궁 중명전과 고종의 길에서, 백범 김구와 경교장에서 그 시절 우리의 역사와 겨레의 숨결을 몸소 느낍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쳤거나 잊고 있었던 천주교 박해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양과 서울의 모습에 놀랍니다. 서울 순례길 도보 탐방을 시작하며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걸으며 드러난 신앙의 증거 터와 역사의 현장뿐만 아니라 신앙 선조와 순교성인의 발자취 속에 현존하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주님 체험을 새롭게 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가 살아있는 포도청 순례에서 소년 순교자 유대철 베드로 성인을 만납니다. 기해박해 때 13세의 어린 나이로 순교의 영광을 얻은 성인은 포졸이 구리대통으로 허벅지 살점을 떼어냈으나 “어떠한 형벌로 다스려도 해도 천주교를 믿는 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신앙을 증거 했다고 합니다. 포졸이 시뻘건 숯덩이를 집게로 꺼내 성인의 입에 갖다 대며 “내가 천주교를 끝까지 믿는다면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자, 성인은 “그래요. 그 숯덩이를 제 입에 넣어보세요. 제 마음이 변할 줄 아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목이 두려웠는지 이 어린 천사를 형장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1839년 10월 31일(음력 9월 25일) 우포도청 옥에서 교살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한국에서 태어나신 33살 한국 청년 예수님을 형상화한 가회동 성당의 예수 성심상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첫사랑을 찾아준다는 내용의 영화 ‘김종욱 찾기’처럼 우리도 종종 잊고 있거나 잃어버린 하느님을 수시로 찾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옆에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계속 찾아가는 것이 우리 순례의 지향입니다. 수난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같이 걷는 형제자매의 얼굴에서, 웃음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감동적이고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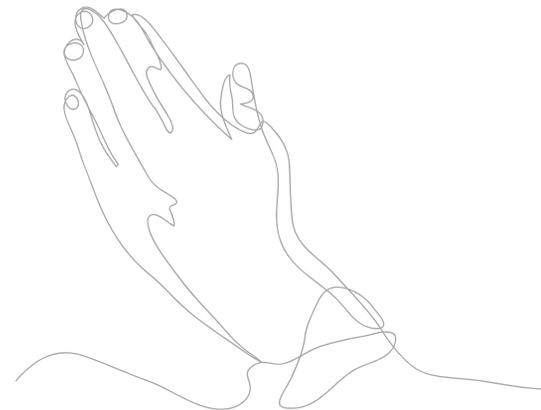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



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한국 교회 첫 신앙공동체 자리와 사목지, 순교지, 순교자들의 묘소와 사제 양성 못자리인 신학교 터 등 순례지 24곳, 3개 구간을 잇는 길입니다.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 박해, 순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을 인정해 국제 순례지로 승인함에 따라 서울 순례길은 이스라엘과 로마, 바오로 사도 순교길 같은 세계 공식 순례지의 위상을 지니게 됐습니다.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나 이탈리아의 '비아 프란치제나 (Via francigena)' 순례길과 같은 세계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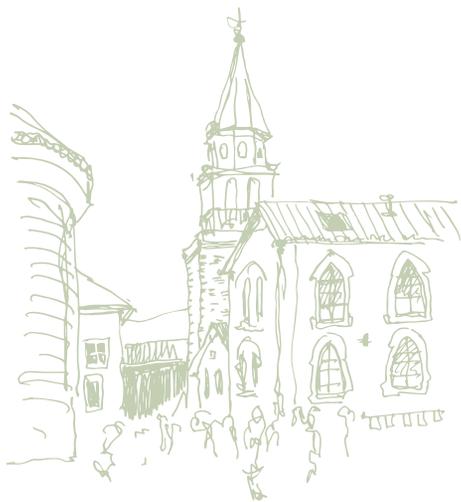
총 44.1km 도보 순례길 3개 구간은 신앙 선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목상하는 '말씀의 길'(명동대성당~가회동 성당 9개소, 8.7km), 죽음으로 하느님을 증거한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길인 '생명의 길'(가회동 성당~중림동 약현성당 9개소, 5.9km), 순교자들의 순교 신심을 본받아 신앙의 빛을 밝힘으로써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새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하는 '일치의 길'(중림동 약현성당~삼성산 성지 8개소, 29.5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실천하자는 취지로 이름 지어진 '일치의 길' 구간에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순교성인을 배출한 당고개 순교성지, 10명의 순교자가 수십 년간 묻혀있었던 왜고개 성지, 첫 한국인 사제와 첫 외국인 선교사 사제가 처형된 새남터 순교성지 등이 있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는 천주교인들이 목 잘려 죽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절두산이라 명명됐다고 합니다. 순교성인 27위와 무명 순교자 1위의 성해가 성당 지하 묘소에 묻혀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탐방 동아리는 매월 셋째 토요일 도보 순례를 떠납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신앙의 수용, 박해와 순교의 특별한 역사를 담은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하느님 체험과 수난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또 순교 성인들처럼 생명을 내놓고 형장에서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는 못 할지라도 가정이나 일터 등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백색 순교의 자세를 다짐합니다.



서소문 역사공원에서는 노숙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25장 34-40절)을 묵상 하며 제작된 작품으로, 이곳에서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지하 2층에 있는 성 정하상 바오로 기념 경당은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정하상 바오로와 그의 가족(아버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어머니 유소사 체칠리아, 형 정철상 가롤로, 여동생 정정혜 엘리사벳)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하상과 그의 가족 모두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 세계 교회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탐방 동아리는 매월 셋째 토요일 도보 순례를 떠납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신앙의 수용, 박해와 순교의 특별한 역사를 담은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하느님 체험과 수난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또 순교 성인들처럼 생명을 내놓고 형장에서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는 못 할지라도 가정이나 일터 등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백색 순교의 자세를 다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티 투어나 도심 관광일 수 있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순교자와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도보 순례라는 점과 한국 근현대사의 배움터입니다.

끝으로 교황청의 서울 순례길 승인에, 순례길에서 만난 순교성인과 신앙 선조들에게, 같이 걷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포도청 순례 때 현양관 안내와 해설을 맡아 주신 종로성당 포도청 순교자 현양회장 형제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LP

CATHOLIC



침삭되길 원하는 여행 노트

중국 편



2020년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연초에 늘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의 하나는 긴 겨울방학이 주는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방학 숙제로 정해진 새해의 목표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갖고 지금에 돌아보니 살아가면서는 언제나 두 명의 길동무가 늘 있더군요. 하나는 기대 감이고 다른 하나는 숙제입니다.

학창시절엔 새해 목표의 설정이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노트나 책에 적어 놓았던 선생님 말씀을 모아서 요약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는 선배님들이 작성하였던 서류몽치에서 해답을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선배님들의 검토자료와 선생님의 말씀 요약은 여간 요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습관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불문법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선인들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중국의 베이징과 시안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내용을 정리해서 남겨 놓으면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정리내용은 동행하였던 역사 교수님의 설명과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을 통하여 선진문물을



글. 안경호
OLP 127기
동서식품 미래전략실 실장



받았지만, 근대에 들어서 서구열강이 아시아를 찬탈하고 한국전쟁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던 지난 70년이 이웃 나라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거리적으로 다소 멀어지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50여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족 간에 언어의 차이가 있지만, 문자는 표의문자인 한자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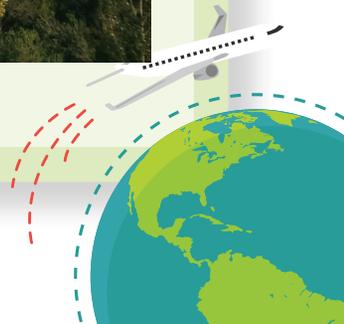
이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던데 영어나 한글은 표음문자입니다. 따라서 자기 종족의 언어를 쉽게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다른 종족과는 언어도 문자로도 의사소통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종족이 50개 이상이고 언어도 다르지만 표의문자인 한자를 사용해서 이민족들 상호 간에 의사소통하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표의문자 중요했네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외 회사가 자사 제품을 팔려면 중국어 관습대로 브랜드를 바꾸어야 하나 봅니다. 스타벅스는 “싱바커”로 읽고 BMW도 “빠오마”로 사용한답니다. 중국

사람 대단합니다

중국에는 지배적인 종교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특정 종교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었다는 논리인데요, 종교가 없는 덕분에 착해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와 같은 종교적인 선한 생각을 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는 어떤가요?

중국에 가면 무단으로 길을 걷는 등 대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음속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생각이 강해서 집단의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일까요? (문맥상 극단적으로 표현한 점을 이해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중국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했답니다. 결국, 지금까지 중국 인민은 공안의 징계를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중국인들과 사업할 때 귀담아들을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50대 이후입니다. 이는 등소평이 개방을 했을 때인 90년대 전후에 30~40대인 사람들이 많은 이권을 받았다고 하면



CHINA



서 또 부의 수준과 학력은 조금 다르다고 중국의 시민이 주장하
던데, 글썄요. 이해하기가…….

마지막으로 시안에 가면 양귀비가 살았던 화청지가 있습니
다. 화청지에서 매일 저녁 2시간 정도의 “장한가”라고 하는 연극
을 합니다. 당 헌종과 양귀비와의 사랑을 노래한 연극입니다

저는 이 연극이야말로 중국의 시장규모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면 화청지는 시안에서 차로 1시간 정
도 외곽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안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당
시 업계의 선배 한 분이 시안에 갈 경우 꼭 봐야 한다고 해서 일
부러 보았던 그 연극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무대의 규모
나 그 상상력은 엄청납니다. 정말 중국답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시장성입니다. 10년 전 시안은 그저 그런 도시였고 화청지는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외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라의 고
도 경주, 그리고 포석정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청지의 연못에 가설된 무대와 그 주위에 임시좌석으로 구성된
객석은 무려 2천석, 입장권은 당시 150위안 (한화 26,000원) 그런
데 그 포석정 같은 시골에서 진행되는 화청지의 장한가는 매일 2
천 석이 만원사례입니다. 그 무대의 규모나 웅장함은 중국답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포석정에서 신라의 김유신과 선
덕여왕의 사랑을 그린 연극을 상연하고 매일 2천 명이 그 밤에
그 연극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시장규모입니다. 사업
을 하는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있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
만 시장진입에 앞서서 꼭 선생님의 말씀 노트나 선배님들의 서
류몽치를 보아야 하는 숙제를 사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나 한중간에 갈등
과 기회 등에 대한민국은 놓여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트에 적혀 있는 선생님들의 말씀과 작성하였던 많은 서류들
은 내년에 또 다른 참고서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
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될지 모르겠습니
다만 오늘의 중국 노트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보완되고 첨
삭되어 점차로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LP

편안하고 이색적인 크루즈 여행, 기존 가격의 반값으로 즐기는 방법



동문 여러분! 여행은 누구에게나 휴식이 되고, 충전되고, 힐링이 됩니다. 그것이 크루즈 여행이라면 더욱 신나는 최고의 여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국내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 상품은 아직은 희소성이 있는 데다 가격이 비싸 쉽게 떠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크루즈 여행이 가진 장점이 알려지면서 실제 크루즈 여행객은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은 저는 먼저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지인분들로 인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작년 10월에 10박 12일의 동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소요 경비가 기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거의 반값으로 가성비 높은 여행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H 여행사가 내놓은 여행 상품은 기본 비용(크루즈여행, 항공, 현지 호텔 포함 가격)이 대략 5백 4십만 원에 기항지 선택 관광 등을 포함하면 600만 원이 넘는 데다, 바닷바람을 쐬 수 있는 발코니 객실로 업그레이드하면 1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1인당 거의 7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는 발코니 객실을 이용하고도 총 29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 기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반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꿈에 그리던 크루즈 여행을



글. 윤석구
OLP 8기
로이에스씨 대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라면 크루즈 여행에 관심이 있는 우리 OLP 동문 여러분들이 부부동반으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 저의 반값 크루즈 여행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존 여행사 가격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럭셔리 크루즈선을 타고 아름다운 동지중해를 10일 이상 둘러볼 수 있었다니 놀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저렴하게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여행에 필요한 크루즈선, 항공 및 호텔 예약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신이 디자인한 자유 일정의 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각종 항공권과 숙박권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이 등장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크루즈 여행도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예약하면 기존 여행사와 같은 일정임에도 실제 비용은 반값 정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저도 항공 예약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표를 구매해 서울에서 이태리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고, 크루즈 전후에 현지에서 숙박하는 호텔은 호텔 예약 어플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크루즈 티켓과 왕복 항공권만 구입하면 대부분의 숙식을 크루즈에서 해결하게 되고 기항지에서 쓰는 투어 비용은 실제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반값 여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비싸지만, 여행하는 동안 내내 여행객이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꼭 구경해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고 여행지에 관한 설명도 해주는 가이드가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반값 크루즈 여행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루즈 예약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년간 크루즈 여행을 체험한 동호회 회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가이드

역할을 하는 동호회 회원은 보통 사람보다 크루즈 여행 경험이 많은 크루즈 여행의 베테랑이지요. 저는 미국의 크루즈 예약사이트인 '인크루즈'사의 국내 멤버들이 결성한 동호회 회원이 되어 이번 여행에 참여했는데, 경험 많은 동호회 회원이 여행 내내 가이드가 되어 안내를 받아주었습니다. 물론 가이드 역할을 하는 동호회 회원에게는 약간의 수고비를 지불했습니다. 같은 동호회 회원이라 그런지 함께 한 여행객들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남달랐고 여행이 더욱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직접 항공권과 호텔, 크루즈선을 예약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떠난 가성비 높은 제 첫 번째 동지중해 크루즈 여행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음번엔 반드시 평소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OLC 멤버들과 함께 하는 크루즈 여행을 추진해 보자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와 신들의 도시 아테네, 그리고 아드리아해의 진주인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등을 꿈의 크루즈선을 타고 멋진 원우들과 함께 하는 동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 꼭 함께하고 싶네요.

여행 첫날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 118개의 섬 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고,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로 연결된 물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베네치아'에서 가슴 설레는 크루즈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필에 나무를 박아 그 위에 건물과 도로를 만들어서 수백 년 전부터 번성을 이루었다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S자형의 대운하가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 출구 쪽의 운하 기슭에 자리 잡은 장대한 '산 마르코 광장'과 교회·궁전 등 수많은 주택과 건물들이 13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수상 버스를 타고 첫 번째로 방문한 섬은 유리공예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무라노섬'이었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유리 공예품 하나하나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과 탄식을 자아내며 넋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섬은 알록달록 패션의 대명사인 '베네통'이 탄생한 곳인데 막대한 안개로 30cm 바로 앞을 못 볼 정도인 악천후를 극복하기 위해 섬사람들 각자 집과 지붕을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등의 색을 칠하는 것에서 컬러풀한 베네통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올 때는 수상 택시를 타고 수로 좌우로 펼쳐지는 중세 시대의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감상하는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루즈 여행 시작부터가 감동이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코스타 델리시오사'호 탑승

▶▶ 일생 처음 탑승한 '델리시오사'호는 92,700톤으로 동부 지중해를 운항하는 크루즈 중에서 제일 큰 규모로 알려진 배입니다. 기쁨과 환희를 뜻하는 영어 딜라이트(Delight)의 이탈리아어인 델리시오조(Delizioso)의 이름처럼 여행의 기쁨을 선사한다는 크루즈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전장:294m, 전폭:32m / 승객 탑승 수:2,260명(2인 1실 기준) / 승무 원 수:1,050명 / 출항 연도:2010년]

기승 뛰는 설렘으로 승선한 델리시오사는 거대한 위용으로 압도했고 크루즈 내부는 제게 온통 신세계였습니다. 캐빈이라 불리는 객실은 사면이 막혀있는 '인사이드', 닫힌 창문이 있는 '오션 뷰', 바다로 난간이 있는 '발코니', 큰 객실과 발코니가 있는 '스위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객실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대시설로는 카지노, 수영장, 새벽까지 춤추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무도회장, 매일 각종 쇼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사우나,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대형 바와 디스코장, 레스토랑 등 5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크고 화려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코스타 델리시오사'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궁전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꿈의 여행이 바로 크루즈 여행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첫 번째 기항지, 이탈리아 남부 천년 도시 '바리'

▶▶ 우리가 탑승한 크루즈는 저녁 7시에 출항해서 장장 19시간 동안 남으로 남으로 망망대해를 항해해서 다음 날 오후 1시에 이탈리아 최남단 고대 도시 '바리'에 도착했습니다. 기항지 투어를 위해 하선 후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던 밴 기사들과 1인당 25€로 흥정을 마치고, 일행 20명이 밴 3대에 분승하고 1,000년 고적이 있는 '마테라'로 향했습니다. 기항







지에서 거리는 55km 정도이고 시간은 대략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끝없이 이어진 올리브 나무숲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강우량이 적어 올리브 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테라’는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 주 깊은 계곡에 숨어 있는 동굴 거주지인데 메마른 황야가 펼쳐진 폐허와 같은 협곡을 따라 지어진 곳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곳에 실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박해를 피해 피신해 온 수도사들에 의해 형성되어 가난한 노동자나 땅이 없는 소작농들이 모여 살던 도시로 크루즈 기항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행 넷째 날 **두 번째 기항지, 동유럽의 파리라 불리는 그리스 ‘코르푸’섬**

▶▶ 이태리 ‘바리’에서 저녁 7시쯤 출항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경 그리스 ‘코르푸’섬에 도착했습니다. ‘코르푸’는 아드리아해를 사이를 두고 서북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에는 ‘알바니아’와 ‘그리스’가 있는 ‘그리스’ 섬입니다.

‘코르푸’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전쟁과 정복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곳으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태리, 터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등 여러 차례 침공을 받고 섬의 주인이 바뀌기를 반복하다가 1864년 런던협정에 의해 오늘날의 그리스로 통합됐다고 합니다. 섬 가운데 우뚝 솟은 구 요새는 지금도 지중해 특유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굽어보며 완강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섬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옛시가지인 올드타운은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수많은 상점과 카페들이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관광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영화 ‘맘미아’와 007시리즈 중 하나인 ‘For Your Eyes Only’의 촬영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에서 항구에서 도심 입구까지 셔틀버스를 운항하고 있어, 느긋하게 시내 관광을 즐겼습니다.

여행 다섯째 날 **네 번째 기항지, 신들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

▶▶ 이태리 ‘코르푸’에서 ‘아테네’까지 그리스 주변의 섬 사이를 요리조리 운항하느라 그런지 하선이 오후 12시경이었습니다. 25€씩 내고 배를 이용해서 아테네 중심에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벤에서 내려 '파르테논신전'까지는 20여 분이면 충분히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적지이자 유물인 '파르테논신전'을 주변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봤던 신전을 직접 눈으로 대하자 감동과 경이로움에 숙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아폴론 신전과 국회의사당을 관광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고대 올림픽 스타디움을 돌아보았습니다.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민주주의의 고향인 그리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클레스 등 쟁쟁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나라로 위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서인지 공장시설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문명을 꽃피운 도시들은 모두 해안 가까이 있는 관광지들로 크루즈 여행이 왜 좋은지를 이번 여행을 통해 실감했습니다. 크루즈 여행 최고!

여행 여섯째 날 전일 해상 운항, 종일 크루즈 안에서 놀기!

▶▶ 그리스 '아테네'를 아침에 출발한 크루즈는 온종일 바다를 달리고 달려 다음 날 아침 7시경 몬테네그로 '코토르'에 도착하는데, 크루즈 탑승 7박 8일 중에 하루는 기항지 투어가 없이 크루즈 안에서 먹고 즐기게 하는 날인가 봅니다. 크루즈 안에서의 생활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우선 하루에 대여섯 번씩 차려지는 최고의 음식들이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먹고 나서는 수영장에서 수영과 선댄을 즐기고,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것도 지루해지면 카지노도 기웃기웃하기도 했습니다. 상점가에서는 잘 알려진 명품들이 50% 세일을 하고 있어 시계, 보석 등 아이쇼핑도 즐겼습니다.

저녁 정찬 코스 때는 선장이 직접 나와 승무원들과 함께 흥을 돋우면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식사 후 대극장에서는 비보이들의 댄스와 노래가 어우러진 수준급 뮤지컬을 감상했습니다. 이어 새벽까지 가면무도회에서 춤추는 일행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 하루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크루즈 여행! 왜 꿈의 여행이라 불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곱째 날 발칸의 숨은 보석, 몬테네그로 '코토르'

▶▶ 아테네에서 꼬박 24시간을 항해해 도착한 다음 기항지는 사파이어 빛 해변이 눈을 홀리는 몬테네그로의 항구도시 '코토르'였습니다. 고색창연하게 빛나는 중세도시 '코토르'는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크루즈에서 구멍보트로 구시가지까지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코토르 성곽'은 험준한 바위산에 아슬아슬하게 축조된 천혜의 요새로 멀리서도 방문자 모두에게 그 위용을 각인시

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코토르 성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같이 간 일행 모두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겁을 내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개인별로 15€씩 지불하고 밴을 타고 '코토르' 항구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 오르니 눈앞에 한 폭의 수채화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산을 돌아 아름다운 해변들과 해안에 축조된 성곽 안의 고도시 '부드바'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토르'는 내륙 깊숙이 들어온 좁은 해협에 터를 잡은 도시들과 깎아지른 산들이 어우러지는 풍광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동부 지중해가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대표적 크루즈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 여덟째 날 '꽃보다 누나' 여행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 '크로아티아는 '꽃보다 누나'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 '두브로브니크'는 전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바이런 경이 '아드리아해의 진주', 버나드 쇼가 '지상의 천국'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로 유명합니다.

동부 지중해는 해협은 좁지만 대부분 바닷가 깊어 크루즈선이 바로 '두브로브니크'시에 있는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미니버스를 이용해서 '두브로브니크'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뷰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두브로브니크'시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두를 황홀케 했습니다. 1991년 발발한 유고 내전 시 8개월간 도시에 2,000발의 포탄을 맞았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산 정상에 성



곽은 그때의 참화를 짐작게 했습니다. 성벽 옆에 있는 전망대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하도 많아 보통 두 시간은 기다려야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7박 8일간 크루즈 여행의 마지막 기항지 '크로아티아'를 관광하고, 밤새 달려 다시 모항인 베네치아로 갔습니다. 7박 8일의 크루즈 여행은 기대 이상의 멋진 체험으로 쏠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내내 너무나 기억에 남는 이런 크루즈 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해 보자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행 아홉째 날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 배경지 이탈리아 '베로나'

▶▶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베네치아로 귀향한 그 날 바로 귀국하지 않고 버스를 대절하여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베로나'로 갔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건설된 도시로 고대 로마 유적과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기념물을 보존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된 도시입니다. '베로나'는 셰익스피어의 소설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특히 유명한데, 소설 속의 로미오 집과 줄리엣의 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줄리엣의 청동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동상 가슴 부분을 꺼내고 인증샷을 남기는 필수 코스로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야단법석입니다. 또 '베로나'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인 5만 명 수용의 콜로세움과 두 번째 큰 경기장인 4만 명 수용의 카푸아 원형 경기장, 세 번째로 로마가 번성했던 1세기경에 세워진 3만 수용의 '베로나 아레나'가 있습니다. 베로나 아레나에서 1913년 8월 베르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야외 오페라 축제를 시작하면서 한여름 유럽을 후끈하게 달구는 유명한 오페라 도시를 여행하는 행복도 맛봤습니다.

“여행은 할 수 있을 때 하자”를 인생의 모토로 삼아 온 저에게 이번 동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63빌딩이나 잠실 롯데타워 만한 럭셔리 리조트급 크루즈선이 밤마다 망망대해를 건너 아침이면 역사와 전설이 서려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도착하여 또 다른 명승 관광지를 만나게 해주는 크루즈 여행은 기대 이상의 꿈만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벌써 2020년 10월 8일에 출발하는 9박 10일 일정의 동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다시 기대되며, 이 글을 빌어 OLC 원우님들을 초청합니다. 동부 지중해에 OLC의 깃발을 함께 날려 보면 좋겠습니다. OLP

프레시디오 공원, 가다

지난 1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레시디오공원을 찾았다. 출장길에 들른 이 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대지와 유사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공원으로 전환되기 전 군사기지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푸른 잔디밭과 주변의 붉은 벽돌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건물 주변으로 울창한 나무가 뺨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공원 옆 해안가를 따라 난 도로는 금문교와 연결돼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공원 한복판 잔디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가 한눈에 들어왔다. 공원 내 붉은 벽돌 건물은 1900년쯤 건축된 군 막사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옛 부대 연병장은 잔디밭으로 변했으며 막사는 호텔 등으로 탈바꿈했다. 그 가운데는 1770년대 스페인 식민지 시절 건축된 건물도 더러 있었다. 공원을 관리하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문자센터도 부대 내 장교클럽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공원 바로 옆에는 금문교가 위치해 있는 데다 푸른 바다와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에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샌프란시스코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공원 건너편 바다 한가운데는 영화 '더 록'으로 유명한 알카트라즈섬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섬은 1934년부터 연방 교도소로 이용됐으며 흉악범이 수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 1963년 재소자들이 떠나면서 폐쇄됐으며 알 카포네, 로버트 스트라우드 등 악명 높은 죄수들이 거쳐 갔다.

태평양에 인접한 이 공원은 군사기지였다. 미국 서부의 군사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1776년부터 200년간 해군 기지 등으로 이용됐다. 해안가 도로에서는 태평양을 향하고 있는 해안 포대가 눈에 들어왔다. 이 공원은 1980년대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1994년 군사기지가 폐쇄되자 활용방안을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감자였다. 갑론을박 끝에 연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전면 개발 대신 자연을 복원하고 기존 역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미군은 1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자금을 밑천으로 환경오염복원 사업이 진행됐다. 공원에는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됐다.

프레시디오공원의 면적은 607만㎡로 용산공원 면적(300만㎡)의 2배에 달한다. 울창한 숲과 잔디밭, 잘 조성된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은 샌프란시스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막사 등 800여 동의 기존 군부대 건물을 헐어내는 대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은 '국립역사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고 공원 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은 철거했지만 대부분 건축물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호텔, 임대주택, 레스토랑, 전시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군부대를 공원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미국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관광객이 찾으면서 2013년부터는 공공 지원 없이 자체 운



글. 박연직
OLP 20기
세계일보 사회2부 선임기자



- 01 뮤어 우즈 국립기념물의 레드우드 원시림
- 02 프레시디오 공원 모습. 옛 연병장은 잔디밭으로, 막사는 호텔 등으로 탈바꿈해 방문객을 맞고 있다.
- 03 프레시디오 국립묘지에 있는 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묘비



영수익으로만 연간 운영비 8,000만 달러(약 928억 원)를 조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1996년 미 의회 의결을 거쳐 '프레시디오 트러스트'가 발족했다. 프레시디오 트러스트에는 교육·문화·역사·설계·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400여 명이 어우러져 일하고 있다. 이에 앞서 1994년에는 기존 공원과과는 다른 장소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공원계획이 수립됐다. 프레시디오 트러스트는 15년 이내에 재정자립을 하고 공공자산으로써 공원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이루는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부지의 20%는 국립공원관리국(NPS)에서, 나머지 80%는 프레시디오 트러스트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공원 조성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졌으며 18억 달러가 투입됐다.

민관협력을 통해 조성된 공원은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한 번쯤 살고 싶고, 찾아보고 싶은 공간으로 변했다. 공원 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는 월등히 높은 상태다. 공원이 갖는 쾌적성은 물론 어느 곳보다 뛰어난 안전성은 다른 주거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공원 내 호텔 또한 일반 객실 숙박비가 하루 400달러 수준이지만 잘 가꾸어진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특히 최근 프레시디오 공원 측은 인접한 공원과 바다를 단절시키고 있는 고속도로 상부를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상부에는 바비큐장, 야외 공연장,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수변 공원 접근성이 개선돼 더 많은 사람이 공원을 찾을 것으로 보였다.

공원 끝 지점에는 프레시디오 국립묘지가 위치해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2,273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한

병사의 하얀 대리석 묘비에는 한국전 참전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국립묘지 입구 맞은편에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위치해 있다. 크지 않은 규모지만 샌프란시스코 방문객이라면 한 번쯤 방문할 의미가 있는 곳이다. 참전 기념비는 6·25전쟁에 참전한 200만 명에 이르는 미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후세에 알리기 위해 2016년 8월 제막했다. 샌프란시스코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출항했던 곳이다.

프레시디오 트러스트 관계자는 "프레시디오공원은 주민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더 나아가 전 세계 방문객에게 의미 있는 장소"라며 "200년 이상을 군 기지로 사용하다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라고 설명했다.

프레시디오공원은 11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 미군기지의 활용 방법을 정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이번 출장길에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뮤어 우즈 국립기념물(Muir Woods National Monument) 방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km 정도 떨어진 마린 카운티에 위치해 있으며 국립공원 승격을 진행 중인 이곳은 레드우드 원시림이 있는 곳으로 연간 96만 명이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의 명소다. 태평양 해안의 습한 환경 때문에 나무들이 성장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고개를 들고 쳐다봐도 나무 끝이 가물가물했다. 데크가 설치돼 있어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원시림을 걷는 기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인으로 자연 보호주의자인 존 뮤어의 이름을 따서 공원 이름을 지었다. 존 뮤어는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원"이라는 언급했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OLP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매장갈 시간이 없는
바쁜 당신에게
쓰임새 있게

1분주문, 1시간배송

지금 'KTShop(shop.kt.com)'에서 이용해보세요



'1분주문'은?

KT 공식 온라인몰 KT Shop에서 기기변경 시
1분만에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1시간배송'은?

주문한 핸드폰을 1시간 안에 빠르게
무료배송해 드리는 서비스

※ 1분주문은 추천 옵션 변경 시 1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기변경 고객 대상)

※ 1시간배송은 신청서 작성 완료부터 배송완료까지 소요시간 기준. 월~토, 11시~18시, 수도권(일부지역 제외)에서 이용가능하며 (항후 광역시권 중심 확대 예정), 배송 상황에 따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기변경/번호이동 고객 대상)

※ 자세한 내용과 이용 가능 휴대폰 모델은 shop.kt.com 참조

OPINION LEADERS PROGRAM

News

YouTube 채널 OLC TV 구독 안내

기수별 활동 소식

OLP를 말한다

OLP 24기 입학 안내

영상으로 만나는 OLC, 채널 OLC TV 구독 안내

“이 행사는 어떤 행사지?”, “이번 송년회는 어떻게 했을까?”

원우님들의 만남과 교류를 위해 매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OLC이지만, 오직 참석해야지만 소통할 수 있어 참석이 어려운 원우님과는 점점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원우님도, 그리고 다시 한번 행사의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던 원우님 모두 이제 편안하게 OLC의 매력을 접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OLC TV(이하 OLC TV)를 개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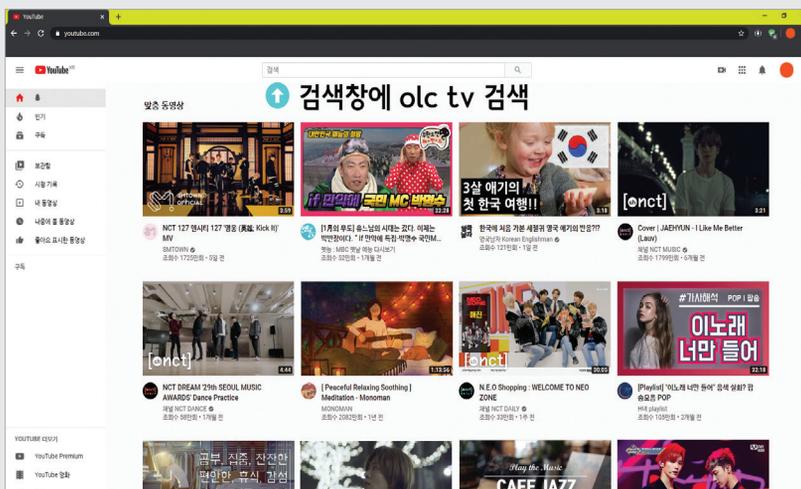
OLC 사무국에서는 OLC TV를 통해 매년 진행되는 OLC 행사프로그램 안내는 물론 더 나아가 OLC 원우님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OLC가 더욱 발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원우님들의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 및 구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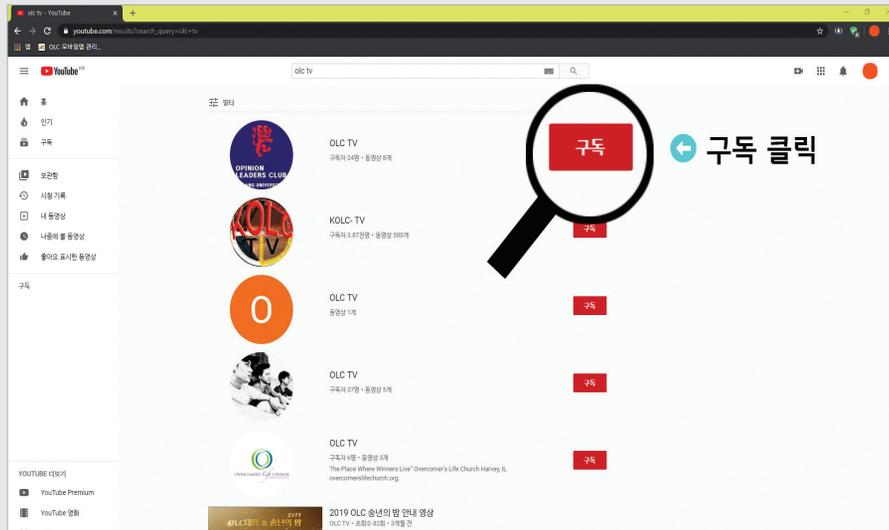
1. 유튜브 홈페이지 상단 검색 창에 “OLC TV”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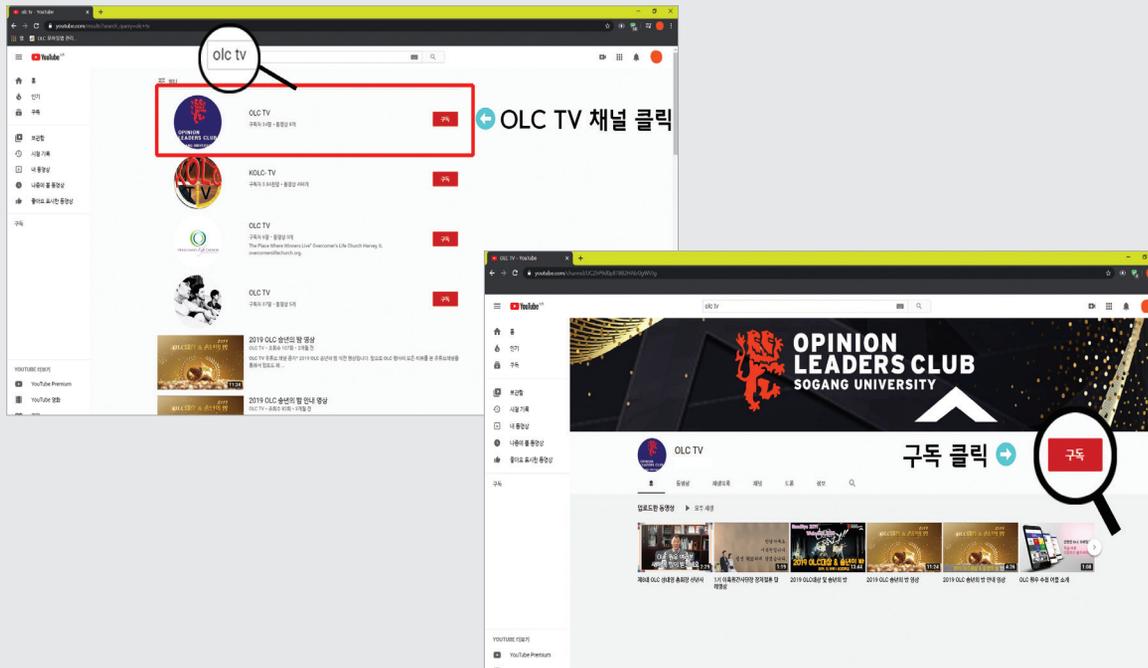
2. 구독하기

가. PC 버전

가-1. 검색창 상단에 있는 OLC TV 채널명 우측에 있는 **구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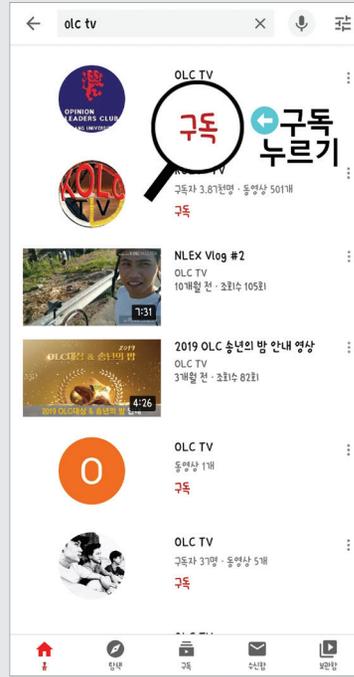


가-2. OLC TV 클릭 하여 채널 방문 후 채널명 우측에 있는 **구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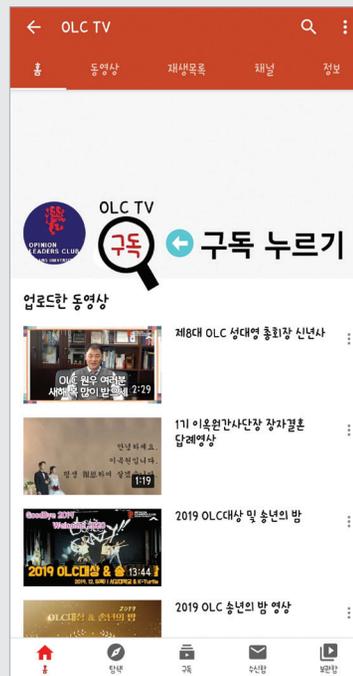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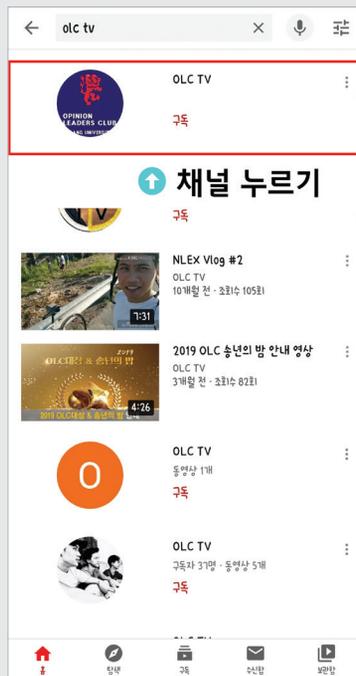


나. 휴대폰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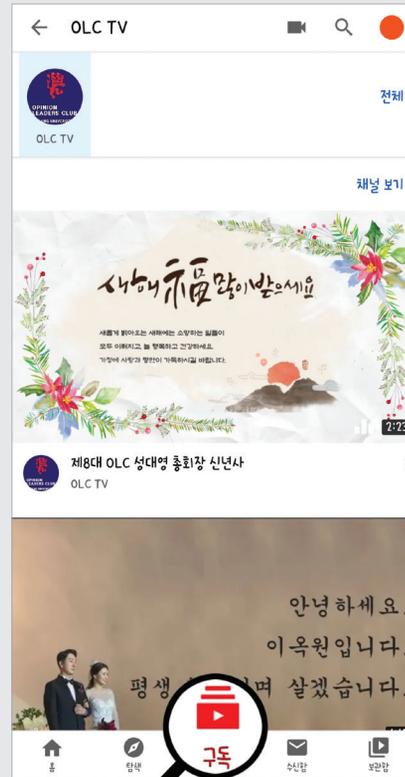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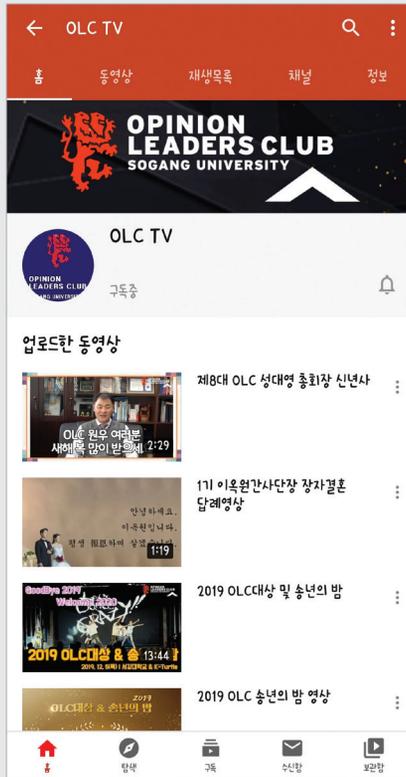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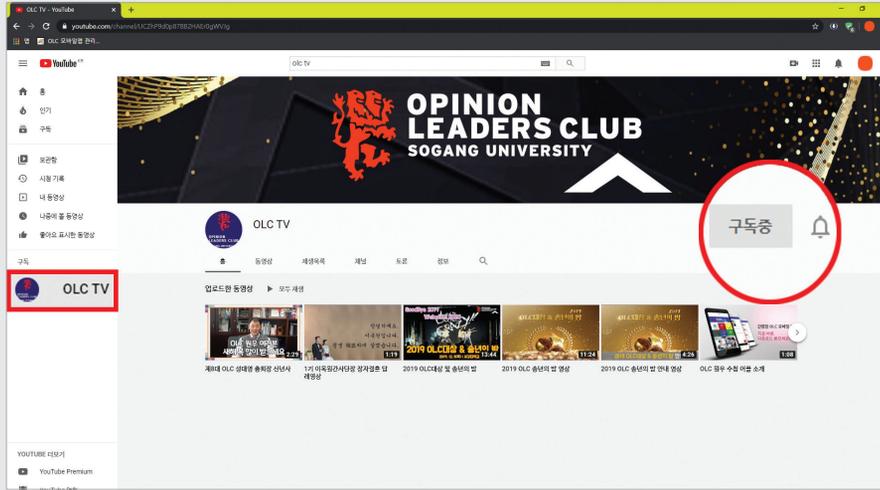
나-1. 검색창 상단에 있는 OLC TV 채널명 아래에 있는 구독 누르기



나-2. OLC TV 눌러 채널 방문 후 채널명 아래에 있는 구독 누르기



3. 구독 완료



기수별 활동 소식

- 1기 ▶ 1기 이옥원 간사장단장 : 2019년 12월 7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3기 ▶ 3기 구자관 명예회장 :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15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3기 이준섭 원우 : 협동조합 문화로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4기 ▶ 4기 김봉국 원우 : 2020년 4월 5일(일)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6기 ▶ 6기 류영현 원우 : UPI 뉴스 편집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7기 ▶ 7기 김관중 원우 : 충청헤럴드 총괄전무로 임명되었습니다.
- 8기 ▶ 8기 장윤경 OLC 부회장 : 2019년 6월 22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8기 김백 원우 : 2019년 11월 16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11기 ▶ 11기 장영호 원우 : 2019년 9월 28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13기 ▶ 13기 구자갑 원우 : 2019년 5월 11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15기 ▶ 15기 홍권희 원우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 17기 ▶ 17기 강현우 원우 :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 18기 ▶ 18기 남형식 원우 : KEB 하나은행 판교역지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 19기 ▶ 19기 배성운 OLC 부회장 : (주)현대글로벌모터스 사옥을 이전하셨습니다.
19기 이현복 원우 : GS 에너지 상무로 승진하셨습니다.
- 20기 ▶ 20기 김용구 원우 : 2019년 9월 21일(토)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 21기 ▶ 21기 조남규 원우 : 세계일보 정치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Opinion Leaders Program



클. 전승현
OLP 23기 회장
(주)델몬트음료 대표이사

코로나 악재 뚫고 '명품 23기' 빛나다



우연한 기회에 만나, 악재(惡材)를 건너 특별한 가치를 얻다. 개인적으로 서강대 OLP 23기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정확히 2년 전이었다. 성대영 회장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 이날 김홍균 교수님이 동석했는데 “서강대 OLP를 수강해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OLP? 이름은 낯설었지만 느낌은 신선했다. 무엇보다 “와 보면 좋다”는 김 교수님의 제안에 1년 후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개강을 가로막았다. 지난 3월 OLP 이수 신청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두 차례나 입학식이 연기된 것. 그렇게 어렵게 첫 만남을 이뤄진 5월 7일. 아뵐까! 회사 업무차 지방 출장이 잡히는 바람에 입학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강의가 있던 5월 14일. 이날 동기생 원우님들과 첫인사를 했다. 서먹서먹함은 잠시였고 스스럼없이 형·아우가 됐다. 내로라하는 국내 석학들의 강의야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과 금융·공기업·민간 기업에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원우님들 역시 진지한 질문과 유쾌한 토론으로 수업을 완성시켰다. 이 대목에서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발열 체크부터 카페테리아식 식사, 띄엄띄엄 강의실 자리 배치까지 원우님들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했다. 초기엔 '3교시'를 건물 옥상에서 가벼운 호프타임을 열었다.

다섯 번째 수업이 끝나고 임원진을 구성하는 자리였다. 한목소리, 큰 박수로 동기회장으로 추천됐다.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학교나 사회단체 등

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아본 기억이 없는데 OLP에서 덜컥 회장이 됐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 걱정이 앞섰지만 기우(杞憂)였다. 김명진 수석 부회장과 정민호 사무총장 등 적극적인 임원진과 원우들이 함께 해서다. 23기는 두 번의 기다림 끝에 개강했고,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친교와 유대감을 키웠다. 그래서 감히 23기를 '명품 23기'라고 자랑한다.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기생 28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었지만 소중한 추억도 쌓았다. 지난 7월 13일 골프 모임 겸 단합대회를 열었다. 우천 때문에 스크린골프로 바뀌었지만 몇몇 원우님들의 날렵한 스윙 실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우리 회사 물류센터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는데, 모두 새 활력을 충전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어느새 8월 6일이면 종강이다. 그리고 20일이면 수료식이 열린다. 그래도 남은 아쉬움은 다음 달 졸업여행에서 발산할 계획이다. 졸업 후에도 골프·등산 같은 정기모임을 통해 우정을 다질 것이다. 김홍균 원장님과 이윤수 주임교수님, 젊은 조교들의 원활한 수업·행사 준비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또 자랑스러운 명품 23기가 새 OLC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님께 한 마디 드립니다. “앞으로 OLP를 소개하실 때 ‘와 보면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와 보면 최고’라고 해 주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니까요.” OLP



글. 김명진
OLP 23기 수석부회장
(주)키메디 대표이사

배움의 기회 못지않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원우들의 값진 경험과 정보공유를 통해 유대관계가 두터워졌고, 이는 새롭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영 환경은 획일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인으로서 어떻게 이 흐름에 발맞춰 갈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접하게 된 '서강 OLP'라는 프로그램은 신선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경영인으로 경험했던 비즈니스 방식과 성과물 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립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OLP 과정을 통해 경영 현장에서 빈번히 맞닥뜨리게 되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각계 전문가와의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같은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의 강의가 기억에 남는데 특히 CARROT 박관수 신사업부문장의 '플랫폼 비즈니스 & 생태계' 강의는 또 다른 관점의 실질적이고 생생한 플랫폼 성장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배움의 기회 못지않게 소중한 경험은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원우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 것입

니다. 원우들의 값진 경험과 정보공유를 통해 유대관계가 두터워졌고, 이는 새롭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기수 인원이 현격히 줄었지만, 오히려 적은 수의 원우들이기에 더 친밀하고 깊은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과정을 개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홍균 원장님, 이윤수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OLP 과정에 참여해 서로 격려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던 동기 원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LP 과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쓰려니 흔히 접하는 고사성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길지 않은 OLP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배움으로 발전된 저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며,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접하게 된 과정이었지만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강 OLP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LP**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 OLP 24기 입학안내

모집인원
50명 내외

지원자격

- 공·사기업체의 임원, 간부
-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 법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명함판 사진 1매),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이메일/우편 접수 항시 가능
-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서강대학교)
GN관 512호 경제대학원 OLP
- 연락처: OLP 사무국 ☎ 02-705-8017
✉ solp@sogang.ac.kr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디지털 구독
렌탈
생활월납
몰아주고

몰아받자
최대 월 7만1천 포인트
디지털 구독, 렌탈, 생활월납 '한 번만' 자동이체로 등록하면 최대 월 7만1천 포인트 적립

신한카드 Deep Once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연회비 국내전용 2만원 MASTER 2만3천원 ※ 계약체결 전 전월실적 및 적립 한도 등 관련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2020.1.30)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없이 유지됩니다. ※ 세부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및 고객센터 (1544-7000) 문의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2b-04564호(2020.05.29)

분명, 이기나긴 골목에는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얼어붙은 이 골목에서
당신의 어깨는 한없이 내려앉고
당신의 한숨은 끝없이 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믿습니다
이 골목의 고비만 지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그 끝이 어디라도
신한은행은 당신과 함께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의 힘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이시기를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관련 금융지원

- ▶ 피해 중소기업 보유 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 ▶ 피해기업 및 종업원, 코로나 19 확진자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
- ▶ 대구, 경북지역 비대면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개인고객)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운영

- ▶ 경영애로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 ▶ 사업영위 관련 법률, 세무, 노무 분야 상담
- ▶ 서울 지역 총 3개 운영 중 (중부, 남부, 강남)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 ▶ 신한은행 거래 개인사업자 대상 무료 광고 지원
- ▶ 신한은행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 / 포스터를 통한 광고 게시
- ▶ 전국 32개 영업점에서 시행 및 연내 확대 예정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상담신청은 신한은행 App '신한SOL'에서 메뉴 → 간편서비스 → 성공 두드림 프로그램 → 신한SOHO 성공지원센터의 경로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또는 상단 QR 코드로 바로 접속 가능)

※금융지원 대상,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0391-1호 (유효기간 2020.04.10~2021.03.31)



잡곡밥도 **해반**답게 갓지어 **맛있게**

해반은
ZERO

보존료
ZERO

용기걱정
ZERO



가까운 마트나 **CJ 더마켓** 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매일 건강한 잡곡밥 생활



보존료 : 자몽종자추출물, E-폴리리신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Liiv
Mate

‘KB 통합 포인트 플랫폼’
포인트 적립부터 결제까지
소비생활을 현명하게 바꾸다

KB 차차차

‘매물대수1위, 중고차 거래 플랫폼’
편리성과 안심거래로
중고차 거래를 신뢰로 바꾸다

Liiv
리브모바일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
혁신적인 통신 혜택으로
생활을 바꾸다

GLOBAL ONE MARKET

‘해외주식 원화거래 서비스’
해외주식 거래도
국내주식처럼 쉽게 바꾸다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내 일상에 꼭 필요한 암보험’
당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도록
보험의 상식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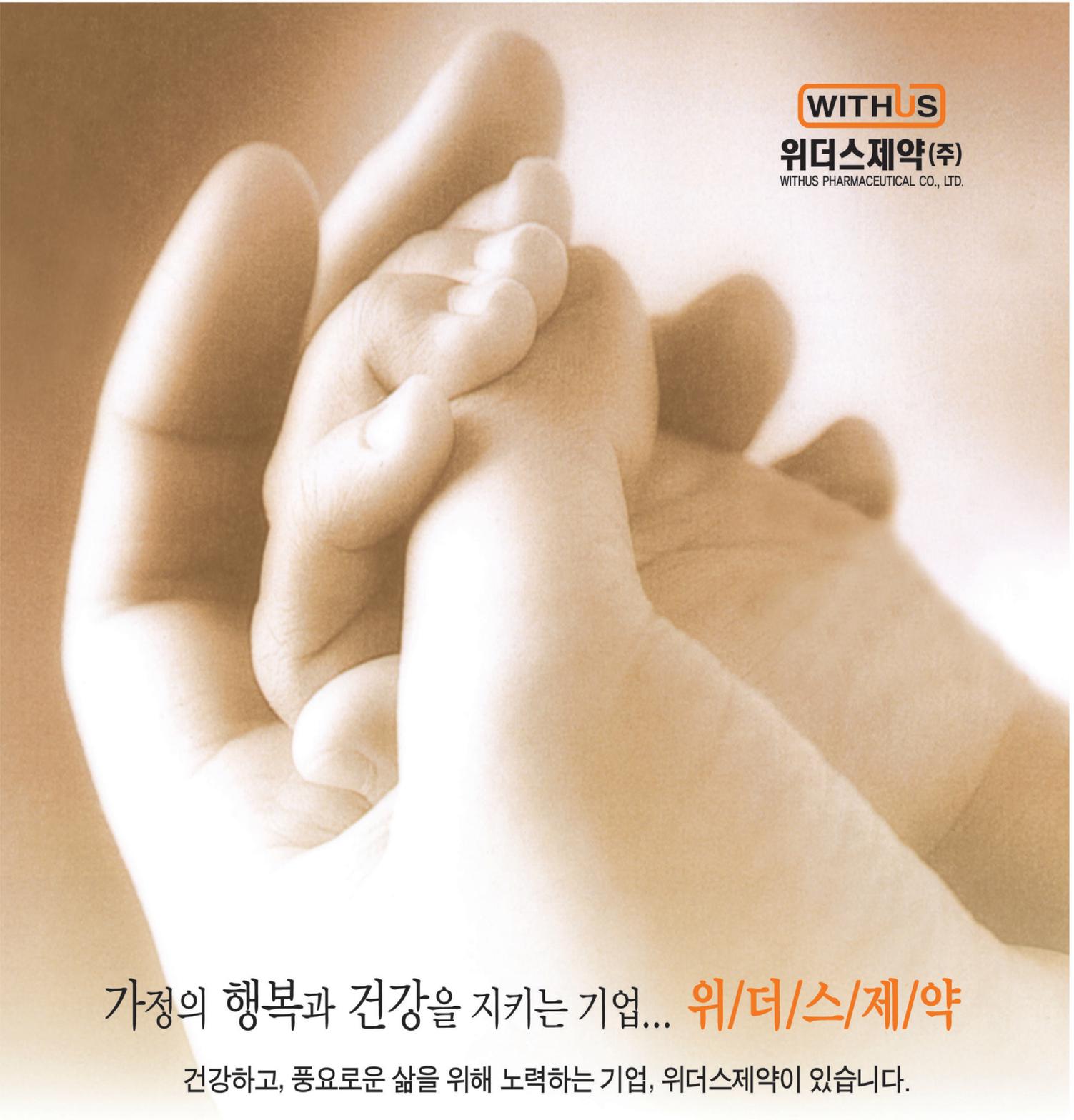
누리보세요! KB가 만들어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63호(2020.05.14)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KB차차차] 2020년 4월 글로벌리서치 <중고차거래 플랫폼 리서치> 기준 [리브메이트] KB국민카드 준법감시 심의필 200512-01466-ADP호(2020.5.12 기준) [글로벌원마켓]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2239호(2020년5월13일)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보험) 상품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가능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 국가 :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10/15/20/30년 갱신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00세입니다(담보별 상이). 또한,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 최초(갱신 전) 계약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사항 및 지급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필 제 30632호(2020.05.18)

KB 금융그룹



WITHUS

위더스제약(주)
WITHUS PHARMACEUTICAL CO., LTD.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 위/더/스/제/약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위더스제약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술, 생명과학

위더스제약은 새로운 신약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